

하느님의 왕국



[7]

인생이 하느님을 떠나서는 금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육체의 삶이 전부가 되어서 ㄱ, 그들이 자신을 정의하는 그대로 짐승으로부터 진화한 「생각하는 동물」 이고 「사회적 동물」 일 뿐입니다.

그 사회적 동물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ㄴ 구원이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오. 그들에게 이러한 어휘들은 모두 미개사회의 인간이 가졌던 원시신앙의 유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는 어휘 자체가 인간의 역량으로 이룩하는 업적과 권위를 부정하시는 어휘입니다. 세상의 권위가 인간이 떠받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오. 하느님의 말씀만이 ㄷ 인간이 추종하여야 할 참이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말씀만이 만유의 이치여서 인간이 이를 마음에 새겨 그 이치 안에서 살아야 하는 오직 뿐인 인간의 도리이고 이상입니다.

말씀은 천지가 있기 전부터 계시는 ㄹ 섭리여서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된 인생의 근본이오. 그 외에 인생이 의존할 수 있는 원칙이 없고 그 외에 인생이 신봉하고 따라야 할 법칙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 이상, 만유가 그대로만 운명 지어질 뿐입니다. 만유가 그 말씀에 따라 생겨 있는 것이어서 그 말씀대로만 될 운명을 타고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은 스스로 계시어서 ㄴ 천지를 창조하신 임께서 계시는 경계를 ㅂ 가리키신 것이어서 세속과 상반하는 의미입니다.

ㄱ.창6:3 ㄴ.요18:38 ㄷ.요8:40, 17:17 ㄹ.요1:1 ㅁ.출3:14 ㅂ.마6:9, 23:9

세상에 속한 바가 아니라 ㄱ 세상을 초월한 경계여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땅히 우러러야 할 상대 쪽이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의 천자(天子)께서 가라사대 하느님께 속한 자가 있는 반면 세상에 속한 ㄴ 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영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 같은 인생이면서 스스로 주가 되어 하느님을 떠나서 사는 삶과 반대로 주께 돌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ㄷ 그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ㄹ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의 것을 좇는 것과 하느님을 사랑하여서 하늘의 것을 좇는 것은 상반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生)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ㅁ 하였으며,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또 다른 제자인 야고보도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ㅂ 증언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그 무엇을 보아도 모두가 하느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아니면 인조 된 것이나 그 같은 피조물이 아닌 것은 사람이 마음속에 담아서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할 말씀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뜻이나 사람이 발표하는 사람

ㄱ.요18:36 ㄴ.요15:19 ㄷ.창4:26, 12:8, 26:25 ㄹ.요15:19 ㅁ.요1서2:15~17 ㅂ.약4:4

의 말과는 달리, 그 뜻 자체가 살아서 ㄱ 운행하시는 자이시어서 이를 하느님의 거룩하신 신 또는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신을 받은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그가 속임과 가짜들만의 천하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참(眞)에 범접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ㄴ 하셨습니다.

그 진주를 만난 자는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립니다 ㄷ.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맞바꿀 수 없는 그 보배가 성령이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누리게 될 영생입니다 ㄹ.

이는 인생 자체가 진품이 아니라 모조 된 생명인 까닭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ㅁ 모조품이어서 늙고 병들어 죽어서 썩어지고 맙니다.

동방에서 도라고 불리는 말씀이 곧 하느님이십니다 ㅂ.

조선 말에 윗사람의 말을 존칭 하여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하신 자와 똑같이 말씀이 계시다고도 말하듯이 말씀의 뜻과 신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뜻이 계시건만 육신을 가지고 계신 임이 아니어서 그 뜻이 하느님이십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신을 뵈을 수가 없으나 ㅅ 어린양을 믿음으로써 그의 속에 거하는 진리는 사람에게 보내심을 입은 진리의 신입니다 ㅅ.

사람이 진리를 받으면 먼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 행동하였던 자신이 가증하게 보여 자책하고 회개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거룩하신 존재가 그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한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ㄱ.히4:12 베전1:23 ㄴ.마13:45~46 ㄷ.마10:39 ㄹ.베후1:4 ㅁ.창1:27 ㅂ.요1:1 ㅅ.요1:18 ㅈ.요일4:12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하나 원어가 점지와 같은 뜻이오. 그 점지를 받은 자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계시고 그의 독생하신 어린양께서 계셔서 비로소 있을 수 있는 셋째입니다.

회개하고서 하느님께서 가린 아 주신 옷으로 죄과를 담에게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고 그 둘째 아들 대신 하느님께서 주신 셋째의 셋이 있었는데, 그 셋만을 아담이 자기의 형상이라 하고 그의 출생을 일컬어 하느님께서 점지하셨다고 ㄱ 하였듯이 성서에서 가르쳐주시는 생명에는 으레 석 삼(三)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점지하심으로써 그의 아들들이 될 자들은 삼생의 인연을 갖습니다.

첫째는 하늘도 있기 전에 생명을 가지셔서 수면에 운행하신 하느님의 신이시고 둘째는 그 하느님의 신께서 당신과 같으신 모양의 밝으신 빛을 ㄴ 생산하셔서 탄생하신 하느님의 독생자이시며 셋째는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신이 사람에게 보내지고 그 신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거듭남으로써 ㄷ 그 독생자와 같은 몸을 가질 ㄹ 빛의 아들들입니다 ㅁ.

이 삼위가 생명의 ㅂ 빛입니다 ㅂ.

사망의 어둠과는 반대여서 스스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빛이 곧 하느님이십니다 ㅅ.

두 이(二)가 있어야 비로소 있을 수 있는 석 삼이오. 천부와 천자, 양위께서 계셔서 삼생의 연을 갖는 것이고 그들은 천자께서 주시는 진리에 ㅈ 접하게 되고 그 진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버립니다 ㅈ.

그들은 실상 거룩하신 신에 범접 되어 그 신이 들린 것이어서 하늘의 것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버리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그같이 저를 위하여 이를 희생함으로써 그의 주께서 약속하신 날이 이르면 다시 태어남을 받습니다.

ㄱ.창4:25~5:3 ㄴ.요일1:5 ㄷ.요3:3 ㄹ.롬8:29 고전15:51 빌3:21 요일3:2 ㄴ.눅 16:8 롬8:18~23 ㅂ.요8:12 ㅅ.단12:3 요일1:5 요1:5~9, 8:12, 9:5, 12:45, 5:14~16 ㅇ.요일1:5 계4:9 ㅈ.요1:17 ㅊ.마10:39 막10:29~30 요15:13 요일3:16

그 날이 ㄱ 이르면 죽었어도 다시 살고, 살아 있는 자 역시 환골탈태 하여 ㄴ 이전과는 전연 다른 차원의 몸이 되어 영생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었는데, 어디에서 오셨는지 바람과 같이 나타나셨다가 가실 때도 어디로 가셨는지 바람과 같이 사라지셨던 것과 ㄷ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 그와 같이 되는 ㄹ 것입니다. 살과 뼈가 없는 혼령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몸이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이었었다는 ㄴ 사실이 문제입니다.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느님의 살리시는 생기를 받고 거듭 나 산 혼이 되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하느님의 성산에 ㅂ 거처하였듯 재생신(再生身)은 땅에서 자란 포도나무에서 난 음식을 먹는 육신입니다 ㅅ.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던 ㅇ 인생이 신선으로 탈바꿈하여 누리는 경계가 천국입니다. 선(仙)은 사람 인(人)에 메 산(山)으로 이루어진 글이오. 들짐승이 있던 들과 성산이 서로 다른 세상이 아니라 사람에서 거듭 난 산 혼과 육신은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같이 육신만으로 태어난 ㅈ 몸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라지고 싶다고 하여서 임의대로 사라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몸은 영이 육신의 경계를 이기고 태어난 생명이어서 바람과 같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임의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신령은 부활 중 첫째 부활로 ㅊ 살아날 생명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한계 속에 갇혀서 자유가 없으며 ㅋ 일시적인 ㅌ 것이어서 일장춘몽과 같으나 세상을 초월하여 누리는 자유롭고 영원한 생명의

ㄱ.요11:24 ㄴ.요11:25~26 ㄷ.마28:7, 9 막16:9, 12, 14 눅24:15, 31, 36, 요20:14, 19, 26, 21:1 ㄹ.마10:24~25 요 3:8 롬8:29 고전15:49~54 빌3:21 요일3:2 ㄴ.눅24:39 ㅂ.시15:1, 43:3 사56:7, 사65:25 계3:2, 21:2 ㅅ.마26:29 ㅇ.마11:28 ㅈ.요3:5~6 ㅊ.계20:5~6 ㅋ.요8:32~36 ㅌ.시90:10, 103:15

경계가 천국입니다.

가까웠기 오고야 말 천국이 바로 신선이 거처하는 선경입니다. 이 세상이면서도 조화(造化)가 만발하는 신선의 경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받으면 ㄱ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성서에서 말씀하신 구속이라는 말씀은 인생을 속량(贖良)하시어 인생이 잃어버린 그 낙원의 몸으로 반본(返本)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하직하고 혼령이 가는 저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사람의 몸으로는 갈 수 없는 신령의 나라이나 그 나라가 땅에 사는 사람에게 임하시어서 땅에서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을 ㄴ 증언하신 것입니다.

사람 속에 거하는 성령이 씨가 되어서 그 잉태된 씨로 말미암아, 천자께서 언약하신 날이 ㄷ 이르면 하느님의 온전하신 형상대로 ㄹ 사람이 온전하고 ㄴ 거룩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 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어서 사람 속에 거하는 말씀을 씨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중생은 회개를 지칭한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중생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서만이 아니라 무슨 글이든 말의 전후를 살펴야 곡해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중생은 당신께서 언약하신 마지막 때의 구원, 곧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을 사 받아서 영생하는 자의 모양을 이르신 것이고 베드로가 언급한 중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ㄱ. 계14:3 ㄴ. 마6:10 ㄷ. 요6:39, 40, 44, 54, 11:24, 고전15:51 ㄹ. 마5:48 ㅁ. 유24 계14:5 ㅂ. 베전1:23 ㅅ. 베전1:5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증언하였던 것이어서 인생을 보호하시는 보혜사(保惠師)를 믿음으로써 말세 나타내실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몸이 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동방에서 도를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理)와 기(氣)를 논하고 또 다른 말로 체(體)와 용(用)을 짝을 지어 말하였듯이, 진리가 하느님의 형상이면 거룩하신 영은 그 형상의 기운이십니다. 천부께서 당신의 천자를 세상에 보내셨듯이 성령은 그 천자의 회생이 있으셔서 인생에 보내심을 입은 하느님의 영입니다.

영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는 그 신령이 없다면야 육신이 인생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인생 모두가 꿈을 꾸듯 잠깐 감정을 가졌다가 다시 본래대로 영원히 없어질 목숨이어서 그 본래가 죽은 자인데, 굳이 하느님과 그 아들을 믿고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 속한 나라뿐이어서 그 나라에서 법으로 부여하는 인권을 누리면서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의무 외에는 그 무엇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 같은 계명들은 국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입니다. 사람마다 하느님의 법을 지키면 세상 국가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고서 국가가 전쟁을 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재화를 추종하지 않고서는 국가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증언하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는 상반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임금께 속하여서 그에게 충성했던 성도들이 폭도들에 의하여 피를 흘린 것이 아니요.

ㄱ. 베전1:3-5 ㄴ. 요14:16, 16:7 계5:6 ㄷ. 마8:22 눅9:60 ㄹ. 마6:24, 22:21 눅16:13, 20:25 ㅁ. 요18:36 ㅂ. 요18:37 ㅅ. 요15:19 요일4:5

이 세상 나라의 국법에 따라 피를 흘렸습니다.

과거의 성도들과 같이 말세에도 그리스도의 진실한 일군이려면 대대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육체가 죽을 뿐이요, 혼백이 있어서 하늘의 뜻을 범한 자의 혼백은 어둠에 갇혀서 이를 갈며 분을 새기게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하여야 할 자는 국가가 아니요 몸과 혼백을 다 같이 멸하시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신은 하늘에만 국한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시어서 그 하느님의 신을 『일곱 눈』 이라고도 하시고 또 『일곱 등불 켜진 것』 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이 시작이고 일곱째 날이 끝이어서 일곱이요, 등불에서 빛이 비치듯 그 빛으로 천지 만물을 빈틈없이 보시고 계시는 눈이 하느님의 신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으시는 일을 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상대하여 보시는 자 임이시니 아무것도 하느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권한 밖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하여도 빠짐없이 보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니,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익을 추구하여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그 반대로 내 이쪽이 손해를 입는 길이요 천사께서 가르치신 인생의 도리입니다.

만물 중 처음은 하늘인데 그 하늘보다 먼저 계신 임이 첫째 날의 빛이고 만물 중 가장 나중이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도 나중이 일곱째 날의 빛이요, 그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 서로 다른 빛이 아닙니다.

만유가 첫째 날의 그 처음이시고 일곱째 날의 그 끝이신 테두리 안에 종속되어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ㄱ.딤후3:12 계6:9 ㄴ.마24:9 요16:33 ㄷ.마10:28 ㄹ.마13:42, 49 ㅁ.마10:28 ㅂ.계5:6 ㅅ.계4:5 ㅇ.창2:1 ㅈ.창1:31 ㅊ.마5:38~48

하느님께서 천지의 공간과 일월의 시간 속에 한정하여 계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간과 공간이 하느님께 종속된 것이어서 주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으나, 생명이 없는 그 어둠과는 달리, 살아 움직이는 임께서 계셔서 수면에 운행하시어 생명을 생산하신 것이고 이로써 그 산 자의 처음이신 아버지와 나중이신 아들의 양위께서 함께 계시어 천지가 창조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아들이 있을 수 없듯이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 또한 있을 수 없어서 동방에서는 그 처음과 나중을 양과 음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유일하신 하느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일 양과 일 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에 빛을 상대하여 보시고 좋아하신 아버지께서만이 기록하신 천상의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의 점과 획을 사람이 자기 뜻대로 변조하여서 하느님을 단수의 유일신으로 정의하였거니와 그 유일신은 사람의 머릿속에서나 있는 상상의 존재일 뿐입니다.

상대가 없이는 유무가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가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증언하여서 비로소 계시는 임이 아니라 양위께서 계셔서 서로 상대를 증언하심으로써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생명을 가지시고 서로 대하여 보시는 양위께서 하느님이요, 먼저와 나중이신 그 양편 모양대로 남자와 남편을 돕는 여자를 지으시고 이를 『우리의 모양』 이라고 하시며 당신을 복수로 지칭하신 것입니다.

ㄱ.마10:29 ㄴ.창1:2 ㄷ.마22:32 막12:27 ㄹ.요5:26 ㅁ.마5:18~19 ㅂ.출3:14 ㅅ.요1:18, 3:11, 32, 5:12~32, 36~38, 8:17~18

하느님께서서는 처음과 끝이십니다.

천지가 있기 전에 아들을 보시고 좋으셨던 신이시니 그 양위께서 처음이시요, 그 부자께서 함께하시어 만물을 지으시고 끝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첫째 날에 독생하신 하느님께서 여섯째의 어둠을 이기시고 일곱째로 부활하시니 끝이십니다. 천부께서 그 아들을 기록하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라고 하시는 당신의 성호를 나타내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느님의 신께서 아들을 증언하신 것 같이 그 아드님께서 사람보다 나중이신 인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보시고 증언하시는 그 거룩하신 임들이 곧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느님이심을 성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천지 만물은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의 오행(五行)이 계셔서 지어진 것인데 그 어느 날이든 주장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을 받드신 하느님의 보필이 뒤따라서 지어졌습니다.

하늘이 있기 전에 하느님의 신께서 친히 운행하신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과 같이 환하신 빛을 보시고자하신 것이요, 하느님의 뜻(말씀)이 물에서 그대로 빛이 되어 나타나심으로써 생명의 빛이 탄생하시어서 아버지를 돕는 자가 되시었기 천지는 하느님의 신께서 친히 생산하신 빛과는 달리 한 다리 건너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신께서 수면에 운행하심으로써 위의 신과 아래 물의 양의로 말미암아 신과 물을 하나로 가지고 탄생하신 제 삼의 생명이 계시니 그 생명이 창조의 근본이 되신 것입니다.

음양의 결합으로 생산되는 것이 생명이요, 양과 음과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생명의 원리가 성서의 첫 말씀이시고 그 생명께서 육신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당신의 그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말씀이 성서의 신약(新約)입니다.

ㄱ.사44:6, 48:12 계22:13 ㄴ.요1:18 요1서5:20 ㄷ.창2:3 ㄹ.창2:4 ㅁ.요5:39 ㅂ.요1:18, 3:11, 5:19, 8:38, 14:9
 ㅅ.창1:1 ㅇ.계3:14 ㅈ.마19:29 요3:15~16, 4:14, 5:24, 6:40, 10:28, 53~54

거룩하신 영이 계시고 물이 있어서 탄생하신 생명이시어서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밝으셔서 낮이라고 칭함을 입으신 그 아드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거듭 나타나시니 하늘이 지어지고 여섯째로 나타나시니 인생이 지어졌습니다.

그 천자께서 여섯째 날에 지어진 사람보다 나중이신 인자(人子)로서 육신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요, 태초에 계신 말씀께서 육신이 되셨기에 사도 요한은 그 독생하신 하느님을 일컬어 『물과 피로 임하신 자』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인생과는 달리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성령으로 갖가지 조화를 하신 어린양을 증언한 것입니다. 물만이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영만이면 육신을 가지실 수 없으나 하느님의 독생자께서는 창세 전에 물과 거룩하신 성령으로 탄생하신 생명이십니다.

천자께서 인생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목격한 요한이 육체로 오셨고 또 그같이 육체로 임하시는 자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곧 참 하느님이시며 영생이시라는 사실과 그가 재림하시는 때가 이르면 그를 믿는 자들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육체로 오시는 임과 같은 몸이 되어 영생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은 자가 어떻게 호소를 하리오. 그러나 가인의 박해로 죽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느님께 호소한다고 말씀하시듯 피는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시는 성서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하느님께 열납(悅納)된 몸이었기 목숨은 잃어도 혼백은 하느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태고에 있었던 홍수 후에 하느님께서 짐승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食物)로 허락하시었는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 채 먹지 말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받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의 피를

ㄱ.요1:14, 6:51 요일4:2, 요이7 ㄴ.요일5:6 ㄷ.요17:5 ㄹ.요19:34 ㅁ.요1서4:1 ㅂ.행1:11 요2서1:7 계1:7 ㅅ.요1서5:20 ㅇ.요3:5 ㅈ.마10:24 롬8:23~25 고후3:18, 4:11 빌3:21 요1서3:2 ㅊ.창4:10 ㅋ.창9:4~5 ㅌ.창4:4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흘리게 하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ㄱ 하셨습니다.

살인하면 그 살인자가 살해를 당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릇 사람이 살인하면 그것이 씨가 되어 다시 사람이 그 같은 화를 받는 결과를 본다는 말씀이신데, 피는 생명이라고 하시며 하느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그 생명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받는 심판은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의 피를 ㄴ 하느님께서 신원(伸冤)하여 주시는 ㄷ 해원(解冤)이요, 하느님의 해원으로 그 의인들의 생명을 다시 찾으시는 것이 하느님의 구속(救贖)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 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ㄹ 하시어서 그들이 불현듯 참혹한 화를 입을 것과 그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ㄴ 하신 저주가 수천 년이 지나서 태어난 유대인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형제를 살인하였던 당사자에만 천벌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자의 종류가 되어서 ㅂ 핍박에 동조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미치고야 맙니다.

하느님의 형상은 선한 형상입니다 ㅅ. 들 짐승의 부류가 되어 살인하는 쪽이 아닙니다 ㅇ. 세상의 불의와 맞섰던 의인들의 생명을 하느님께서 찾으시니 죽었던 목숨이 ㅈ 어린양의 대속(代贖)으로 ㅊ 살아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목숨을 잃는 반면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을 맞는 자는 목숨을 얻을 하느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ㅋ.

ㄱ.창9:4~6 ㄴ.마23:35 ㄷ.계6:9~11 ㄹ.마23:35 ㅁ.창4:11 ㅂ.요8:44 ㅅ.출33:19 ㅇ.창4:25~5:3 ㅈ.마10:39, 16:25~26 ㅊ.창4:4 ㅋ.마25:46 계20:4~5

사람은 피가 운행하여야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고 맥박이 멈추면 사망입니다. 물은 자체로는 움직일 수 없으나 음수와 양기가 결합하여 피가 되어 운행하듯 생명은 음양의 조화입니다.

도(道)와 진리와 생명은 동일한 입을 가리킨 어휘들입니다 ㄱ.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탄생하신 ㄴ 생명이 계시니 곧 독생하신 하느님이십니다 ㄷ.

그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생명이 인생입니다.

밤낮이 있어서 하루이나 삶의 활동이 없는 밤은 무의미한 것이어서 사람들은 밝은 낮을 일컬어서 하루(日)를 지칭합니다. 아침을 하루의 시작이라 하고 저녁을 하루가 다 간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은 뜻글의 날 생(生) 같이 하루를 날이라고 발음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삶(生命)이라고 하여서 사람이라는 표음이 되었듯이 사람은 물과 신으로 탄생하신 생명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살 생(生)이 붙어 인생(人生)입니다. 육신이 있어도 살아있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상형문자로 사람 인(人)이 생명의 모양을 나타낸 형상입니다. 위는 하나여서 양이고 아래는 둘이어서 음인데 그 음양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석 삼의 삼각형을 이룬 형상이 사람 인(人) 자입니다. 인(人) 자의 옛 원형이 삼각형(△)입니다.

하늘이 먼저이고 땅이 나중이듯 위 하나는 수의 처음이어서 양이고 그 하나가 나뉘어진 아래 둘은 그 처음에서 연유한 나중이어서 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남자가 아니면 여자이듯 수도 하나와 같은 유형의 기수가 아니면 둘과 같은 유형의 우수여서 수를 양과 음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독생자께서는 사람의 씨와는 다릅니다. 하느님의 신이 사람 몸에 잉태되시어 ㄹ 오셨으니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ㅁ.

ㄱ.요14:6 ㄴ.창1:2~3 ㄷ.요1:18 요1서5:20 ㄹ.마1:18~20 눅1:35 ㅁ.마8:20

동정녀에게서 거룩한 신으로 잉태되어 육신으로 오신 ㄱ 자이시어서 여섯째 날의 어둠을 깨뜨리고 일곱째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로 나신 생명의 빛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ㄴ 생명이고, 태초에 하느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어서 위의 신과 아래 물이 양과 음이 되어 물에서 제 삼의 생명이 탄생하셨으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지도 있고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신의 상대는 물이었으나 아버지의 상대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없이 아들이 있을 수 없고 아들 없이 아버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태초에 생명께서 탄생하시니 생산하신 신께서 양이시고 그로부터 탄생하신 빛께서 음이시오. 그 양의께서 함께 하시어 ㄷ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어서 천지와 인생의 주(主)는 천부와 천자이신 하느님들이십니다 ㄹ.

뜻을 내어 주장하시는 아버지와 그 뜻을 받들어 수행하셔서 아버지를 도우신 아드님께서 짝이 되시어 일하신 바가 둘째부터 여섯째까지의 각 날입니다.

첫째 날에 탄생하신 빛이 다시 이르시어서 둘째 날이 되었고 이날에 하느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라고 하신 ㄴ 하느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따르신 하느님께서 계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고 하느님께서 그 만들어진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시어서 하느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ㅅ.

빛이 또다시 이르신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여서 물이 드러나라고 이르신 ㄷ 말씀이 계셔서 그 뜻대로 땅과 바다가 만들어졌기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칠일 중 한가운데는 광명의 자리입니다. 하늘에 광명이 있어서 그 빛을 아래 땅에 비추게 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이 다 같이 밝도록 천지를 빛으로 채우신 광명의 자리입니다.

ㄱ.요1:14 요일4:2 ㄴ.요8:58, 17:5 ㄷ.요1:2, 17:5, 24 ㄹ.창1:1 시2:12, 110:1 사9:6 마22:44, 26:64 막12:36, 14:62, 16:19 베전3:22 ㅅ.창1:6 ㅆ.창1:1 ㅇ.창1:9

첫째 날에 빛이 탄생하시어서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하느님께서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증조와 사시와 일자와 년한이 이루라』 라고 ㄱ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명이 있으셨기 그 명을 좇아 하느님께서 두 큰 광명을 ㄴ 만드시고 그 중 하나를 큰 광명이라 하시어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하나를 작은 광명이라 하시어 밤을 주관하게 하시어서 그 두 큰 광명이 서로 짝이 되게 지으셨습니다.

먼저 지어진 하늘과 나중에 지어진 땅을 짝지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듯이 두 광명을 지으셔서 일월이 서로 짝이 되게 지으시고 그 일월은 다시 천지와 짝이 되어 천지가 양이고 일월이 음이 되게 지으신 것이어서 공간을 이루는 천지 안에 시간을 이루는 일월이 없으면 천지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땅에서 풀과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게 하시어서 하늘과 땅과 그 사이 씨 맺는 것들의 삼재(三才)를 지으셨듯이 하늘에 일월인 두 광명과 또 무수한 성신(星辰)을 만드셔서 삼광(三光)을 지으시고 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취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신』 것이어서 ㄷ 만유를 주관하시고 선악을 나누어 ㄹ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의 모양을 따라 일월과 성신이 지어졌습니다.

하느님은 빛이십니다 ㄹ. 넷째 날에 지어진 일월성신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을 지으신 빛이시어서 이 세상의 날이 아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빛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유일하신 아버지와 유일하신 아드님이신 두 빛이신데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신을 받고 태어나는 무수한 첫 열매의 ㅂ 하느님이시어서 하느님은 석 삼자, 삼위(三位)의 하느님이십니다.

ㄱ.창1:14 ㄴ.창1:16 ㄷ.창1:17~18 ㄹ.창1:4 ㅁ.요일1:5 ㅂ.계14:4 ㅅ.눅20:37

그 삼위의 형상과 같이, 일월(日月)의 두 광명과 빛의 아들들이 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형상으로 십이궁(十二宮)의 무수한 성신(星辰)을 지으셨고 ㄱ 하느님의 창조는 그 넷째 날을 중심으로 천지와 초목을 지으신 전반과 기식(氣息)이 있어서 ㄴ 움직이는 생물을 지으신 후반이 또다시 짝이 되어 서로 맞물려서 하나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칠 일은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모양이어서 하느님의 일곱 영이 오. 등대는 하나인데 그 등대에 일곱 등불이 있는 금 등대와 ㄷ 같이 칠 일이 개별적인 날이 아니라 가운데 빛과 좌우로 세 빛이 결합한 하느님의 신입니다 ㄹ.

첫째 날은 하느님의 신께서 수면에 운행하시어서 빛을 생산하시니 아드님께서 아버지의 품에 계신 ㄷ 날이나, 일곱째 날은 하느님께서 낮이라고 칭하신 그 빛에 복 주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안식하시어서 ㄹ 첫째 날과 주객이 뒤집힌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지으신 천지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어서 ㅁ 아들이 만국을 친히 다스리는 ㅂ 날이 하느님의 안식일입니다.

첫째 날에 능동 하시어 생산하신 신과 수동이 되어 탄생하신 빛이 일곱째 날에는 뒤바뀐 것이어서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서로 상대의 안에 계시어서 하나이신 ㅁ 신명(神明)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천지의 유일하신 주이시어서 ㅂ 천지신명입니다 ㅅ. 천지가 이 신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하늘이나 땅의 어떤 신이나 ㅅ 생물이라도 그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날이 아니오. 둘째 날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은 처음과 끝이시오스. 그 처음과 끝 안에 천지 만물이 종속되었기 천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ㄱ.창37:9 ㄴ.창6:17, 7:22 ㄷ.출25:33 ㄹ.계4:5 ㅁ.요1:18 ㅂ.창2:3 마28:18 ㅅ.요10:30 ㅆ.요17:21 계19:15 ㅈ.마11:25 ㅊ.신4:39 수2:11 ㅋ.눅2:13, 20:36 ㆁ.계1:8, 22:13

첫째 날에 빛이 있으시어서 이전의 어둠과 이후의 밝음이 나뉘었듯이 중앙의 넷째 날에 광명이 지어졌고, 그 중앙 전반의 둘째와 셋째 날은 먼저 하늘과 그다음에 땅과 그 양자 사이에 각종 씨 맺는 초목이 지어진 날들이어서 기식이 없어서 움직이는 앓는 삼재(三才)를 지으신 ㄱ 반면, 넷째 날 건너편의 다섯째와 여섯째 날은 전반과 상하가 뒤집혀서 땅 아래 물고기기 먼저이고 그다음에 땅 위 공중의 새와 그아래와 위 사이에 땅에서 기는 짐승과 사람이 지어져 기식이 있어서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 삼재(三才)가 지어졌습니다 ㄴ.

전반의 삼 일과 후반의 삼 일이 넷째 날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 모양이 되어 마주함으로써 전후가 하나로 결합한 일곱 날입니다.

태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과 그와는 상대적인 모양을 가진 음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 형상이 한국 국기의 태극이고, 전(前) 삼일의 세 빛과 그와는 거꾸로 뒤집힌 후(後) 삼일의 세 빛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는 형상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국기로 사용하는 별입니다 ㄷ.

두 그룹 사이에 계신 임이^ㄹ 하느님이십니다. 처음과 끝은 양과 음의 양의(兩儀)이고 이스라엘의 별이 상하 두 선 사이에 있듯 양의 사이에 양과 음이 하나가 되어 양도 되고 음도 되는 중앙이 있어서 삼 극이라 불렀고 그 모양이 천지인(天地人)과 같아서 삼재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람은 머리를 아래로 굽힌 짐승과 달리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두 발은 땅을 디더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ㄹ, 하늘이 보좌이고 땅이 발등상인^ㄹ 하느님의 형상과 같습니다.

천자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ㄹ 하셨습니 다.

ㄱ.창1:6~13 ㄴ.창1:20~30 ㄷ.마2:2 계22:16 ㄹ.출25:22 민7:83 ㅁ.창1:26 ㅂ.사66:1 ㅅ.마8:20

당신께서 거처하실 집이 없음을 탓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생각하시는^ㄱ 당신을 이 같이 말씀하시어서 인생이면 마땅히 근본을 하늘에 두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만이 인생이 추구하여 야 할 이상임을 가르치셨습니다^ㄴ.

천지가 있기 전에도 신과 물과 그 양의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생명의 빛이 있어서 삼 극이고, 하느님의 일곱 날 전체를 보아도 삼 극입니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시초와 궁극으로 맞상대를 이루고, 그 사이에는 천지 만 물을 지으신 빛의 오행이 있어서 모두 일곱 빛인데 하늘의 광명을 지으신 날이 중앙이어서, 양극과 그 양쪽을 하나로 공유하는 황극(皇極)이 삼 극을 이루는 일곱 빛입니다.

하느님의 이레는 세상의 칠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하루는 세상의 천 년도 되는^ㄹ 하루입니다.

하느님의 심판 날을 다니엘은 이레로써 예언하였는데^ㄹ 그 이레를 날짜 수가 아닌 햇수로 풀이하였고 다시 그 이레를 전후로 양분하면 각기 삼 일 반이 되어 이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ㄹ 하였습니다.

천자께서 오병이어(五瓶二魚)로 오천 명이 먹을 양식을 지으셔서^ㄹ 하느님의 창조를 보여주셨듯이 하느님의 이레 중 첫째와 일곱째 날은 그 사이의 닷새와 구별되고 그 닷새는 다시 중앙의 하루와 전 이틀과 후 이틀로 구별되어서, 심판 날의 칠 년을 전후로 나누시어 천이백육십 일이라고 하시고^ㅇ 그 삼 년 반을 다시 구분하셔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ㄹ 계시하셨습니다.

칠 일 중 처음과 끝과 중앙이 아닌 네 날이 사상(四象)입니다. 둘째와 셋째 날이 쌍이 되고 다섯째와 여섯째 날이 쌍이 되며 그 두 쌍이 서로 양과 음으로 마주하여 사람의 수족과도 같습니다. 성서에는 이 사상이 하느님 께 종속되어 있는 네 생물로^ㄹ 표시되어 있습니다.

ㄱ.눅2:49 ㄴ.요14:2 ㄷ.창1:14 ㄹ.베후3:8 ㅁ.단9:24~27, 10:2~3 ㅂ.단7:25 ㅅ.계11:3, 12:6 ㅈ.계12:14 ㅊ.출 25:19 삼하6:2 겔10:9, 14 계4:7

신약성서에는 네 생물이라고^ㄱ 쓰여 있으나 구약성서에는 그룹이라는 히브리어로도 쓰인 생물의 수는 쌍이 아니면 넷으로 계시가 되었듯이 으레 우수입니다.

그룹이 쌍이면 그 가운데가 거룩한 자리이고 넷이면 그 중앙이 지성소(至聖所)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陣)을 쳤고^ㄴ 그 중앙에 장막을 치고 그 막 안에 궤(櫃)를 모셨는데, 그 궤는 좌우로 소 같은 형상에 날개가 있는 그룹 한 쌍이 붙어 있어서 그 두 그룹의 양 날개로 가려져 있는 궤이고 그 궤 속에는 하느님께서 돌 판에 친히 쓰신 문서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궤를 증거궤(證據櫃)라고 지칭하셨으며 그 궤가 있는 곳을 속죄소(贖罪所)라고^ㄷ 지칭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그 궤 속에 봉안하고서 예식으로써 지키는 하나하나 모든 율례가 하느님과 그 하느님께서 이루실 일의 모형이어서 그 궤를 언약궤(言約櫃)라고도 하였고 따라서 그 궤는 장차 이루어질 일의 증거가 되어서 증거궤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일컬으시어 그 속죄소 양쪽에 마주하여 붙어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인간을 대하시는 임이라고 하시어서 ㄱ 인생의 죄에 대하여 속죄하는 제물이 없이는 아무라도 하느님을 대할 수 없는 것을 나타 내시어서, 하느님이 인생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양과 연합하셔서 하나이신 주이심을 모형으로써 계시하셨습니다.

성소가 하느님의 신상을 모신 신전이 아닙니다. 말씀이 ㅂ 모셔져 있는 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至聖所)입니다.

천부께서 거룩하시듯이 천자께서도 거룩하시니 ㄷ 만유를 좌우하시는 천지의 주(主)시요 인생이 오로지 받 들어야 할 임금이신 것을 황(皇) 극의 형상을 지으시어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ㄱ.계4:6-8, 5:6-8 ㄴ.민2:1-33 ㄷ.출25:22, 26:34 ㄹ.민10:33 ㅁ.출25:22, 민7:89 ㅂ.요1:1 ㅅ.출26:33 ㅇ.창2:3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는 아무라도 살 자가 없습니다 ㄱ. 그 하느님께서 장차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ㄴ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오시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 그가 곧 장차 오실 하느님이십니다. 문제는 메시아께서 각기 다르게 두 번 오시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으나 유대의 학자들이 성구를 제멋대로 취사선택하여서 이미 오셨던 그리스도를 하느님께서 보내신 하느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속죄가 없는 하느님의 강림은 인류의 전멸밖에 안 되나, 어린양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기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ㄷ.

그 어린양께서 당신의 재림을 언약하셨고 그 재림을 당신과 신부와의 혼인으로 계시하여 주시었기 옛 이스라엘 백성이 가마를 만들어 몸에 묶어서 메고 다녔던 문서궤는 신랑이 혼인 전에 보내는 함과 같습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룰 것을 언약하는 것이 정혼(定婚)이듯 하느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이어서 이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생산하시어서 그 둘로 나뉘어 계심이 하느님의 형상이 아니오. 그 양위께서 서로 사랑하시어서 하나를 이루신 ㄹ 임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서 황극을 이루시는 주이시고 그의 영을 일곱 영이라고 ㅁ 하신 것도 등대 좌우 여섯 등불 가운데 좌도 되고 우도 되는 중앙이 있어 일곱입니다.

중앙의 거룩한 것과 바깥의 속된 것을 구별하는 ㅂ 장막에 청색 실과 홍색 실로 서로 대칭되는 색상과 가늘게 끈 베 실과 자색 실로써 엮고 짙은 대칭의 색으로 그룹들을 수놓았고 ㄱ 그 그룹을 넘으면 그 안의 모든 것이 정금(正金)으로 입힌 황색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건곤감리(乾坤坎離)의 사의(四儀)이고 이를 태극의 사우(四隅)에 괘(卦)로 나타낸 것이 한국의 국기입니다.

ㄱ.출33:20 ㄴ.요1:14 ㄷ.요3:17 ㄹ.요10:30 ㅁ.계5:6 ㅂ.계11:2 ㅅ.출26:1

하느님의 보좌 아래가 궁창이고 그 아래에는 사방으로 네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있고 그 생물은 바퀴가 있으며 그 각 바퀴 안에는 생물의 신이 있다고 하였듯이 ㄱ 사람이나 동물은 영과 육신이 연합하여 성장하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 한 바퀴 일생이 됩니다.

궁창이라고 일컫는 하늘 아래 생물의 신이 육신과 연합하여 혼(魂)이 되어서 사물을 인식하는 기간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하늘과 땅이 있어도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유무(有無)가 증명되지 아니하여 무엇인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아니합니다.

하느님께서 천지와 일월을 지으시고 움직이는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천지는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고 일월은 사람이 없으면 명암도 없는 헛것입니다. 태초에 신과 물이 짝이 되어서 빛이 있었듯이 천지와 일월이 짝이 되어 움직이는 생물이 생겨난 것이어서 그 삼자가 하나로 연관을 맺어서 만물이 존재합니다.

일월의 빛으로 동물이나 사람이 흙에서 살아 있는 몸이 되어서 자기 주위를 상대하여 천지를 분간하고 식물(食物)을 얻는 것이어서 태초에 빛이 탄생하시매 아버지와 아들이 상대이시듯 천지와 초목의 상대로서 땅 아래와 땅 위와 땅에서 움직이는 생물들을 지으시었습니다.

생물 아래가 바퀴이듯 건곤감리(乾坤坎離)는 생장렴장(生長殮藏)과 붙어 있습니다. 위 하늘과 아래 땅이 서로 상대이고 물과 불이 상대이듯 건곤감리는 상대성을 표현한 것이고 생이 장을, 장이 림을, 림이 장을 낚으며 순환하여서 생장렴장은 사신의 운행을 표현한 것이어서 사상은 사방(四方)도 되고 사시(四時)도 되는 형상입니다.

하느님께 종속된 네 생물의 신은 곧 보좌의 좌우전후가 서로 대칭을 이루는 건곤감리이고 그 사상(四象)은 바퀴가 있어서 돌며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듯이 가운데 황극(皇極)과 그 주위의 사상을 극동에서 오행(五行)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ㄱ. 겔1:4~25 ㄴ. 창1:2~3 ㄷ. 창1:6~31

동방에서 사상을 성서와 같이 동물과 색으로 상징하여서 사신(四神) 또는 사물(四物)이라고도 일컬어온 바, 사시 중 가을이 되고 사방 중 서방이 되는 쪽을 베 실같이 엷은 흰색으로 표시하고 사자와 같은 맹수를 호랑이로 표시하여서 백호(白虎)라고 하였으며 위력의 뿔을 가진 그룹의 모양을 무(武)라고 하여서 엷은 색의 대칭이 되는 검은 현(玄) 자를 붙여 북방의 현무(玄武)라고 하였고 독수리 같은 날짐승의 표상에 붉은 색을 붙여 남방 주작(朱雀)이라고 하였으며 성서에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한 형상을 사람 대신, 용으로써 북과 동방을 의미하는 청룡(靑龍)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서의 네 생물이 가축과 사람과 들짐승과 날짐승의 모양이나 사람의 모양 같다고 하신 표상이 극동에서는 용으로 대체된 것이 기이합니다.

천자께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태고에 거짓으로 사람을 죽였던 뱀의 자식들이라고 ㄱ 칭하신 것이 뱀의 혈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듯이, 용이라고도 하는 옛 뱀이 ㄷ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비유이고 성서의 네 생물 역시 실제 생물이 아니라 상징으로 나타내신 생물입니다.

사방의 네 생물이 날개로 서로 연하여 붙어 있고 그 생물의 머리 쪽이 하늘이라고 일컫는 궁창이어서 하늘을 머리에 인 땅을 의미하는 토(土) 자를 써서 사상의 가운데를 표시하는 것은 우수인 십(十)과 기수인 일(一)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문자가 토(土) 자이어서 음도 되고 양도 되는 황극(皇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룹이 둘이면 그 가운데가 하느님의 거룩하신 자리이고, 그룹을 네 색상으로 수놓았으면 그 수놓은 성막(聖幕)의 안쪽이 거룩한 곳이어서 ㄴ 그곳의 모든 것을 정금으로 입혀서 ㄷ 황극을 누런색으로 표시합니다.

보좌라고 하는 임금의 자리와 그 주위의 사상이 오행입니다.

ㄱ. 마12:34 요8:44 ㄴ. 요8:37 ㄷ. 계12:9, 20:2 ㄹ. 출25:22 ㅁ. 출26:1 ㅂ. 출25:17~39

조선 말에 하느님이라는 의미는 하늘에 계신 임금이라는 의미이듯, 천지의 주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하느님의 보좌이고 그 하느님께서 땅에서도 주이시어서 땅은 그 임금의 발 등상입니다.

보좌 아래 하늘이라고 일컬으신 궁창이 있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하늘 아래에는 돌아가는 네 바퀴가 있어서 춘하추동 사시와 동서남북 사방을 이루며 끊임없이 도는 바퀴가 있습니다.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고 하였듯이 한 해가 있으면 그 안에는 다시 삭망을 반복하며 도는 달이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어서 태어났다가는 죽고 마는 인생이 결국은 영원히 돌고 도는 세월의 한 조각입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은 바퀴 안의 생물의 신이 각기 자신의 사방을 가진 그룹입니다. 천지의 주에 의하여 사는 존재임에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자신의 짧은 세월을 보내는 생명이어서 성서는 세상 나라의 왕이었던 두로 왕을 가리켜 하느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룹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무리 부귀한 왕이라도 선악과를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룹으로써 하느님의 거룩한 것과 세상의 속된 것이 분리된 것이어서 그 그룹을 넘어서야 비로소 영생하는 나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느님의 모든 계시의 비밀은 어린양의 말씀과 계시로 다 풀립니다.

생물은 같은 생물이나 요한이 본 생물의 모양과 에스겔이 본 생물의 모양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어린양의 계시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계시하시고 그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신4:39 수2:11 마11:25 ◦.사66:1 마5:34~35 ㄴ.겔10:14 ㄷ.겔28:12~16 ㄹ.창3:22~24 출25:16~21, 26:1 ㄹ. 마11:27 요14:26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 라고 ㄱ 계시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매번 당신께서 이루신 대상을 보시는 임이시어서 ㄴ 어린양께서 하느님의 일곱 영을 일곱 눈이라고도 ㄷ 계시하여 주시고 곧바로 네 생물과 그 네 생물이 받드는 거룩하신 삼자를 계시하셨습니다.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ㄹ 찬미한 세 거룩하신 주 하느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임을 일컫는 것이요.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임이시어서 세세토록 사시는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상위의 삼극과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하위의 사상이 하나가 되어 하느님의 일곱 영이 되는 것을 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그 일곱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으신 ㄹ 하느님의 영이시어서 사람의 편이 되시어 기도를 하시고 ㄹ 그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느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ㄱ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느님의 신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어서 ㄹ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그렇게 강림하셨던 거룩하신 신이 사도 요한이 생존하여 있을 때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ㄱ 거룩하신 신의 모습이 아니요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 속에 계시는 그 성신이 장차 오실 자의 ㄱ 모습이 또한 아닙니다.

ㄱ.계4:5~9 ㄴ.창1:4~31 ㄷ.속3:9, 4:10 계5:6 ㄹ.사6:3 ㄹ.눅24:49 요16:7 계5:6 ㄹ.속12:10 롬8:26 ㄹ.요17:11, 21~23 ㄹ.출19:11 ㄹ.행2:1~4 ㄹ.사31:4, 66:15 미1:3 마16:27 계1:8, 22:20

하느님은 과거에 계셨고 지금 계시며 장차 오실 자입니다 ㄱ.

과거에 하느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어^ㄴ 하느님의 거룩함과 인생의 속됨을 구별하시고 속된 인생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으니 태초에 당신의 독생자를 생산하신 하느님의 신이십니다^ㄷ.

독생자께서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고 하느님의 신만을 드러내시어 모세조차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ㄷ 신이십니다.

속된 인생이 감히 근접하지 못할^ㄹ 거룩하신 모습으로 임하셨던 신이시니 이는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아직 인생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아니하셨기 인간과 하느님의 사이가 성(聖)과 속(俗)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하느님의 품에 계시던 자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ㅂ 인자(人子)이시오.

여섯째 날에 지으신 사람에게서 육신으로 탄생하시어 하느님의 첫째 날과는 거꾸로 천부께서 아드님 안에 감추어 계신 육신을 드러내셔서^ㄴ 일곱째 날의 몸으로 오셨고 그 몸으로 인생을 위한 대속(代贖)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신^ㅇ 천자이십니다.

성신을 보내시려고 오셨던 임이십니다. 그의 이루심으로 성(聖)과 속(俗)을 가로막는 성 막이 찢기고^ㄴ 하늘의 거룩하신 신이 거꾸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으시어 인생 안에 임하시게 되었으니^ㄷ 하느님께서 당신의 씨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ㄷ.

하느님의 행차에 삼 차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어린양께서 친히 언약하신 장차 오실 자의^ㅌ 차례입니다.

이 땅에 하느님께서 심으셔서 맺은 당신의 첫 열매의^ㅍ 수가 차서^ㅎ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두시려고^ㅊ 오시는 임이십니다.

ㄴ.계1:4, 4:8 ㄷ.출19:11 ㄷ.창1:2 ㄹ.출33:20 요1:18 ㄹ.출19:21, 20:19 ㅂ.요 1:14 ㄴ.요14:10, 15:24 ㅇ.요 19:30 ㄷ.마27:51 ㄷ.요14:16 ㄷ.요12:24 ㅌ.사 31:4, 66:15 미1:3 마24:3 계1:18 ㅍ.요12:24 약1:18 계14:4 ㅎ.계 6:2 ㅊ.마24:31

임하옵시는 나라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땅에 심으셔서^ㄴ 열리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장차 오실 자는 하느님께서 거두신 그 많은 열매와 함께 천하 만국과 싸워 이기시고^ㄴ 당신의 거룩한 성에 좌정하셔서^ㄷ 땅에서 만국을 친히 다스리실 자입니다^ㄷ.

육신이 되시어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던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거꾸로 되어 세상을 심판하는 왕권을 가지고^ㄹ 오시는 것이어서 땅에서 왕 노릇 할^ㅂ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신^ㄴ 원군(元君)이시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의 몸, 그대로 오시는^ㅇ 임금입니다.

사람의 눈에 일 차는 신이시고 이 차는 육신이시고 삼 차는 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신 황극의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신과 육신이 하나이시어서, 임의로 육신이 되어 사람 눈에 보이게도 하시고 신이 되어 사라지게도 하시는 몸으로^ㄴ 세상에 오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ㄷ.

수많은 천군과 함께 오시니 이 땅의 거민이 보고 극도로 두려워서 가슴을 치며 숨으나^ㄷ, 성령으로 인(印) 치심을 받은 자들은 오시는 자와 같은 몸으로 거듭나^ㅌ 비로소 세상이 후천(後天)을 맞습니다.

여섯째 날 지어진 인간이 세상을 통치하는 선천(先天)의 종말이요, 하느님의 아들들이 만왕(萬王)이 되고 만주(萬主)가 되어서^ㅍ 만국을 다스리는 왕국의 시작입니다.

많고 많은 만왕이요 만주가 따르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ㅎ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강림하심으로 세상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이오^ㅊ.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비로소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ㄱ.창2:8 계5:10 ㄴ.요5:22 계19:11~16 ㄷ.사2:3~3 욥3:12 마5:35 계14:1 ㄹ.계11:17, 19: 15, 21:3 ㅁ.마16:28
 ㅂ.계5:10, 20:4 ㅅ.계1:5 ㅇ.행1:11 ㅈ.막 16:14 눅24:36~42 요20:19 ㅊ.요1서1:1~2 ㅋ.계6:15 ㅅ.요3:8 요1서
 3:2 ㅆ.마 19:28 눅22:30 계2:26, 20:4 ㅇ.계17:14 ㅊ.계11:15 ㅋ.마6:10 ㄴ.계10:7, 21:6

하느님께서 피를 일컬어 생명이 되는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을 반드시 다시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찾으시는 과정이 죽임을 당한 자는 살아나는 반면, 죽이는 편은 피를 흘리는 심판이고 이는 하느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형상과 같은 자가 살인할 수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하느님께 호소하였고 이에 하느님께서 그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를 일컬어 아담의 형상과 같은 씨라고 하였듯이 비록 사람이라도 하느님을 떠나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씨종에게 성서는 하느님의 형상과 같다는 말씀을 아니하시고 사람 대신 짐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형상은 선한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일곱째 날은 하느님의 첫째 날과 주객이 뒤집힌 날이요, 이는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시어서 당신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를 아드님께 맡기시고 아드님 안에서 안식하신 것이어서 아드님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느님의 선하신 형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과 같이 선하신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하여서 육신으로 오신 자를 증언하였는데,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신 그 육신을 요한은 더욱 자세히 증언하기를 『증거하는 자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하여서 사망을 이기신 자의 형상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느님의 기록하신 신도 되시고 물도 되시는 생명이시어서 성령과 물과 생명이 하나이신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몸으로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자를 증언한 것이고 그가 오시는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와 같은 몸이 되어 영생할 아들들의 형상을 증언한 것입니다.

ㄱ.창9:4~6 ㄴ.창4:10 ㄷ.창4:25~5:3 ㄹ.마7:6 요8:38~44 ㅁ.출33:19 막10:18 ㅂ.마28:18 요16:15, 17:10 ㅅ.요1서5:5~6 ㅇ.요1:14 요1서4:2 ㅈ.요1서5:7~8 ㅊ.요3:5~6 ㅋ.요1서3:2, 4:17

두 굽은 선 가운데 이스라엘의 별이 있고 사괘(四卦) 안에 태극이 있듯이, 그룹의 수가 둘이 아니면 넷이고 그 날개가 둘, 넷, 여섯으로 보여주셨듯이 그룹은 보좌에 계신 기록하신 자와 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한 우수(偶數)입니다. 여섯 수만으로 이루어진 육백육십육을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고 하였고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하느님의 아들들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느님의 영은 우수가 아닌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느님의 영을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는 것으로 계시하시어서 지성소에 안치하는 등대에 켜 있는 일곱 등불이 하느님의 영을 상징하는 등불이니 하느님의 형상입니다.

성전에 있는 지성물(至聖物)로 구별되어서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기록하여지는 순금 등대입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시어서 그 형상을 살구나무의 형상으로 등대를 만들게 하시어서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의 모형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등대는 중앙에 있는 등불에 좌로 세 등불, 우로 세 등불이 가지처럼 뻗어 있어서 일곱 등불입니다.

등대 일곱 개를 개별적으로 나란히 세워 놓은 등불이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의 등대이고 그 하나 안에는 좌측의 세 등불과 우측의 세 등불이 서로 마주하는 짝이 되어 서로 결합하여서 하나가 된 빛이어서 전체를 의미하는 하나와 좌우 여섯의 일곱 불빛입니다.

하느님의 일곱 영(신)은 하느님의 일곱 날의 모양입니다. 하느님의 신을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것이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일곱 날의 형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느님의 신과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ㄱ.출25:19 ㄴ.겔10:9 계4:6 ㄷ.출25:20 ㄹ.겔1:6, 10:21 ㅁ.사6:2 계4:8 ㅂ.계 13:18 ㅅ.계15:2 ㅇ.계4:5, 5:6 ㅈ.요 4:24 ㅊ.계4:5 ㅋ.출25:31~35 ㅌ.출30:29 ㅍ.요6:63 ㅎ.출25:33

하느님의 첫째 날에 탄생하신 빛이 있어서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빛이 일곱째 몸으로 다시 나시니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으시는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어서 ㄱ 일곱 등불로써 천지를 창조하신 주의 모습을 형용하셨습니다.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던 아드님에 대하여 주장하시던 아버지께서 일곱째 날에는 아드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아드님 안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주이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시어 그를 주로 삼으신 것이어서 아버지와 아드님이 하나를 이루신 ㄴ 것입니다. 주(主)와 종(從)이 있으면 둘이나, 그 둘이 하나를 이루시는 요점은 서로 상대의 안에 계시어 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첫째 날은 아드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나 일곱째 날은 거꾸로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 계신 모양입니다. 하느님의 신께서 아드님을 생산하셨으면 둘이지 하나일 수 없으나, 양위께서 서로 안에 계시어서 천지 만물에 대하여 황극을 이루시는 주(主)이십니다.

아버지의 충실한 종이 되셔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느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능동하셔서 아드님을 생산하신 하느님의 신이 그 아드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보내심을 입으셨습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선하신 형상을 ㄹ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교훈입니다.

주 하느님의 계명이 있으시거늘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기 하느님과 분리되어 멸망하나, 하느님의 선하신 희생의 제물이 ㅁ 있으시니 사람이 그를 모신 종속이 되어서야 다시 하느님과 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ㅂ 것이고 이것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입니다.

ㄱ.창1:3~2:3 ㄴ.요10:30 ㄷ.계5:6 ㄹ.출33:19 ㅁ.요1서2:2, 4:10 ㅂ.요17:21

하느님께서 이르신 복과 화는 이 같은 변역(變易)입니다. 역(易)에서 주체를 뱀과 같은 일(一)자로 그려서 이를 양(陽)이라고 하고 그 상대인 객체는 그 일자가 둘로 쪼개져서 가운데가 빈 형상을 그려서 이를 음(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음양의 표시를 효(爻)라고 일컫습니다.

천지가 서로 짝을 이루고 일월이 서로 짝으로 지어졌듯이 이 효를 짝지어서 효와 효를 겹치면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하기 그것이 사상이 되고 음양이 있으면 그 사이에 생명이 생산되어서 천지인 삼재로 세 효를 포개면 여덟 가지 경우가 생겨서 팔괘(八卦)가 됩니다.

복희의 팔괘를 물에서 나왔다고 하여서 하도(河圖)라고 하듯이 삼 층으로 ㄱ 된 방주로써 구원을 받아 물에서 나온 노아의 여덟 식구는 현존하는 인류의 바탕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과 초목을 지으신 전(前) 삼재가 있으면 어류와 조류와 땅의 생물들을 지으신 후(後) 삼재가 있어서, 그 전후가 양과 음으로 짝을 이루어 서로 상통하게 하였고 그렇게 하여 지어진 모든 것이 하느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ㄴ 형상입니다.

그 형상 그대로 전 삼재의 세 효와 후 삼재의 세 효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결합하면 그 경우가 육십사 괘가 되어서 이 괘상(卦象)을 보고 세상만사의 변역을 관찰한 것이 역입니다.

전 삼재는 후 삼재의 근본이어서 후 삼재의 아래가 되고 후 삼재 중 가운데 자리가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어진 자리여서 ㄷ 이 자리를 당사자(當事者)를 의미하는 주 괘로 삼고 여섯 효의 상호관계를 살펴서, 오행으로 벌어지는 변역을 관찰한 것입니다.

그 관점은 서로 상대하는 효와 효가 음양이 되어서 짝이 맞아 상생(相生)을 이루면 보기에 좋은 형상이고 양과 양이나 음과 음이 되어 짝을 이루지 못하여서 상극(相剋)을 이루면 흉한 형상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역의 사상(思想)은 오직 상생을 받드는 사상입니다.

ㄱ.창6:16 ㄴ.창1:31 ㄷ.창1:26

사랑은 서로의 관계를 일컫는 어휘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ㄱ 증언하였듯이 하느님의 선한 형상은 양위께서 서로 상생하시는 임입니다.

하느님은 유일하신 아버지와 유일하신 아들이시어서 서로 상대하는 일양(一陽)과 일음(一陰)이어서 복수이시나 그같이 나뉘어 계시는 우수(偶數)의 임들이 하느님의 온전한 형상이 아닙니다.

처음이 나중이신 자 안에, 나중이 처음이신 자 안에 거하시어서 그 양의가 하나이신 ㄱ 임이 하느님이시오. 그 양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성서의 골자입니다.

첫째 날은 아버지 품 안에 아드님이 계시어서 아버지만이 나타나시고 일곱째 날은 아드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어서 아들만이 하느님의 형상을 나타내셨으니 이를 알기 쉽게 서로 상대적인 청색과 홍색이 아니면 검은색과 흰색으로 표시하여서 음양을 그린 것이고 그 음양이 서로 결합하여서 하나를 이룬 것을 표현한 것이 태극입니다.

양과 음이 상하로 결합한 그림도 있고 좌우로 결합한 그림도 있으나 어차피 뜻을 형용한 그림이어서, 한글을 상하로 쓰나 좌우로 쓰나 그의 뜻은 변함이 없듯 같은 그림입니다.

하느님의 일곱 날이 중앙의 전반과 후반이 결합하여 있는데 전반의 위아래가 후반에는 아래위로 뒤집혀서 상대를 이루었기 이쪽의 시작이 저쪽의 끝이고 저쪽의 시작은 이쪽의 끝이 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양과 음의 양의가 있는데 한쪽은 다른 한쪽에 뒤집혀서 결합하여 양 안에 음이 있고 음 안에 양이 있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형상이 공간을 초월하여 아무리 가도 끝없이 무궁하여서 ㄷ 동방에서는 이를 태극이라고 불렀고 무극이라고도 불린 것이며 그 하나가 바로 만유의 주재(主宰)이어서 송의 강소절은 이를 황극(皇極)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ㄱ.요1서4:8, 16 ㄴ.요10:30 ㄷ.신4:39

처음의 첫째 날과 끝의 일곱째 날은 서로 마주한 양과 음이고 그 사이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섯 차례 빛이 있으셔서 하느님의 일곱 영을 동방에서 음양오행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천지 만물은 이 음양오행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이 음양오행의 주권에 의하여 천상천하에 만사가 벌어집니다 ㄱ.

유일하신 아버지와 그 독생자의 모양을 따라, 하느님께서 한 남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 몸을 취하시어 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유일하신 천부께서 하느님이시고 그보다 작으신 그의 독생자 또한 하느님이시어서 두 큰 광명이요, 하늘의 광명을 두 큰 광명이라고 일컬으시고 이를 다시 구별하셨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상징하여 나타내도록 그 두 광명 중 하나는 크게, 다른 하나는 작게 지으셔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과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하느님은 빛이시오. 낮에 햇볕이 있으면 밤에는 달빛이 있어서 그 모양이 하느님의 형상과 같습니다. 양(陽)과 음(陰)은 빛과 어둠이 아니라 다 빛입니다. 양과 음은 광명이 하늘에서 땅에 비추어서 이루어지는 햇볕과 햇볕보다 덜 밝은 그들의 형상을 빌려서 지어진 문자입니다. 양이 음을 품고 있는 첫째 날과 음이 양을 품고 있는 일곱째 날이 있고 가운데 땅과 땅을 하늘에서 비추는 빛이 있어서 하늘 아래 생물이 활동하는 것이어서 일월과 화수목금토(火水木金土) 오행은 상천하지에 주이신 일곱 영의 모형입니다. 하느님이 계셔서 천지가 있고 세월이 있는 것이요, 그 주의 모형을 땅에 비취게 하셔서 땅에서 일어날 일의 증조를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어서 이에 인생은 하늘을 우러러 천문을 살폈습니다.

ㄱ.마10:29 ㄴ.창1:27 ㄷ.마11:25 ㄹ.행 17:24 ㅁ.요14:28 ㅂ.요1:18 ㅅ.요1서5:20 ㅇ.요1서1:15 ㅈ.창1:14

인생이 천상에 계신 주의 뜻에 순종하든, 거스르든 그 응보가 반드시 미치고야 마는 것이어서 세상에 변역(變易)이 일어납니다. 해가 양이면 달은 음이어서 해와 달을 하나로 연합한 문자가 역(易) 자입니다. 일(一) 양과 일(一) 음이 하나인 태극의 모양을 해와 달의 형상을 빌려서 지어진 문자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볼 수 없으나 궁창의 일월성신은 볼 수 있어서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을 살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일어날 일의 증조를 살피도록 일월성신의 모양이 창조되었고 동방의 학문은 이 천문으로부터 비롯하였기, 동방 박사들이 천문을 보고 하느님의 계시를 알았고 그 먼 길을 찾아와 하느님께서 보내신 임금께 진상할 예물을 올려서 배알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 하느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주입니다. 하느님은 처음이요 끝이시니 이는 한없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보좌가 하늘이고 하느님의 발 등상이 땅이라고 하셨듯이 하느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 한정되어 계시는 임이 아니라, 반대로 하늘과 땅이 하느님께 종속된 천지의 주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성(聖)과 속(俗)을 안팎으로 나누는 성막(聖幕)에 가는 배, 청색, 자색, 홍색 순서로 그룹을 수놓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의 지성소에 있는 그룹은 양 날개로 지성소를 덮는 그룹이었으나 오랜 후 에스겔이 본 그룹은 율법에 있는 순서와는 반대 방향으로 그룹의 첫 면은 빨로 위무를 상징한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고 각각 네 날개를 가진 그룹이었는데 어린양의 계시에는 그룹들의 차례가 또 바뀌어서 첫째 생물이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같은데 각각 여섯 날개가 있습니다.

ㄱ.창1:14 ㄴ.마2:11 ㄷ.막12:29 ㄹ.사44:6, 48:12 ㅁ.사66:1 ㅂ.마5:34~35 ㅅ.출26:1 ㅇ.겔10:14 ㅈ.계4:7

이렇게 그룹들의 날개 수가 둘, 넷, 여섯으로 삼역(三易)하며 그룹들의 순서가 바뀌는 것은 전에 계셨고 이제 계시며 장차 오실 하느님에 따라 천지 만물에 대한 운명의 판도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쓴 하느님의 종들을 예언자라고 일컫고 또 가까워져 온 천국의 증언을 예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약 성서는 이 세상의 운명서입니다.

보좌의 전후좌우와 가운데가 오행이어서 중심 주위에 사방을 이루며 도는 바퀴가 율법에서는 금목수화의 순서로 나열되었으나, 에스겔의 계시에는 금목수화가 반대 방향으로 뒤집혀서 수목금화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바퀴 안에 생물의 신이 있고 각기 독자적 사방을 가졌으나 요한이 본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서 황극과 연합하여 있는 네 생물입니다.

무역이 풍성하여서 영화를 누리던 두로의 왕 같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생물이 아니라 사방에서 네 생물이 보좌에 계신 하느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생물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증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 하셨습니다.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과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이 서로 주관하는 자리를 양위하여서 일자가 이루어지고 춘하추동의 연한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 사시를 오행으로 순서 하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순환하여 이를 오행의 상생이라 하고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을 오행의 상극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성막에 있는 그룹들과 에스겔이 본 생물들이 각기 전후와 좌우로 서로 맞상대가 되도록 올바르게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요한이 본 생물들은 전후좌우가 정위(正位)를 얻었고, 율법에는 오행이 처음에서 끝으로 상극(相剋)하며 도는 순서로 사방의 네 그룹이 배치되었고

ㄱ. 계10:11 ㄴ. 계22:7 ㄷ. 겔10:14 ㄹ. 계4:6~7 ㅁ. 겔28:12~16 ㅂ. 창1:14

에스겔의 생물은 율법과는 반대 방향의 순서이어서 끝에서 처음으로 역행(逆行) 하면 그 역시 오행이 율법과 같이 상극으로 도는 생물이거나 어린양의 계시에서는 다시 처음에서 끝으로 순행하는 생물이 되었고 오행의 배열이 상생(相生)으로 도는 배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상생을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상극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으나 하느님께서 장차 오셔서 당신의 빛을 이 땅에 친히 비추시어야 비로소 상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개벽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생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은 영혼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땅에서 사는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근본이 되어 이루어진 인류가 어린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상생과 상극이 싸우는 구궁(九宮)의 운을 맞으나 결국 장차 오실 어린양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세상이 바로 가까워져 온 천국입니다.

ㄱ. 요9:4-5, 계22:5 ㄴ. 계21:3~7 ㄷ. 창9:16, 17:7, 13, 19 출31:16 ㄹ. 마10:7

하느님은 영(신)이신데 그 영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어서 신에 밝을 명(明) 자를 붙여서 동방에서 신명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요.

하늘에 계시는 천부께서 신명이시고 하느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아래 땅에 보내심을 입으시어 땅에 거하는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이 신명이시니 하느님께서서는 하늘에만 한정되어 계신 신이 아니요. 상천 하지의 천지신명 이십니다.

성전의 순금 등대가 열매를 맺는 살구나무의 형상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인생에 이르시는(至) 하느님의 지기(至氣)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이시니, 곧 하느님의 살리시는 진액이어서 살구나무의 형상입니다.

동방에서 동편을 향하여 있는 동도(東桃)를 신령하게 여겨서 그것을 먹고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동방삭(東方朔)의 전설과 같이, 영생하도록 살리시는 기운을 한량없이 흘러내는 생수가 하느님의 일곱 영이요.

길이 동방에 있어서 그 길로 들어서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생명 나무입니다. 천자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때가 이르러 하느님의 인(印) 치시는 역사(役事)가 동방 해 돋는 데서 시작됩니다.

살리시는 영이어서 생기(生氣)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때, 구속함을 입고 살아나는 생명은 하느님께서 흠으로 지으신 인생이 아닙니다.

첫째 날로부터 순수(順數)하여서 여섯째 날까지 지어져 생겨난 생명이 아니요. 제 칠일의 일곱 영을 받아 거듭나는 생명입니다.

하느님의 생기를 받고 거듭나는 생명은 여섯째 날까지를 말씀하신 창세기 일장의 생명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 기록한 자가 되어서 열리는 생명이어서 일곱째 날이 으뜸이 되어 있는 창세기 이장에 기록된 새 생명입니다.

ㄱ. 요4:24 ㄴ. 요1서1:5 ㄷ. 요14:16, 15:26, 16:7 계5:6 ㄹ. 수2:11 ㅁ. 출25:33-34 ㅂ. 요6:63 고후3:6 ㅅ. 요4:14, 7:38 ㅇ. 요6:39, 40, 44, 54 고전6:14 ㅈ. 창2:8 ㅊ. 창3:24 ㅋ. 계2:7, 22:19 ㅌ. 엡1:13, 4:30 ㅍ. 계7:2 ㅎ. 창2:7 ㅊ. 요6:40, 44 ㅊ. 창1:26, 2:7, 3:19 ㅊ. 요3:3

인생도 음혈과 양기가 교류하여서 만물을 감지하며 사나 그 생명은 여섯째 날에 짐승과 같이 흠으로 지어져서 아래에서 난 생명이고, 성령은 뒤집혀서 사람보다도 나중이신 일곱째 날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임하시는 하느님의 기록하신 영입니다.

여섯째 날에 인생에 주신 복이 아니라, 팔이 칠에서 연유하듯 일곱째에서 연유하는 하느님의 복이어서 어린양의 팔복(八福)입니다.

인자(人子)로부터 거꾸로 사람에게 임하는 운세여서 사람이 출생하여 칠 일이 지나고 제 팔 일에, 하느님한테서 임하시는 하느님의 영을 받는 자, 곧 하느님의 여자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생기를 몸에 받아 다시 태어나는 생명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듯 하느님께서 심으시어 열리는 천국의 생명입니다.

하느님한테서 오신 거룩한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리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선천과는 뒤집혀서, 인생보다도 나중이신 생명의 빛이 으뜸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여서 그 생명의 세대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하늘에서 오신 독생하신 하느님의 신부(新婦)가 되어 그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어서 음양입니다. 하느님만이 주이신데, 인생인 내가 주체가 되면 하느님과 내가 양과 양이 되어 둘로 나뉘어 성과 속으로 벌어지고 내가 어린양의 종이 되면 그 주와 결합하여 제 삼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음양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몸은 부활하신 어린양과 같은 몸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이나 ㅎ 임의로 바람같이 되지 않는 영도 되는 ㅈ 초자연의 생명이 출산하는 것이어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난 선천이 ㅉ 아니라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라고 ㅊ 계시하셨습니다.

ㄱ.창2:19 ㄴ.요8:23 ㄷ.마12:8 ㄹ.창1:27~28 ㅁ.마5:1~12 ㅂ.사54:5~6, 62:4~5 렘31:22 호2:7 ㅅ.창17:12 ㅇ.창2:8 ㅈ.요12:24 ㅊ.마25:10 계21:9 ㅋ.요15:4, 17:20~26 ㅌ.요3:3 ㅍ.요1서3:2 ㅎ.눅24:39 ㅊ.요3:6~8 ㅊ.창2:21~23 ㅊ.계12:5

여섯째 날 지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던 ㄱ 세대가 지나고 그 세대에 핍박과 죽임을 당한 어린양과 그와 같이 박해를 받은 어린양의 종들이 만국을 심판하고 ㄴ 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ㄷ 주권자로 ㄹ 뒤집히는 후천의 개벽입니다.

선과 후의 뒤바뀜을 시종일관 거듭거듭 증언하신 말씀이 성서입니다.

구속(救贖)이라는 뜻도 속전(贖錢)을 치르고 하느님의 낙원에 살았던 생명으로 되돌리시는 반본(返本)이요, 구속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ㅁ. 선천이 있으니 후천을 입증하시는 말씀이 성서이고 그 후천이 곧 가까이 이른 ㅂ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바로 되어 천지가 되면 그 형상을 비(否)라 하여서 막히고 마는 것을 의미하고 뒤집혀서 지천이면 그 괘명을 태(泰)라고 하여서 통(通)하여서 열리는 것을 의미한 역리(易理)와 같습니다.

끝의 일곱째 날이 으뜸이 되어 있는 창세기의 제 이장은 제 일장의 창조와 뒤집힌 순서로 사람을 먼저 말씀하시고 ㅅ 그 사람에게 생기를 주시어 혼이 산 혼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생명을 위하여 하느님의 낙원을 심으셨는데, 그 낙원을 잃은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제 칠일을 자손대대로 지키라고 ㅇ 명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세상에서 옛새가 지나면 맞이하는 제 칠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거룩하신 실상의 표징이요 ㅈ. 그 안식일의 임자이신 인자(人子)를 ㅊ 증언하시는 글이 성서입니다 ㅋ.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뜻)이 있으신 것이고 그 목적이 여섯째 날에 지어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의 목적이 하느님의 종자입니다 ㅌ. 사람이 농사 짓듯 하느님께서 심어 얻으시는 하느님의 씨 농사입니다.

ㄱ.창1:26~28 ㄴ.마19:28 ㄷ.계2:26 ㄹ.계5:10, 12:5 ㅁ.눅21:28 롬8:23 엡4:30 계14:3 ㅂ.마10:7 ㅅ.창2:4~7 ㅇ.출20:8~11, 31:13~16 ㅈ.출31:13 ㅊ.사9:6 단7:13 마12:8 ㅋ.요5:39 ㅌ.요4:36, 12:24, 15:1~2 약1:18 계14:4

하느님께서 여섯째 날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도 일곱째 날이 이르기를 기다리셨습니다 ㄱ.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하느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ㄴ.

인생에 임하는 여섯째의 밤이 ㄷ 지나고 일곱째의 거룩하신 생명의 빛이 이 땅에 계시어야 ㄹ 당신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ㅁ.

유일하신 하느님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드님이 당신의 후손이시나 그 아들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아들들 ㅂ 또한 당신의 후손이요 열매입니다.

천부께서 당신의 독생자와 같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하여 만물을 지으신 것이고 그 후세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서 ㅅ 당신께서 이루신 당신의 기업을 상속하시는 ㅇ 날이 안식일입니다.

인생은 하느님께서 생산하신 하느님의 후손이 아니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어서 하느님과 같이 영생하지 못하나 ㅈ 하느님의 아들도 되시고 사람의 아들도 되시는 후손께서 탄생하신 것이요, 곧 하느님의 신을 받으신 여자에게서 ㅊ 탄생하신 하느님의 어린양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어린양도 여자의 후손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양을 따라 승리하는 자도 여자의 후손입니다ㄷ.

성령을 받아 인자를 생산하신 모친이 여자이고ㄹ 그와 같이 성령을 받는 남녀노소 모든 이가 하느님의 여자입니다ㅍ. 때가 차면 그중에서 하느님의 첫 열매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ㅎ 태어나는 것이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느님은 곧 빛이시오ㅊ.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똑같은 빛의 아들들이ㅊ 태어나서 하느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어서, 여섯째 날에 받은 복으로 ㄱ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사람과 그 이름의 수를 ㄱ 이기고 벗어난ㄴ 차세대가ㅅ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ㄱ.창1:31~2:1 ㄴ.요5:17 ㄷ.요9:4 ㄹ.요9:5 ㅁ.마6:10 계21:6~7 ㅂ.마13:38, 17:26 눅16:8 롬8:19 ㅅ.창31:13
ㅇ.시2:8 마5:5, 25:34 눅20:14 약2:5 계21:7 ㅈ.창3:22 ㅊ.눅1:35 ㅋ.창3:15 요19:27 ㅌ.요2:4, 19:26 ㅍ.사54:1~8
계12:1~2 ㅎ.계12:5 ㅊ.요일1:5 계22:5 ㅊ.눅16:8 ㅋ.창 ㅋ.계13:17~18 ㄴ.계15:2 ㅍ.눅 16:8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ㄱ 아들들이 아니라 선하고 정절이 있는 ㄴ 빛의 아들들이ㄷ 출현하여 밤낮이 뒤집히듯 세상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밤입니다ㄷ. 창조의 여섯째 어둠에서 다시는 밤이 없는ㅁ 일곱째 날의 광명으로 뒤집힐 숙명의 때여서 옛 뱀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나 여자의 후손은 거꾸로 그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ㅂ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은 생명을 해치고 죽이는 위무(威武)의 세력입니다. 죄가 있어야 죄가 문에 엎드리는ㅅ 죄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그 형벌과 사망의 세력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받은 자들을 핍박하나 그 세력은 도리어 무저갱(無底坑)에 갇히고 인자께서 당신의 많은 열매와 더불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ㅇ 것입니다.

하느님을 떠나 인간이 주권자가 되라는ㅈ 주의가 사탄의 미혹이면 인자께서는 인생이 자기를 부인하고ㅉ 하느님께 예속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어서 서로 상반된 노선입니다.

회개하고 선하여진 아담의 형상과는ㅋ 달리, 하느님을 떠나 도성을 세워서ㅌ 전쟁의 무력으로ㅍ 땅을 정복하고ㅎ 이 세상을 지배하던ㅊ 쪽이 멸망하고 마는 종말은 그 반대로 하느님께 예속하여서 자기를 희생한 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ㅊ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자가 나라를 얻음도 ㄱ 뒤집힘이고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하여 의인을 죽인 자가 멸망함도 뒤집힘입니다.

다 같은 어린양의 제자였건만 미혹의 영을 받은 ㄱ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삶을 위하여 발꿈치를 들어ㄴ 어린양을 팔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어린양을 위하여 두 팔을 벌려서ㅅ 자신의 삶을 버렸습니다ㅊ.

ㄱ.마12:39 ㄴ.계14:1~4 ㄷ.눅16:8 ㄹ.요9:4~5 ㅁ.계21:25, 22:5 ㅂ.창3:15 ㅅ.창4:7 ㅇ.단2:44 ㅈ.창3:5 ㅊ.마 16:24 막8:34 ㅋ.창5:3 ㅌ.창4:17 ㅍ.창4:23 마26:52, 55 요18:36 계13:10 ㅎ.창1:28 ㅊ.단2:36~43 마4:8~9 눅 4:6 계17:10 ㅊ.마5:5 ㅋ.단7:18 ㅋ.요13:2 ㄴ.요13:18 ㅍ.요21:18 ㅊ.베후1:14

시몬 베드로는 결국 그가 사모하는 어린양과 서로 희생하여서 하나가 되는 상생(相生)을 이루어, 때가 되면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자신의 영광을 바라지 아니하시고ㄱ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한 길을 걸으시어서 털끝만 치도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ㄴ. 시몬도 그와 같이 어린양의 교훈을 따라 천부와 그의 어린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행함으로써 ㄱ 주와 음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ㄷ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인생도 그 어린양을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길
이오^ㄱ.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길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길은 이처럼 상반된 길입니다.

서로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 형상이 바로 주 하느님의 선한 형상입니
다^ㄴ.

인생의 주는 서로 위하여 희생하시는 천부와 천자이십니다.

그 양위께서 인생에 명하신 계명이 당신의 선하신 형상대로 인생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천명이오.
사랑의 행위가 인생이 행하여야 할 오직 뿐인 길입니다.

그 오직 뿐인 한 길을 한자로 도(道)라고 합니다. 창세 전부터 계시는 그 도가 곧 하느님이시니 이 저를,
저는 이를 위하는 사랑에 의하여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ㄷ. 하느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시어서 서로 안에 계시는 유일하신 천부와 유일하신 천
자이십니다.

일 양이 있고 일 음이 있어서 서로 하시는 그 도에 의하여 천지 만물 이 있는 것이오. 인생이 그 도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벗어나면 그의 혼은 바깥 어둠에 갇혀서 이를 가는 귀신이 될 뿐입니다.

ㄱ. 요5:41, 8:50, 12:28 ㄴ. 요15:10 ㄷ. 마10:39 요13:37, 15:13 요일3:16 ㄹ. 요17:22 ㅁ. 요일3:16 ㅂ. 출33:19
ㅅ. 요1:1 ㅇ. 요일4:8, 16 ㅈ. 창2:23 요15:4, 17:21 요일2:27~28 계11:2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하느님의 신이 인생 안에 계시고 인생 또한 어린양의 계명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어린양과 인생이 하나가 되는 것이오^ㄱ.

어린양은 인생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인생도 어린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으로써 어린양과 상생이 되어 영생
에 이르고 어린양의 계명을 벗어나 자신이 앞서는 주체가 되면 어린양과 상극이 되어 영원한 사망에 이릅니다.

목숨은 영혼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입니다^ㄴ. 목숨보다 중한 것이 무엇이오^ㄷ.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지키려
는 자는 그 목숨을 잃게 되고 어린양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새 목숨을 얻습니다^ㄹ.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에 오신 거룩한 임이시건만 버림을 받으셔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이 세상에 세워지
는 성전의 머릿돌이십니다^ㅁ.

세상에 속한 쪽에게는 부딪히어 넘어지게 하는^ㅂ 심판의 돌이 되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쪽에게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는 자들의 머리가 되시어서 건축하는 자가 다림 줄을 치듯 그 성전의 머릿돌로 말미암아
복과 화가 안팎으로 나뉩니다^ㅅ.

상생과 상극이 다 같이 뒤집히는 것이나 방향이 반대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느님과 격리되느냐, 아니
면 어린양에 종속된 몸이 되어 결국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느냐입니다.

서로 적이 되어 나뉘면 상극이면 반대로 서로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상생인데, 이를 상합이라고 아니하
고 상생(相生)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결합하여 생명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ㅇ.

별이 있어서 그들이 있듯 하느님께서 계시니 그의 독생자를 믿어야 하는 것이오^ㅈ. 하느님의 어린양은 이 세
상에 오셔서 어둠을 비추신^ㅈ 중보(申保)의^ㅈ 빛입니다.

ㄱ. 요17:11, 21~23 ㄴ. 창9:5 ㄷ. 마6:25, 16:26 막8:36 ㄹ. 마10:39, 16:25 ㅁ. 마21:42 행4:11 ㅂ. 창3:15 단2:34,
45 사8:14 마21:44 벰전2:8 ㅅ. 계11:2 ㅇ. 요16:21 계12:5 ㅈ. 요14:1 ㅊ. 요1:4, 8:12, 9:5, 12:46 ㅋ. 딤편2:5 히9:15

모세도 하느님의 선한 형상을 보지 못 하였으니^ㄱ 그는 백성의 목전에 하느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여
서^ㄴ 징계를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라고 하시면, 거기서 비록 하느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여도, 반석은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며 인생을 살게 하는 거룩하신 자의 상징이건만 모세는 그 반석을 경홀히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아니고는 인생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뱀은 진리가 중심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주 하느님의 생기를 받아 태어난 생명이 뱀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뱀의 종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어둠으로 마감하나 구원은 그 반대입니다.

어린양의 교훈을 따르는 몸이 되어서 두 뿔에 쪽 발 가진 양(羊)의 종자가 되어서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얻습니다.

뱀은 양(陽)의 상징이요 순종하는 양(羊)은 음(陰)의 상징입니다.

전자가 인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라고 하는 바, 인생에 주체의식을 심었지만, 후자는 하느님만이 주이시니 하느님의 말씀만을 따르시는 어린양입니다.

어린양의 행실로써 인생에 하느님의 선하신 형상을 적나라하게 보이셔서 인생을 가르치신바, 하느님께 대한 종속의 의식을 심어주신 순종의 교훈입니다.

상대를 위하여 그 상대가 받을 저주를 내 이쪽이 대신 뒤집어쓰는 행실보다 더 큰 선행이 있으리까.

죄는 인생이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건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인생의 죄를 속죄(贖罪)하는 제물로 삼으셔서 산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ㄱ. 출33:20 ㄴ. 민20:12, 27:14 ㄷ. 출17:6 ㄹ. 고전10:4 ㅁ. 요8:37 ㅂ. 마23:33 ㅅ. 요8:44 ㅆ. 창3:4~5 ㅇ. 요5:19, 30, 10:10, 12:49~50 ㅈ. 사53:7 ㅊ. 요1:29, 36 ㅋ. 출3:19 ㅋ. 요14:9 ㅌ. 히7:27, 9:12, 26 베전3:18 계5:9

일곱째 날이 있고서야 사람이 하느님의 생기를 받았듯이 어린양의 희생으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신께서 인생 속에 임하게 되었고 그 신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출산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속됨을 얻습니다.

인생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마감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뒤집히는 부활이고 변화입니다.

기수는 양(陽)이고 우수는 음(陰)인데, 하나인 양과 둘인 음이 결합하면 셋이라는 양(陽)이 됩니다.

아담에게서 분리되어 그의 배필이 태어난 것과 같이 하나에서 둘로 쪼개져서 양에서 음이 생기는 방향과 반대로 인간이 어린양의 신부가 되어 그의 안에 거하면 그 양과 음이 하나로 결합하여 하느님의 아들로 부활합니다.

인생이 어린양과 하나가 되는 것은 천부께서 당신의 어린양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아들 또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셔서 하나이신 것과 같은 하나입니다. 몸은 서로 다르시어서 두 분이시나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重生)입니다.

초생의 몸은 병들어 죽는 육신이나 중생한 몸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입니다.

죄를 짓기 전의 아담이 산 혼이었듯이 부활한 몸이어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만민을 심판하는 산 자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어린양의 속량(贖良)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로 복원되는 것이 구속(救贖)입니다. 뱀과 여자는 상반하는 노선이요, 가인은 하느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의 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ㄱ. 창2:1~7 ㄴ. 요16:7 ㄷ. 요5:24 요일3:14 ㄹ. 창2:21~23 ㅁ. 마11:27 ㅂ. 요16:15 ㅅ. 요17:10 ㅆ. 요10:30 ㅇ. 요15:9~10, 17:21~22 ㅈ. 창3:19 ㅊ. 요6:63 ㅋ. 요3:6~8 ㅋ. 창3:15 계17:14 ㅌ. 마19:28 고전6:2 ㅍ. 마22:32 ㅎ. 창3:15 ㅈ. 창4:15~17

인간이 인간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구하게 하는 사상이 미혹이요, 어린양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네들의 형상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기^ㄴ 한 남자가 결혼하면 그의 배필이 된 한 여자를 정실(正室)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음일양(一陰一陽)을 정음정양(正陰正陽)이라고도 합니다.
공자가 태고부터 전하여 오는 음양의 역(易)을 공부하여 통에 하고서 이르기를 일음일양을 도라 이른다(一陰一陽之謂道)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도(道)가 곧 하느님이오^ㄹ.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 첫머리로 증언한 내용입니다.
창세 전, 곧 천지가 있기 전에^ㄹ 하느님의 신이 계시어서 빛을 생산하셨으니^ㅁ 유일하신 하느님과 그의 독생자이시오, 그 독생자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ㅂ 선언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일 양 안에 일 음이 있고 일 음 안에 일 양이 있어서 그 양의가 하나이신 바, 유일하신 아버지와 유일하신 아드님께서 서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상대를 사랑하심으로^ㅇ 하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기 따로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요, 하느님께서 독생자를 보신 대로 먼저 한 남자를 지으시고 나서 그 몸을 취하시어 한 여자를 지으셨으니^ㅅ 하나가 둘이 되었는데, 하느님께서 남자에게 이르시기를 거꾸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ㅇ.
한 분뿐이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몸을 받아 태어나신 독생자, 두 분께서^ㅋ 서로 상대를 사랑하여 헌신하심으로^ㅇ 연합하여 하나이시오^ㅈ. 그 연합한 하나가 천지를 창조하신^ㅊ 주, 여호와이십니다.

ㄴ.마6:13 ㄴ.마6:33 ㄴ.창2:24 마19:4 ㄹ.요1:1 ㅁ.요17:5 ㅂ.창1:2-3 ㅅ.요14:11 ㅇ.요15:9-10, 17:23-29 ㅈ.창2:21-22 ㅊ.창2:24 ㅋ.창1:26-27, 3:22 ㅌ.요10:30, 17:21 ㅍ.창1:1

천지는 이같이 음양의 조화(造化)로 이루어졌습니다.
천지 만물은 첫째 날에 빛을 생산하신 하느님의 신과 그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생명의 조화입니다. 천지도, 일월도, 만물 중 어느 하나라도 주장하신^ㄴ 하느님과 그 주장을 받들어서 일하신^ㄴ 하느님의 양위께서^ㄴ 서로 하심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ㄹ.
아담이 배필을 일컬어 자신에게서 취하여진 자기의 몸이라고 하였듯^ㅁ, 먼저인 양은 주체이고 나중인 음은 그 주체에 종속된 객체입니다.

아담이 사망의 정죄를 받고서, 자신의 후신이라고 이름하였던 여자를 『모든 산 자의 어미』 라는 이름으로^ㅂ 고쳐 불렀는데, 예수께서 그 어휘를 사용하여 『하느님은 산 자의 하느님이시라』 라고^ㅂ 하셨습니다.
삼 대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하신 율법의 말미에 하느님은 산 자의 하느님이라는 말씀을 붙이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신의 점지로 태어난^ㅇ 셋째 아들, 셋과 같이 조선에서 신의 점지를 일컬어 석 삼 자를 써서 삼신할머니의 점지라고 일컫습니다. 산 자의 하느님이신 그 산 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ㅅ.
하느님께서 아담을 일컬어 흙이라고 칭하셨습니다^ㅇ. 히브리 음으로 아담은 흙같이 붉다는 뜻도 되는 어휘입니다. 사람이고 또 남자라는 뜻의 아담은 흙에서 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은 자의^ㅋ 조상이요,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모태로 하여 산 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서 당신을 따르는 양들 안에 계시고 양들 또한 그 같이 천자의 안에 거하는^ㅌ 어린양의 신부가 되어 영생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삼대가 하나를 이루시는 자가 하느님이십니다^ㅍ.

ㄱ.창1:6, 9, 11, 14~15, 20, 22, 24, 26 ㄴ.창1:1:7, 16~18, 21, 25, 27 ㄷ.창1:26, 3:22 ㄹ.요1:3 고전8:6 ㅁ.창2:23
 ㅂ.창3:20 ㅅ.마22:32 눅20:38 ㅇ.창4:26 ㅈ.창3:15 ㅊ.창3:19 ㅋ.마8:22 ㅅ.요15:7, 17:21 ㅆ.계12:5, 12:13

아담이 여자를 일컬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하였듯이 ㄱ 하느님의 신께서 독생자를 보셨으니 독생자는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의 종속된 몸이시오. 그 독생자께서 일곱째의 몸으로 나시니 천부께서 주장하시는 주체를 버리시고 독생자 안에 안식하셨기 천부와 천자께서 서로 안이시어서 하나이십니다. 천부와 천자께서 하나이심과 같이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당신의 피로 인생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느님의 신을 보내시어서 인생 안에 계시고 인생도 그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계명 안에 거하면 어린양과 인생이 서로 안이 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이어서 성부와 성자와 그 성자의 열매가 다 하나를 이룹니다. ㄴ. 마귀는 사단이라고도 일컫는 옛 뱀이오. 그 옛 뱀은 인간과 그 후손의 원수가 아니라 여자와 그 후손의 원수입니다. ㄷ.

인류라고 일컫는 아담의 후손을 육신으로 생산하는 유부녀를 이르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을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여자를 ㅁ 칭하신 것이어서 그 후손만이 하느님의 후손이고 그 후손만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ㅂ 마귀의 원수입니다.

여자는 독생하신 하느님을 ㅅ 주로 모신 어린양의 여자이고 그 여자가 생산할 후손의 아버지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ㅇ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인생의 참 소망입니다. ㅈ.

뱀의 후손들이 ㅊ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오셔서 대속(代贖)의 피를 흘리셨기, 그의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ㅋ 그를 따르는 양들이 되어서 하느님의 신을 받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은 옛 뱀으로부터 오는 권세입니다. ㅅ. 만국을 미혹하는 ㅆ 용이 옛 뱀이어서 땅에 거하는 만인이 속임수에 넘어가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ㄱ.창2:23 ㄴ.요17:23 ㄷ.계20:2 ㄹ.창3:15 ㅁ.사54:5 ㅂ.창3:15 ㅅ.사9:6 ㅆ.요1:18 ㅇ.마23:9 ㅈ.요12:36 ㅊ.롬8:19
 ㅋ.마12:34, 23:33 ㅅ.요8:44 ㅋ.요15:16 ㅅ.계13:2, 7 ㅆ.계20:3

이 세상의 지도자는 ㄱ 그리스도와 노선이 상반하는 대적이어서, 가까이 다가오는 나라를 증언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여 ㄴ 처형하고 그 증언을 따르는 무리를 핍박할 것을 ㄷ 예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땅에 거하는 만국의 백성이 있을 뿐이거늘 하느님의 백성이 ㄹ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선언하고 전파한 것이 나라입니다. 곧 하느님의 나라, 천국이오.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죽어서 영혼이 가는 천국을 천자께서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은 옛 유태교의 바리새인도 믿었고 ㅁ 유태교인 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가 사후 영혼이 거처하는 저승을 믿고 있습니다.

어린양께서 전파하신 천국은 이 땅에 거처하는 사람에게 임하옵는 나라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뜻이 땅에도 이루어질 때가 ㅂ 가까웠기 천국이 가까웠다고 ㅅ 반포하신 ㅇ 나라입니다.

동쪽 하늘에 나타나신 ㅈ 상제께서 동방 해 돋는 곳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印)을 치셔서 ㅊ 그 인 맞는 자의 수가 차게 되고 ㅋ 그들과 함께 시온산에 당도하시어 ㅅ 만국을 다스리시는 ㅆ 왕국입니다.

정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질 ㅎ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자기 나라의 지도자를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선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임명하신 임금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인간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라는 것이 옛 뱀의 교훈이요,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야 눈이 밝아 하느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미혹이어서, 그 인본주의 탓에 인간에게 복과 화를 내리시는 하느님에 대한 관념이 말살되고 인간의 능력만을 구가하는 인류의 성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미혹의 결과는 인류가 이 세상 임금 한 사람의 지배에 묶여 누구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감시와 통제를 받습니다.

ㄱ. 요14:30 ㄴ. 계11:7 ㄷ. 요16:33 ㄹ. 계18:4 ㅁ. 마22:23 행23:7~8 ㅂ. 마6:10 ㅅ. 마10:7 ㄴ. 눅10:9, 11 ㅇ. 눅8:1, 22:30 ㅈ. 마24:27 ㅊ. 계7:2~4 ㅋ. 계6:11, 7:4 ㅌ. 계14:1 ㅍ. 마25:31 계11:15, 19:15 ㅎ. 사40:10 단2:44 ㅊ. 창3:5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실 그 하느님의 성을 선포하신 임금을 따르는 자들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가인이 자신을 위하여 아우를 들에서 쳤고 나 자기 집안의 보장을 위하여 대를 이을 자의 이름을 붙인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후대로 그 성이 계승하며 발전하여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뭉쳐서 시날 평지에 거대한 성을 쌓았고 하느님께서는 그 결탁을 하느님께 대한 도전으로 여기시어서 흠으셨습니다.

이기심이 악(惡)입니다. 전쟁을 일으켜 많은 인명을 죽이는 살인마는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애국을 호소합니다.

내가 집 안에서 나를 위하여 그 집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 집안이 단결하여 내 집안을 위하여 이웃과 알력이 일어나며 내 집과 옆집이 단결하면 그 주위를 제압하는 위세가 창출되어 그 동리에 화평(和平)이 깨어집니다. 정당이 결성되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다시 국가와 국가가 연맹한 강대국이 생겨서 약소국들을 지배하고 다시 연맹체와 연맹체가 경쟁을 벌이다가 한쪽이 모략을 베풀어 순식간에 세계가 단일 지배체제로 묶이는 것이 성서의 예언입니다.

인간과 인간이나 국가와 국가 사이가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탈하면 처벌하여 죽이는 권세가 지어져서 각인을 살살이 감시하는 눈 아래로 묶이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 권세가 인류가 지어놓은 신이 되어서 결국은 만국이 재림하시는 임금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자의 이름 대신 인류가 인류의 이름을 찬양하여 인류의 성을 지상에 이루면 인간의 죄악을 징벌하시는 천주는 그 인류의 적이 될 뿐입니다.

ㄱ. 단2:44~45, 7:13~14, 8:25 ㄴ. 창4:8 ㄷ. 창4:17 ㄹ. 창11:1~9 ㅁ. 단11:25 ㅂ. 단2:31~35 계13:14~15 ㅅ. 계16:14 ㅇ. 마6:9

인류, 곧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고 남자라는 의미도 되는 아담은 흠이어서 흠이 붉은 색이듯 붉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이름입니다. 적신(赤身)으로 태어난 인간은 짐승과 같이 아래 흠에서 나 흠으로 돌아가는 존재여서 아담은 『산 자』의 조상이 아닙니다.

산 자의 조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죽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죽은 자나 그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 사람이나 하느님의 보시기에는 모두 『죽은 자』 일뿐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담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 이라고 하여서 자신에 속한 몸이라고 정의하였던 여자를 거꾸로 『모든 산 자의 어머니』 라고 고쳐 부르기 전까지 그는 죄를 짓고 수치를 가리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나중 몸이라고 불렀던 스 여자를 고쳐 부른 것은 자신이 먼저라고 하는 주체성을 버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라고 스 명하신 뜻을 따르는 몸이 되었기 때문이요. 비로소 하느님께서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아담의 내외는 한 몸이 되어서 하느님의 나중이 된 것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같이 하느님의 나중 몸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었기 자기의 뜻을 따라 하느님께서 제사를 열납하시지 아니하였다고 안색이 변화하였습니다ㄱ.

아담은 양위가 하나이신ㄷ 하느님의 형상이 되었으나 가인은 대속의 옷으로 별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못 하였기ㄴ 성서는 죽은 아벨 대신 태어난 셋만이 아담의 형상과 같은 씨라고 하셨습니다ㄹ.

아담은 남자의 위치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나중 몸이 되었으나 가인은 처음 몸이라는 남자의 계통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남자가 야망을 뺀듯 남자로부터 새끼 쳐서 뺀어난ㄱ 남자의 종자입니다.

ㄱ.창3:19 ㄴ.창25:25 겔16:22 ㄷ.마22:32 ㄹ.눅3:38 ㅁ.마8:22 ㅂ.창2:23 ㅅ. 창3:20 ㅇ.창3:10 계3:17~18 ㅈ.창2:23 ㅊ.창2:24 ㅋ.창4:5 ㅌ.요10:30 ㅍ.계3:18 ㅎ.창5:3 ㅊ.창4:1(직역)

가인은 약육강식 하는 들짐승같이 들에서 아우를 쳐 죽였고 하느님을 떠나 그 아들 이름을 한 성을 쌓았으니ㄱ 사람을 죽이는 무력으로 세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인간 나라의 시초입니다.

세상은 두 나라로 나뉩니다. 이 세상에 속한ㄷ 인간의 나라와 하느님께 속한ㄴ 하느님의 나라는 서로 상반된 나라입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마귀는 없습니다ㄹ. 하느님이 주이시거늘 인간인 나 자신이 주체가 되면 내가 바로 마귀입니다ㅁ. 붉은 용의 미혹으로 붉은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ㅂ 또 그 짐승을 타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있는데 붉은 옷을 입은 음녀(淫女)입니다ㅅ.

세상을 장악한 세력이 붉은 색입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붉은 짐승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정치권력이고, 붉은 옷을 입은 여자는 새끼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으로ㅇ 계시되어서 정치권력의 반려자 노릇을 하며 부요와 권세를 누리는 종교권력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각 종교의 종교인들이 그 종교의 경전을 배우고 수행하기 보다는 교인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쥐고 인도함으로써ㄱ 위선이 범람하여 진실한 믿음을 볼 수 없는ㄷ 세상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ㅋ 이르신 말씀은 이 위선적인 음녀의 성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붉은 권력에 속한 백성과 하느님께서 입히신 흰옷을 입는 백성으로 나뉩니다ㄷ. 백의의 무리에게는ㅍ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양을 따르는 일꾼들이 있어서, 고난의 어둠을 통과하여ㅎ 회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주와 함께 이 땅의 만국을 심판한다고ㅊ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서의 줄거리입니다ㅋ.

ㄱ.창4:16 ㄴ.요1서4:3 ㄷ.요15:19, 18:36 ㄹ.요8:44 ㅁ.마16:23 ㅂ.계13:7 ㅅ. 계17:3~18 ㅇ.계13:11~12 ㅈ.마23:15 ㄱ.눅6:39 ㄴ.요19:15 계13:11~12 ㅊ.눅18:8 ㅋ.계18:1~5 ㅌ.창25:23 ㅍ.계7:14 ㅎ.창32:24 ㅊ.마19:28 계19:14 ㅋ.계22:10

흰옷을 입은 무리는 환란 중에ㄱ 다시 예언하는 증언을 듣고 나오는 회중이고 세마포를 입는 자는 그들의 증언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과 말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ㄴ 증언하는 어린양의 사자(使者)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나라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때가 되면 당신께서 다시 당래(當來)하실ㄷ 것을 기약하고 승천하신 왕이시오. 재림하사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출세(出世)하심으로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ㄹ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국을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 종교의 교주가 되려고 오셨던 목자가 아니라, 구세주(救世主)이시니 ㄱ 재앙으로 인류가 사는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사는 세상이 구원을 받아 다시는 이 땅에 죄악과 형벌이 없는 ㄴ 새 세상이 개벽되는 것입니다.

경전은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글입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경전의 어떤 글이라도 진실만을 가르쳐 주시는 글이거늘 주의 보내심을 입지도 않은 자가 다른 설을 들고 나온 ㄴ 것이 지금의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고수하던 교회는 사라진지 오래 된 말세에 예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다시 증언하게 하시니, 이제는 각 종교와 종파를 벗어나 하느님의 백성이 될 자가 나오는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어서 한 목자의 울타리로 모으시는 때입니다. 사람의 학설로 변질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는 어린양의 한 울타리입니다.

어린양의 울타리에 있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들이 다 한 울타리로 모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유대교인과 이슬람교도에도 재앙에서 살아남을 자들은 이 울타리로 들어올 것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ㄴ 어린양이시기 때문입니다.

ㄱ.계7:14 ㄴ.계20:4 ㄷ.마10:23, 24:44 행1:11 ㄹ.계11:15 ㅁ.요3:17 ㅂ.계 21:3~4, 22:3~5 ㅅ.요1서1:19 ㅇ.요 10:16 ㅈ.요1:41, 4:25

인간의 죄악으로 저주를 받았던 ㄱ 땅이 정토 되는 구세(救世)입니다. 불신자(佛信者) 중에서도 이 울타리로 들어올 것은 그들이 바라던 서방정토 당래불(當來佛)이 바로 구세주이시고, 유학 또한 가히 경외할 후생(後生)이 장차 오시는 인자(人子)와 그 인자와 함께하는 거듭난 하느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모일 울타리에는 지금 종교와 같은 계급이 없습니다. 구세주의 교훈을 그대로 따라 서로 종이 되어 ㄴ 받드는 ㄷ 자들만이 있을 뿐이요, 보내심을 입어서 ㄹ 성령의 권능을 행사하며 천국을 증언하는 사자(使者)들은 ㅁ 있을지언정 구세주 외에는 목자가 없습니다 ㅂ.

지금의 종교와 그 교파는 한 목자께서 ㄴ 문이 되신 ㄴ 유일한 울타리일 수 없습니다. 메시아만이 목자가 되어 그의 양들이 출입하며 풀을 얻는 울타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선생이나 아비나 목자의 칭호를 지니고 ㄴ 자기에게로 와 자기의 설교를 들으라는 종파의 문을 단 울타리입니다.

메시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말세를 만나는 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ㄴ.

성전에서 나오시며 그 성전이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이르셨는데 제자들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여쭙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조가 있느냐고 여쭙었는데 그 대답으로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르시며 시작하신 ㄴ 교훈입니다 ㄱ.

하느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지은 성전이 불원간 무너지듯, 세상 끝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이르신 것입니다.

옛 유대가 멸망할 때와 같이, 실제로 자신이 존경 받고 ㄴ 부유한 ㄴ 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의 교훈을 ㄴ 가지고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는 거짓 사역자들과 ㄴ 거짓 그리스도들의 ㄴ 미혹을 이르셨습니다.

ㄱ.창3:17, 4:11 ㄴ.요13:14 ㄷ.마23:11 눅22:26 ㄹ.마10:16 눅19:32 ㅁ.계1:20 ㅂ.마2:6, 25:32 요10:14 ㅅ.요 10:16 ㅇ.요10:9 ㅈ.마23:10 ㅊ.마24:3 ㅋ.마24:1~4 ㅌ.눅16:15 ㅍ.눅16:14 ㅎ.마15:3, 9 ㅊ.마7:15, 24:11 ㅊ.마 24:24

메시아께서 유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고 ㄱ 하신 하느님의 약속을 받았던 민족의 나라가 멸망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던 백성이 메시아를 영접하였던 ㄴ 것 같은 일이 말세에도 재현 되는 ㄴ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의 이름을 표방한 종교가 있으나 그의 교훈대로 사람을 인도하고 실행하는 교회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ㄴ.

저마다 종파에 소속되어서 사람이 지은 설(說)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왜곡하고 서로 자기네 이름의 울타리로 사람을 이끌어서 현금하게 하는 직업 종교인들이 ㄱ 자기네의 명성과 권위를 쌓고 있어서, 메시아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어 다시 예언하게 ㄴ 하시는 것이오.

그 종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린양께서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을 ㄷ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는 말세에나 인봉(印封)을 떼시는 계시여서 ㄹ 어린양의 재림에 앞서 온 세상에 다시 하는 예언이오. 전무후무한 재앙이 미치는 때 당신의 백성이 죽지 않고 ㄷ 새 세상을 ㄷ 맞게 하시기 위하여 어린양께서 내리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발하기 시작하는 때 ㄱ, 곧 오실 임금을 예비케 하는 복음이 먼저 울려 퍼지는 ㄷ 것입니다.

일요일이면 모여서 사람이 지은 관례로 ㄹ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어린양께서 주신 교훈을 지켜서 밤낮 하느님을 섬기는 ㄷ 무리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어서 환난 중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목숨을 보전하게 하시는바,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다시 전파되어 펼쳐지는 장막이어서 이때 천하가 세상 나라의 백성과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뉩니다 ㄱ.

ㄱ. 창22:18 사89:4, 39, 110:4 요12:34 ㄴ. 눅13:34-35 롬11:7-21 ㄷ. 마7:22-27, 20:16, 22:1-14, 45 눅18:8 ㄹ. 눅18:18 ㅁ. 요10:12-13 ㅂ. 계10:11 ㅅ. 계1:3 ㅇ. 단12:9 계10:1-4, 22:10 ㅈ. 마24:21-22 요11:25 ㅊ. 마19:28 ㅋ. 마24:7-8 ㄷ. 마25:6 계10:11 ㅍ. 요16:2 ㅎ. 계7:15 ㅊ. 마13:30 계11:1-2

노아의 식구가 심판에 살아남아 새로이 인종이 퍼졌듯이, 누구든지 이 어린양의 장막에 거하여야 ㄱ 만인이 죽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아 땅에서 종족을 다시 퍼뜨리는 ㄴ 새 세상을 맞습니다.

어린양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이르러 비로소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어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점지하신 자를 위하여 인류가 멸종하는 환난을 감하시어서 구출 받는 육신의 구원이기 ㄷ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인생의 주이십니다. 신들의 세계에서 신들을 다스리는 단수의 신은 상호 때부터 인생을 미혹하는 옛 뱀과 그 후손이 ㄹ 만인을 압제하려고 지어낸 신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 인간이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높이 세웠던 ㄱ 바벨의 성과 대가 그 권세의 성이고 신 중 가장 높은 주신을 태양 신이라고 하여서 그의 아들이라고 칭하였던 바로가 세운 피라미드가 그 유적이며 유대 왕들이 섬겼던 바알이 그 신이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ㄴ 왕과 결탁하여 집권층을 이루고 하느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바벨, 바로, 바알과 같이 바벨론 제왕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려고 제국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세운 것이 꼭대기 신의 우상이오 ㄱ.

로마의 황제들이 태양 신의 아들로 자처하여 누구도 거역하지 못할 권위를 세웠으며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어받아 그 태양 신의 아들에게로 백성을 인도하고 그 주 외에는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고 고백하여 ㄹ 성서의 예언대로 오셨던 임금을 로마의 군병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그들의 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세상과 다른, 신의 나라에나 존재하는 주신(主神)으로 여겼습니다.

ㄱ. 창9:27 ㄴ. 사54:1-10 마24:37-39 ㄷ. 사65:8 마24:22 ㄹ. 요8:44 ㅁ. 창11:4 ㅂ. 왕상18:22 ㅅ. 단3:5 ㅇ. 요19:15

그들이 섬겼던 신은 성서 속의 하느님이 아닙니다^ㄱ. 성서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느님은 상천 하지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풍속에 물들어 조상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을 섬겼습니다^ㄴ.

천지를 창조하신 성서의 하느님은 신들의 세계에서나 있는 맨 꼭대기 홀수의 신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일컬으시어서 『우리』라고 지칭하신^ㄴ 복수의 임금들이십니다.

신 중 하나가 신들의 세계를 정복하고 우두머리가 된 옛 그리스나 로마의 신과 성서의 하느님은 개념 자체가 다른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이 아닌 상천의 주는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가짜 신입니다.

성서 속의 하느님은 홀수의 신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ㄴ. 하느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가 없다는 뜻이요. 사람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은 물론이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신들이라도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는 상천 하지의 주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 만드신 천지입니다.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천상뿐 아니라 천하에 어떤 사소한 현상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ㄴ.

상천 하지의 주,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어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실제의 오직 뿐인 임금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 바로를 애굽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ㄴ 하느님의 대적 노릇을 하게 하시고 그와 같이 바벨론 왕에게 권세를 주시어서^ㄴ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셔서 당신의 모략을 이루시는 실제의 참 주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ㄴ 유일하게^ㄴ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ㄴ 주께서^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ㄴ 가르치셨습니다.

ㄱ. 신31:16, 32:15~27 ㄴ. 신4:39 여수2:11 ㄴ. 신31:16 ㄴ. 창1:1, 26, 3:22 ㄴ. 사 48:12 계1:17, 21:6 ㄴ. 마10:29 요 19:11 ㄴ. 출7:3 ㄴ. 단5:18~19 ㄴ. 막12:29 ㄴ. 마2:6, 23:10 요10:16 ㄴ. 시110:1 마22:44, 26:64 ㄴ. 마5:35 ㄴ. 요 17:3

하느님께서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어서^ㄴ 그를 믿는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땅에서 사는 인생을 지으시고는 하늘나라에 따로 계신 자가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스스로 계시는 자이신데^ㄴ 인간이 하느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ㄴ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ㄴ 인간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은 하느님을 떠난 인생이 다시 하느님과 연합하여서 하느님과 함께 거하는^ㄴ 세상을 복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천국이 종교인들로 말미암아 끔찍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린양께서 증언하신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요, 그 반대로 땅에 사는 인생에 임하옵는^ㄴ 나라입니다.

인생은 이미 하느님의 낙원을 떠난 몸이어서 하느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ㄴ. 어린양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 하느님과 함께 거하고^ㄴ 사람으로부터 거듭난 생명이어야 하느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고^ㄴ 영생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아담에게서 온 것이요^ㄴ. 성서의 옛 뱀은 하느님의 낙원에서 하느님의 형상대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지 않고 배필 위에 군림하던 아담을 비유하신^ㄴ 것이어서 붉은 용으로^ㄴ 계시하셨습니다.

사람이 독사고 독사의 아들입니다^ㄱ. 남녀를 불문하고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서 인간 위에 군림하려는 인간의 야욕이 곧 마귀이고 그 마귀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에게서 오신 하느님의 어린양은 아래에서 난 사람이 아니오^ㅎ.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함께 계시다가^ㄱ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에게서 탄생하신 사람의 아들이시니^ㄱ, 하느님이시자^ㄱ 사람도 되신^ㄱ 전대미문의 후세이십니다.

ㄱ.요3:16, 6:51 ㄴ.출3:14 ㄷ.창3:8 ㄹ.창4:16 ㅁ.계21:3 ㅂ.마6:10 ㅅ.출33:20 ㅇ.요14:2 계21:3~4 ㅈ.창32:30
 ㅊ.롬5:12 ㅋ.겔28:14 ㅌ.계12:3 ㅍ.마23:33 ㅎ.요 8:23 ㅊ.창3:22 요1:1 ㅊ.마10:23 ㅋ.요1:18 ㄴ.딤후2:5

인자(人子)라는 어휘는 선지자의 시대에 하느님께서 사람이나 당신의 종들을 지칭하셨던^ㄱ 어휘를 어린양께서 당신을 가리켜 사용하시어서 창세 전에 계셨던^ㄴ 하느님께서 육신이 되시어^ㄷ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육신으로 다시 오실^ㄷ 것을 이르셨습니다.

말일에 동편 하늘에서부터^ㄱ 나타나실 어린양은^ㄴ 신으로 오시는 자가 아니라 인생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ㄷ 육신으로 오시는 임이시오.

사람이 뽑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임명하신 오직 뿐인 지도자이십니다^ㅇ. 인자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당신의 칭호와 같이 아들이라는 문자를 붙여서 우레 아들이라는^ㅈ 이름을 주셨듯이, 극동에서도 제자백가마다 거룩한 후생(後生)을 염원하여 이름 씨에 아들 자(子)를 붙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울 외(畏)자는 높은 이를 대하는 아래 사람의 말입니다. 공자가 가히 두려운 존재라고 증언한 후생(後生)은 자기의 후학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거듭 태어나는 후천(後天)의 생명을 언급한 것입니다.

『생생지위역(生生之謂易)』 이오.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난 골육이 인생이고 뒤바뀌어 여자에게서 남자가 태어나는 생명이 있어서 생생입니다. 역이라는 문자가 해와 달로 표시한 양과 음으로 이루어진 문자이듯, 이미 태어난 인생이 거듭나는^ㄷ 생명을 일컫는 것입니다.

뒤바뀐 역(易)은 음양의 조화입니다. 건(乾) 양과 곤(坤) 음이 있어 시작되는 괘의 변화는 이미 이루어진 기제와 장차 이루어질 미제로 마감되었듯, 끝에서 시작하는 후천의 개혁을 예시한 것이 주역입니다. 그 후천이 천자께서 증언하신 하느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태어났다 죽는 인간의 운명이 뒤집혀 사망에서 생명으로^ㅋ 거듭나는 것이 땅에서 받는 구속이오^ㅌ. 구속을 입어 거듭나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ㅍ.

ㄱ.시58:1 사51:12 겔2:1, 3 단8:17 ㄴ.요1:1, 8:58, 17:5, 24 ㄷ.요1:14 요일4:2 ㄹ.행1:11 요일2:7 ㅁ.마24:17 ㅂ.요1:18 ㅅ.요20:25 요일1:1 계1:7 ㅇ.마23:10 ㅈ.막3:17 ㅊ.요3:3 ㅋ.요5:24 ㅌ.계14:3 ㅍ.요일1:1~2

구속(救贖)은 예수를 믿는 이들이 바라는 소망이오^ㄱ.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천자께서 다시 오시는 때 땅에서^ㄴ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땅이 입을 벌려^ㄷ 의인의 생명을 받았기 땅에서 그 육신의 생명을 다시 찾으시는^ㄷ 것입니다.

부활은 창세 이래 인간이었던 모든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는 생명과 심판의 부활^ㄱ 이전에 첫째 부활이^ㄴ 있고 그 첫째 부활이 구속입니다.

천자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천지를 폐하려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ㅅ.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멸망하는 마지막 때, 인생을 구하시려고 오시는 구세주이시오^ㅇ. 그 날에^ㅈ 사랑의 계명을 지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부활하고^ㅋ 지상에 살아 있는 성도는 홀연히 변화하여^ㅋ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도성덕립(道成德立)의 도덕군자(道德君子)를 뜻하는 군자가 동방에서 자고로 도를 닦는 이들의 최상의 목표로 지칭되어 왔던 대상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통과하는^ㄷ 것이 도통이고 그 도통을 이루어 흠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는^ㄷ 거룩한 임금이며 아들이 군자입니다. 군자로 탈 바뀌는 변화가 태초에 계신 도(道)께서^ㅎ 인생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 거룩한 만왕이요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고차원의 몸을 입을^ㄷ 인류의 후생이어서 사람이 가히 경외할 대상입니다.

거듭난 자는 마음대로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마음대로 바람 같이 사라지기도 하는^ㄷ 몸이어서 더는 선천의 인생과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양께서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ㄷ 강림하시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려고^ㄷ 오시는 것이어서, 다가오는 후천에는 두 계층이 있습니다. 새 세상이^ㄷ 될 만국의 만왕(萬王)과 백성입니다.

ㄱ.눅21:28 롬8:23 ㄴ.계14:3 ㄷ.창3:24 계22:14 ㄹ.계14:5 ㅁ.마5:29, 22:30 계 20:11~15 ㅂ.계20:5~6 ㅅ.요16:21 ㅇ.요11:33 ㅈ.요6:54 ㅊ.살전4:16 ㅋ.고전15:51 ㄷ.창3:24 계22:14 ㅊ.계14:5 ㅎ.요1:1, 14:6 ㅌ.마10:25 ㄴ.눅22:30 요일3:2 ㅍ.요3:8 ㄷ.마16:28 ㄷ.계2:26, 12:5, 19:15, 21:24 ㄴ.계 22:2

마지막 날에 구속(救贖)을 입는 자가 있고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땅에서 구속을 입어 만왕의 왕과 더불어 땅에서 왕 노릇 할^ㄷ 만왕이 있고 구세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서^ㄷ 만인이 죽는 큰 환난에서 살아남아^ㄷ 땅에서 새롭게 인종을 퍼뜨릴^ㄷ 백성이 있습니다.

어린양의 계시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보여 주시고 그 여자가 아들을 생산하는^ㄷ 계시가 성서의 결말입니다.

남자에게서 취함을 입어 여자가 태어나^ㄷ 인류의 기원을 이룬 것으로 시작된 성서의 말씀이 뒤집혀 여자에게서 남자가 태어남으로써 인생과 언약하신 하느님의 영원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인류를 미혹하는 사탄은^ㅇ 남자의 원수가 아니고, 여자와 원수이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입니다. 사탄이 박해하는 대상이 여자이고 그 핍박 중 여자에게서 어린양과 같은 하느님의 아들들이 생산됩니다.

인생이 사랑의 하느님을 본받지 않고 하느님을 떠나 성을 세우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ㄷ 계층의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나 하나가 둘로 나뉘는 방향이 아니라, 환웅과 웅녀가 혼인하듯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ㄷ 하느님의 아들과 이 땅의 신부가 결합하여^ㄷ, 그 여자에게서 남자가 태어나는 것이요. 여자가 아들을 생산하는 음양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요점입니다.

인생의 젓값을 치르시려고 희생하신 어린양의 신부가 되어서^ㄷ 그의 살과 피를 몸속에 받아들여야^ㅎ 주권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난 자는 아무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이요 만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상속받는 주권자여서 남자입니다.

인간의 성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음양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ㄱ.계14:3, 20:6 ㄴ.계7:9~14 ㄷ.마24:22 ㄹ.창28:14 사6:13, 54:1~3 ㅁ.계 12:1~6 ㅂ.창2:22 ㅅ.마6:10 ㅇ.계20:1~3 ㅈ.창3:14~15 ㅊ.창3:16 ㅋ.마1:18 요6:41~50 ㄷ.마 25:10 요17:21~23 ㅊ.계21:9 ㅎ.요6:51, 55 ㅌ.계17:14

인간과는 달리, 하느님의 거룩하신 신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천자께서 가지신 그 초자연적인 인자(因子)를 우리네 인생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도 그 아들과 같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 영생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난 것은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선천이나, 그 같은 양음(陽陰)이면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부모와 친지들이 웃는 경사 속에 인생이 태어났건만 ㄱ 반대로 자식과 친지들이 우는 흉사 속에 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ㄷ 준 십자가를 지신 하느님의 어린양과 그를 따라 목숨을 바쳤던 성도들이 천하 만국의 임금으로 ㄹ 역전됨으로 이 세상은 새 세상을 맞습니다.

인류가 멸종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말미암아 어둠에 처한 ㄱ 이 세상이 대명천지의 새 세상으로 뒤집히는 개벽이오, 이 개벽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의도이십니다 ㄴ.

하느님께서 창세로써 당신의 일을 다하신 것이 아니오 ㄱ. 하느님께서 창세 전에 생산하신 당신의 유일하신 씨를 세상에 심으셔서 ㄴ 열리는 당신의 무수한 첫 열매가 거룩한 자가 되어 복을 누리는 ㄷ 후세의 나라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도리는 한 길(道)입니다. 공자가 도를 본 것 같이 도가 따로 있어서 그 도를 어린양께서도 보시고 증언하신 것이 아니오. 빛이 빛을 내듯, 당신께서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시어서 ㄱ 당신의 말씀과 ㄴ 행동 하나하나 ㄷ 시종일관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바로 그 한 길입니다.

너도나도 오로지 주인의 음성을 따르는 ㄴ 주의 양(羊)이 되어야 하는 그것이 곧 인생의 도이고 그것이 선(善)입니다.

ㄱ. 요16:21 ㄴ. 요11:33 ㄷ. 마10:24~28 눅12:11, 20:20, 22:53 ㄹ. 마25:34 계2:26 ㅁ. 요1:5, 3:19 ㅂ. 마6:10 ㅅ. 요5:17 ㅇ. 창2:8 요12:24 ㅈ. 창2:3 계20:6 ㅊ. 요 14:6 ㅋ. 요12:49, 16:13 ㅌ. 요5:19 ㅍ. 요10:27

사람은 강팍(剛愎)하고 교만해서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ㄱ.

내 이쪽이 겹혀하지 않고는 내가 상대하여 볼 수 있는 하느님이 본래의 고귀하신 참 하느님이실 수 없으며 내 마음이 가난하지 ㄴ 않고서는 내가 인식하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본래의 주이실 수 없으며 내 이쪽이 작은 자가 아니고는 ㄷ 내가 뵈는 하느님은 본래가 크신 그 하느님이실 수 없고 내 이쪽이 무력함을 실감하지 않고는 ㄹ 전능하신 그 하느님을 찾을 수 없으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ㄴ 내가 있는 한, 그 자리에 본래의 로우신 그 하느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신이 작고 약하여서 하느님을 받드는 자의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ㄴ.

복과 화를 내리시는 천주께서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시어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시어 말씀을 전하셨거늘, 인생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스스로 지고(至高)하여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되려고만 하면 주께서는 이를 가증하게 여기실 뿐입니다 ㄱ.

크고 높은 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욕망이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반대로 작은 자가 되고 ㄴ 낮은 자리에 앉는 자가 되어서 ㄷ 하느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자입니다.

선후가 있으니 처음이 양이고 나중은 음이요 상하가 있으니 위가 양이고 아래는 음이요 대소가 있으니 큰 자가 양이고 작은 자는 음이요 안팎이면 밖이 양이고 안은 음이요 ㄱ 좌우가 있으니 좌가 양이고 우가 음이며 ㅋ 굴신(屈伸)이 있으니 뺏어냄이 양이고 받아들임이 음이며 강유(剛柔)가 있으니 완강함을 양이라 하고 온유함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 하나하나가 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녀가 하느님의 양위 모양을 따라 창조된 것이어서 ㄷ 남자가 양이고 여자는 음이오.

ㄱ. 마18:3~4 눅8:10 ㄴ. 마5:3 ㄷ. 눅9:48 ㄹ. 롬8:3, 26 ㅁ. 마9:13 ㅂ. 마11:25 ㅅ. 눅16:15 ㅇ. 마20:26, 막10:43 ㅈ. 눅14:10 ㅊ. 창48:14 ㅋ. 창2:23 ㅌ. 창1:27

천지도 그 이치로 창조되어 위 하늘이 양이고 아래 땅이 음이며 낮을 주관하는 해가 양이면 밤을 주관하는 달은 음이어서 두 큰 광명이고 불기둥과 물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듯 ㄱ 불과 물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느님의 모양이어서 불은 양이고 물은 음이 됩니다.

하느님과 그의 독생하신 하느님께서 서로 상대 안에 계신 ㄴ 임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서의 여호와 하느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단지 자신의 욕망뿐이면 본능으로 움직이는 들짐승에 불과하나 착할 선(善)은 말 잘 듣는다는 뜻이오 ㄷ.

세상 만인이 저마다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내세우며 살더라도 하느님께서 계신 이상, 그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그의 뜻을 따르는 자가 선한 자요 그 선악을 나누시는 것이 하느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이 말씀(言)을 품은 형상이 믿을 신(信)입니다. 마음에 빈자리가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담기어야 ㄹ 선행할 수 있습니다.

불신과 신은 그 마음이 양과 음이오, 양은 뱀과 같은 한 일(一) 자로 표기하나 음은 일 자가 둘로 쪼개져 중앙이 빈 형상으로 표기해서 양을 담을 수 있는 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ㄹ 이상, 사람은 그의 음이어야 합니다.

공자가 역(易)에서 도를 깨닫고 인을 덕행의 근본으로 삼은 것이 이것이오, 사람 인(人)에 두 이(二)를 붙인 문자가 어질 인(仁)입니다.

둘로 쪼개진 양반(兩班)이 세도가로 와전되었으나 본래는 벼슬과는 상관없이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만 살지 않고 진리를 갈구하여 도를 닦고 예의를 익히며 살았던 부류들을 일컫던 말입니다.

임금이라도 어질어야 백성을 위하여 선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임금의 상대는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데, 임금의 마음이 공허하여서 그 속에 자기가 아닌 백성이 담길 수 있어야 비로소 그는 그 상대를 위하여 자기 쪽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ㄱ. 출13:21 ㄴ. 요14:11 ㄷ. 막10:18 요10:1~5, 14~16 ㄹ. 요5:38, 8:37 ㄹ. 요1:1

하느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주셨듯이 인생도 하느님을 위하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희생이 성서의 교훈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제물이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 염소와 삼 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ㄱ.

년 수도 삼 년이고 크기도 삼 층인데 천지 만물이 지어진 닳새같이 암소 한 마리에 염소와 수양이 서로 짝이 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짝이 되는 짐승 다섯 마리입니다.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술개가 그 사체(死體) 위에 내릴 때는 아브람이 쫓았더라고 ㄴ 하였습니다.

제물을 받으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해가 저서 어둠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ㄷ 성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나르는 날짐승은 쪼개지 아니할지라도 땅에서 기는 짐승은 두 쪽으로 쪼개져서 벌어진 형상이어야, 그 쪼개진 사이로 하느님의 신이 임하시는 것이오, 위의 불과 아래의 재물이 음양으로 부절(符節) 같이 결부되어서 인생의 제사가 하느님께 상달 됩니다.

짐승을 쪼갠듯이 지면을 기는 짐승의 발굽이 쪼개진 쪽 발을 가지고 새김질하여야 사람이 먹고 ㄹ 하느님께서도 제사로 받으시는 것이오,

쪽 발이 아니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의 주검은 부정하여서 그것을 접촉하는 자까지도 부정을 탄다고 ㄹ 하셨습니다.

땅에 거하는 인생의 눈에 타는 햇불과^ㄴ 같으신 하느님의 신께서 땅에 거하는 인생을 처녀 딸이나^ㄱ 처녀라고^ㅇ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자와 받는 자는 양과 음의 관계입니다. 생명을 죽이며 사는 독사의 후손은 마음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ㄷ.

ㄱ.창15:9 ㄴ.창15:10 ㄷ.창15:17 ㄹ.레11:3 신14:6 ㅁ.레11:26 ㅂ.출24:17 신9:3 행2:3 ㅅ.사23:4, 37:22, 47:1, 렘14:17 ㅇ.렘18:13, 31:4, 21 애1:6 ㅈ.요8:37

하느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소나 양과 염소는 발굽만 쪽발이 아니라 위장조차 나뉘어 있는 음(陰)이어서 풀을 담아두고 새김질하듯, 짐승의 새김질과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어서^ㄱ 진리가 마음에 담겨 있는 것과는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그대로 소화하여 배설하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ㄴ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되새겨^ㄷ 따르는 것이 육신을 가진 인생의 도리입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이시려고 애굽에서 구출하신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ㄹ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육신의 모양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頑惡)한 모습을 곧게 뻗어서 뻗뻗한 목으로 표현하시어서 양(陽)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옛 히브리 백성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후로 하느님의 거듭된 징계에도 굽힐 줄 모르고 불순종을 되풀이하셔서, 끝내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장도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목이 곧은 그들과는 달리, 하느님의 언약 궤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이 덮일 만큼 땅바닥에 목을 굽혀 엎드린 신세대가^ㅁ 있어서 그 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환난의 구원은^ㅂ 다시 하는 예언을 듣고^ㄱ 회개하는 자가 얻습니다.

인생이 하느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때문이라고^ㅇ 하셨는데 이사야가 언제까지 이처럼 인생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고 여쭙으셨습니다.

홍수에 인류가 멸절하였어도 노아의 여덟 식구는 살아남았듯, 인류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여 멸절하거니와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고 그 남은 자들이 인종을 새로이 퍼뜨린다고^ㄷ 응답하시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인류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ㄱ.신4:39, 6:6, 11:18 ㄴ.마4:4 ㄷ.여호1:8 ㄹ.출32:9, 33:5 신31:27 ㅁ.여호7:6 ㅂ.마24:22 ㅅ.계1:3, 10:11, 22:10 ㅇ.마13:15 ㅈ.사6:9~13

교만하고 완악한^ㄱ 마음은 하느님의 말씀이 속으로 파고들어 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 반대가 있습니다. 내 쪽이 온유하고 겸허하면 상대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건강하고 곧아서 칼날같이 마음속을 파고들어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ㄴ.

겸손하고 온유한 바탕이라야 하느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ㄷ 것 이어서 그는 그 말씀을 항상 새김질 합니다^ㄹ.

종이 없는 주가 없고 주 없는 종이 없듯, 주와 반려(伴侶)하는^ㅁ 종이 되어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 그 말씀을 좇아 자기의 말을 하고^ㅂ 주의 선하신 행위를 따라 자기도 그 행동을^ㄱ 합니다.

하느님과 인생의 현격한 차원 탓에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없으나^ㅇ, 하느님께서 세상을 어둠에서 구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그의 언행을 인생이 보고 듣게 하시어서 그 아들을 따르는 반려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 아들과 같이 그들 또한 영원한 생명의 빛이^ㄷ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생에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신랑이^ㄱ 계십니다. 천부께는 인생이 독생자의 짝이 되어야 할 몸이어서 처녀 딸이오^ㅋ. 그 낭군을 맞아서 한 몸을 이룰 자는 지혜로운 처녀입니다^ㅌ.

신랑은 하느님의 어린양 한 분입니다. 어린양의 말씀이 계시니 이를 받아들여 따르는 음(陰)이어야 천자와 궁합이 맞아 하나가 됩니다. 자신이라는 주체성을 도려내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ㅍ 어린양의 신부가 ㅎ 되어서야 부활하신 천자와 같은 여자의 후손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산 자의 어머니가 여자입니다 ㅊ. 여자여야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뒤바뀔을 얻어 산 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남자는 그 남성을 제거하는 의미로 남자의 성기에 할례를 ㅊ 받았습시다.

ㄱ. 출14:17 신2:30, 29:19 사9:9, 10:12 ㄴ. 눅18:13 ㄷ. 신6:6, 11:18 사51:7 요8:37 ㄹ. 여호1:8 시1:2, 119:15 ㅁ. 창5:24, 6:9 ㅂ. 마5:37 요8:26, 28 ㅅ. 마7:21 요5:19, 8:29, 14:31 ㅇ. 출33:20 요1:18, 6:46 ㅆ. 단12:3 마13:43 ㅈ. 마9:15 요3:29 계19:7, 21:2, 9 ㅋ. 사37:22, 47:1 렘14:17 ㅊ. 마25:1~2 고후11:2 ㅌ. 행7:51 롬2:29 ㅎ. 마25:1 요3:29 계21:9 ㅊ. 창3:20 ㅊ. 창17:10, 14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어서 산 자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삼위와 같이 온 인류가 멸망하던 홍수에서 노아가 방주를 삼 층으로 세웠듯이 ㄱ, 음양을 나타내는 효(爻)를 남녀의 성기 모양으로 표시했고 그 효를 삼 층으로 세운 것이 괘(卦)입니다.

괘가 물에서 나왔기 하도와 낙서로 불리듯, 홍수에서 살아나온 노아의 여덟 식구가 팔괘가 되어 새 인종이 퍼졌으니, 수백 년씩 살던 인종이 백이십 세가 넘지 못하는 ㄴ 지금 세대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야벳과 함이 삼 층이 되어서 ㄷ 아라랏 산을 중심으로 셈의 후손은 동방으로, 야벳은 서방으로, 함은 남방으로 퍼졌습니다 ㄹ.

노아가 그의 세 아들로 말미암는 인류의 운명을 예언하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ㅁ 하였습니다.

인체가 머리와 상체와 하체로 되어 있듯 노아의 아들 중,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기 ㅂ 함은 셈과 야벳보다는 아래가 되고 야벳은 땅에서 창대하더라도 하느님은 셈의 하느님이시오. 모든 인종이 그 셈의 장막에서 거하는 때가 찬송의 때입니다 ㅇ.

하느님을 셈의 하느님이라고 한 것은 장차 셈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홍수 전같이 만물이 회복되어 ㅅ 인생이 다시 수백 년씩 장수하는 ㅈ 세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현 인류의 세대 ㅋ 마지막 날, 어린양은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ㅌ 왕이시오 ㅍ. 홍수 전처럼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과 함께 거하며 ㅎ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ㅊ 새 세상이 전개되는 것이어서, 홍수 이전과 이후를 걸쳐 살았던 노아가 홍수 후 인류의 운명을 예언하여 셈의 하느님 여호와를 찬송한 것이고 기필코 이루어질 그 어린양의 왕국을 셈의 장막이라고 ㅊ 하였습니다.

ㄱ. 창6:16 ㄴ. 창6:3 ㄷ. 창9:20~27 ㄹ. 창10장 ㅁ. 창9:26 ㅂ. 창9:22 ㅅ. 창9:27 ㅇ. 마23:39 계5:13, 19:5 ㅆ. 행3:21 롬8:21 ㅈ. 사65:20 ㅋ. 마12:39 눅16:8 ㅌ. 계16:12 ㅍ. 계1:5, 19:16 ㅎ. 창6:2 ㅊ. 계21:3 ㅊ. 창9:27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동방에 전하려 하였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ㄱ 전도의 방향을 서방으로 바꾸어 로마에까지 가서 도를 전하였으나, 로마의 권력은 그 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의 신자들과 유대교인을 아울러 핍박하고 베드로가 거처하면서 교회의 본거지로 삼았던 예루살렘을 혹독하게 파괴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자의 표상입니다 ㄴ.

그리스도의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순교 위에 세워졌습니다 ㄷ.

천국을 예수의 말씀대로 증언하면 이 세상 권세로부터 오는 핍박을 피할 수가 없어서 목숨을 버리는 ㄹ 순교에 기반을 두지 않은 교회는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합니다 ㅁ.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비추는 해로 당신을 비유하시고 나서 밤이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ㅂ.

서방에서 해가 지듯,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서방으로 전도된 복음이 그 빛을 잃고서 어둠의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사께서 재림하실 때가 이르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종들이 일어나 영원한 복음을 ◦ 다시 증언함으로써 해를 입은 여자와 스 짐승의 세력이 서로 대적이 ◯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오면, 이 땅의 성도들이 머리를 들고 ◯ 일어납니다. 어린양의 종들이 마른 나무에서 새순(筍)같이 돋아나 ◯ 주를 맞을 예비를 ◯ 합니다.

ㄱ.행16:6 ㄴ.요21:18 ㄷ.마16:18 ㄹ.눅14:26, 17:33 ㅁ.마7:24~25, 눅6:48 ㅂ.요10:12 ㅅ.마5:14 ㅇ.계14:6 ㅈ.계12:1 ㅊ.계11:7 ㅋ.눅21:28 ㅌ.속3:8 ㅍ.마24:32 ㅊ.마24:44 ㄷ.눅12:47

등불을 켜 기름은 성령입니다. 말일이 되어 남녀 종들이 낮은 비로 내리는 ◯ 성령을 받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세상 권세에 맞서서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하느님의 군대가 됩니다.

상제께서 성령을 내리시어 가까이 이른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게 ◯ 하시어서 환난 중 구원을 ◯ 얻을 그 나라의 백성을 모으시는 것이어서 성령의 권능을 ◯ 받지 않고서는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

이사야의 예언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 성구가 있습니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행차 앞에 쓰이는 문구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외치던 침례 요한이 오시는 자를 증언하여서 상제의 길을 예비한 것이 ◯ 오시.

그와 같이 예수의 재림 직전에도 당신의 증인들을 앞서 보내셔서 ◯ 오시는 임금을 맞도록 예비케 하는 ◯ 것이어서 땅과 바다, 온 세상을 향하여 우레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 하던 ◯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는 담대하게 증언하던 때와 같이 말일의 종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베풀며 ◯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담대하게 증언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맞이할 주의 백성을 모으나 ◯ 정말 큰 일은 그 뒤에 오시는 상제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 그렇게 주를 따라 목숨을 버린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살아서 세상과 싸우는 주의 종들까지 ◯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 일입니다.

예수께서 과거에 유대 땅에 오셨다고 하여서 그때로부터 세상이 구원을 받고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 ◯ 아닙니다.

ㄱ.호6:3 ㄴ.골2:23 ㄷ.약5:7 ㄹ.마10:6~8 ㄷ.눅9:1~2 ㄷ.마24:22 ㄹ.행1:8 ㄷ.계11:3 ㅁ.마25:1~13 ㄷ.눅12:35 ㅂ.사40:3 ㅅ.마3:1~3, 11:10 ㅇ.마23:34 ㄷ.눅9:52 ㄷ.계11:3~4 ㅈ.마26:1~12 ㅊ.계7:2, 10:3 ㅋ.마26:34 ㅌ.골2:29 ㄷ.요14:12 ㄷ.계11:6 ㅍ.속8:7 ㅍ.마13:30 ㅎ.살전4:16 ㅈ.요11:26 ㄷ.살전4:17 ㅈ.고전15:52 ㄷ.요9:4~5

예수께서는 빛이시어서 세상을 밝히실 제 칠일의 주인이시나 ◯ 여섯째 날의 어둠을 이기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상에 계시지 않고 다시 오신다는 언약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동방을 유난히 해 돋는 곳이라고 칭하셨습니다 ◯.

예수께서 해 돋는 동쪽 하늘로부터 ◯ 출현하시어서 재림하시는 것이 고 이때가 주의 종들이 인 맞은 때입니다. 부활하고 변화하여서 오시는 주와 한 무리가 되면서 ◯ 서쪽으로 진행합니다 ◯.

상제의 계시에 하느님의 인을 맞은 자들을 일컬어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 이스라엘은 싸워서 얻는 이름입니다 ◯. 이들이 승리하여 상제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 노릇 할 ◯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때가 만왕의 왕께서 진노로 ◯ 만국을 치시고 ◯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 때입니다. 만국을 치심은 만국의 통수권자들이 어린양에 대적하여 연합전선을 ◯ 펼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행이 하느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어서, 하느님께서 이를 증거로 삼으시려고 옛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군대라고 일컬으셨고^ㄱ 전쟁할 대적도 없는 광야에서 스무 살이 넘는 남자들을 지파 별로 계수하여서 언약 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기를 세워서 군대의 모형을 취하게 하시었습니다^ㄴ. 군사 훈련도, 무장도 없어서 명색만이 군대였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요단의 강을 통과하여 그들에게 대항하던 그곳의 모든 도성을 쳐서 남김 없이 진멸(殲滅)하였습니다^ㄷ.

인간의 능력으로 진멸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장수의 명을 따르듯 그들은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였기 순전히 하느님의 능력으로 상대를 진멸하였습니다.

ㄱ. 마12:8 ㄴ. 민2:3, 3:38 여호1:15, 12:1 ㄷ. 사24:15, 41:2, 46:11, 59:19 마24:17 ㄹ. 살전4:17 ㅁ. 계16:12 ㅂ. 계7:4-8 ㅅ. 창32:28 ㅇ. 계5:10 ㅈ. 계6:16 ㅊ. 계19:15 ㅋ. 단2:44~45, 7:18 계11:17 ㅌ. 계16:14 ㅍ. 출7:4, 12:41 ㅎ. 민1:52, 2:2 ㅊ. 수10:30, 11:11~21

하느님께서 그들을 『나의 군대』라고^ㄱ 일컬으셨듯이 하느님께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ㄴ 하셨는데, 성서에 무수히 유업 또는 기업이라고^ㄷ 번역된 히브리어가 기존 세력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함을 뜻합니다.

말세에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은^ㄹ 장차 어린양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왕 노릇 할 하느님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ㅁ. 첫 열매는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는 장자라는 뜻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어도^ㅂ 단지 모형만 하느님의 장자여서^ㅅ 언약의 땅에 들지 못하고 장도에서 모두 죽었던, 그 목이 끈은 백성이었으나, 말세의 이 왕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ㅇ 진짜배기 하느님의 장자입니다.

대량살상 무기로 전쟁하는 세상의 군대와는 달리 그들은 세상에서 무력을 쓸 줄 모르던 온유한 자건만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은^ㅈ 몸이어서 세상에 속한 나라의^ㅊ 군대가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군대라고 일컬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 건너에 있는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몸에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을 들여놓자 흐르던 강물이 끊기고 벌어져서 마른 땅으로 변하였기 발로 강을 통과하여^ㅋ 그들에 대항하던 모든 도성을 진멸하였습니다.

이제는 한 민족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때여서, 옛 히브리 민족이 장차 이루어질 일의 모형이 되어 온 천하에 증거가 된 대로 범세계가 무대가 되어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중동의 유브라테 강이 말라 동방으로부터 상제와 한 무리가 되어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ㅌ 것입니다.

ㄱ. 출7:4 ㄴ. 마5:5 ㄷ. 시78:55, 135:11 사49:8, 57:13 암9:12 마21:38 ㄹ. 계16:12 ㅁ. 계14:4 ㅂ. 출16:35 ㅅ. 출4:22 ㅇ. 요6:49 ㅈ. 요3:5 고전 15:40~44, 49 계14:4 ㅊ. 요15:19, 18:36 ㅋ. 여호3:14~17 ㅌ. 계16:12

하느님께서 당신의 군대라고 이름 하셨던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발로 건너서 그곳 백성이 사는 여리고 성에 이르렀고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해 뜨는 때에 이르러 그 성을 일곱 번 돌면서 제사장들이 일곱 나팔을 길게 불었더니 그 큰 성이 저절로 무너졌습니다^ㄱ.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를 이루어도 그 나라는 무너지고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시오^ㄴ. 계셔야 할 주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고 이 세상 임금이 와서^ㄷ 세상을 장악하나,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주의 언약이 있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ㄹ.

하느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싸워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천부로부터 유업으로 얻는 나라이어서 성도는 운명으로 땅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언약의 땅에 입성하였던 여호수아는 주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하였던 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함락되어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으나 다시 귀환하여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중건(重建)하라는 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대제사장의 이름이 또한 여호수아였기 하느님께서 그와 그의 동료들 가리켜 『이들은 예표(豫表)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훗날 땅에서 나는 돌로 건축한 성전 대신 하느님의 신께서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을 이루실 사대제사장을 거듭 증언하셨습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새순으로 탄생하셨던 바로 그 대제사장이시고 또 그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제사장들입니다.

ㄱ. 여호6:1~21 ㄴ. 요1:4, 9, 9:5 ㄷ. 요14:30 ㄹ. 마19:28 계11:5, 11:15 ㅁ. 단7:22 마5:5 ㅂ. 눅1:31 ㅅ. 학1장 ㅇ. 스후3:8 ㅈ. 요2:19~22 고전5:19~20 ㅊ. 히2:17, 4:14 ㅋ. 사11:1 마1:1 ㅅ. 계1:6, 5:10, 20:6

제 칠일의 빛이신 천사께서 바다 위에 일출하는 해와 같이 동방 해 돋는 곳의 하늘로부터 번쩍이는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출현하시어서 지상에서는 대소동이 벌어집니다.

동북으로부터 삼시간에 전 세계에 확산하는 그 소문에 이 세상의 군 통수권을 가진 자가 변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본 하느님의 군대가 불 말과 불 병거 모양이었듯이 동쪽 하늘에 힘있게 번쩍이시는 상제께서 서쪽으로 진행하시고 이때 상제와 함께하는 그의 사자들 역시 번개 불과 같은 빛이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로 불어나며 하늘을 뒤덮어서 온 세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속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라고 한 대로 이때가 바로 하느님의 종들이 하느님의 인(印)을 맞는 구속(救贖)의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여호와와 밤이라고 하셨던 날, 이집트의 장자가 죽는 때에 하느님의 장자는 양의 피로 속량(贖良)을 받아 살아났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저(인자)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는 천강(天降)입니다. 죽어서 땅의 티끌에 거하는 성도는 부활하고 그때에 살아 있는 성도는 홀연히 변화하여 오시는 주를 영접합니다.

ㄱ. 마12:8 눅6:5 ㄴ. 마24:17 ㄷ. 단11:44 ㄹ. 왕하6:17 ㅁ. 골2:1~11 스후1:14~18 계6:17 ㅂ. 계7:2~3 ㅅ. 눅21:28 롬8:23 엡4:30 계14:3~4 ㅇ. 출12:42 ㅈ. 출12:29 ㅊ. 출4:22 ㅋ. 출13:13 ㅅ. 마24:31 ㅈ. 단12:2 사26:19 겔37:1~10 요6:44 ㅎ. 고전15:51~52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곧 이마에 하느님의 인 맞은 이들이 어린양의 처음 열매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땅에 떨구어 심으신 한 알의 씨알에서 그 씨알과 똑 같은 열매가 무수히 맺힌 것이어서, 이 첫째 부활로 살아난 생명은 부활하신 그들의 주와 똑 같은 모양을 입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얻으신 당신의 처음 아들들이요 처음으로 사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여자의 후손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린양을 통하여 태어난 참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밤에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어둠에서 살아 나온 민족을 하느님께서 장차 당신의 어린양을 통하여 이루실 이스라엘의 모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하느님의 장자요 군대라고 일컬으신 이유입니다.

안실일의 주인께서 복이 있고 거룩하시듯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들의 주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 받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임금이시듯, 이들 또한 이들의 주와 더불어 천 년 간 땅에서 왕 노릇할 자들이어서 이들을 만왕(萬王)이요 만주(萬主)라고 합니다.

이들이 유브라데를 건널 때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이 왕들의 길이 예비되리만큼 거룩한 군대입니다.

유브라데를 지나 어린양과 십사만사천이나 되는 그의 군대가 시온 산에 발을 딛으시는 때, 이 세상 곧 온 천하 각국의 모든 치리자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귀신에 홀려 아파갯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거룩한 군대에 대항하여 전쟁을 결의하여서 이 세상 모든 군대가 이 최후의 전쟁에 참가합니다.

ㄱ. 계20:4-6 ㄴ. 계14:4 ㄷ. 요12:24 ㄹ. 빌3:21 ㅁ. 요1서3:2 ㅂ. 요3:5-8 ㅅ. 창3:15 계12:17 ㅇ. 요6:49-57 계7:4 ㅈ. 출4:22 ㅊ. 출12:41 ㅋ. 마12:8 ㅋ. 창2:3 ㅌ. 계 20:6 ㅍ. 요17:2 ㅎ. 계17:14 ㅊ. 계14:1 ㅊ. 계16:12 ㄱ. 계14:1 ㅋ. 계16:13-16 ㄴ. 계9:13-21, 19:19-21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느님과 그의 어린양과 또 고차원의 몸으로 부활한 어린양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여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천 년 왕국이 이 땅에 전개됩니다. 만국을 다스릴 만주요 만왕이 되는 그 첫째 부활은 어린양을 믿고 살다가 명이 다하여 임종한 모든 이가 참여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는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천국을 증언하여, 그들의 주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한 권력과 외식하는 종교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자(使者)들이 참여하는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큰 환난이 있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이요, 그 환난이 시작될 때, 이 종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밤낮 하느님을 섬기는 모든 자를 그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피신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룻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하시면서 지붕에 있던 자가 집 안의 세간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이처럼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룻의 식구를 피신시키려고 데려갈 때 룻의 처가 뒤로 돌이켰다가 재난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ㄱ. 요15:9, 8:36-37 ㄴ. 단9:26 계17:14 ㄷ. 계20:2-6 ㄹ. 계20:5 ㅁ. 계20:4-5 ㅂ. 눅14:26-33 ㅅ. 마24:9 눅21:7 ㅇ. 계7:13-17 ㅈ. 사26:20 단12:1 마24:20 계12:14 ㅋ. 눅17:32-37 ㅋ. 창19:12-26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며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주여 어디오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듯 성서에 독수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어서 당신의 택하신 곳으로^ㄷ 인도하실 때 비유하신 짐승입니다^ㄴ.

롯의 가족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도망하였듯이 이때는 하느님의 백성을 호위(護衛)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ㄹ 때입니다.

붉은 용이 땅으로 쫓겨나^ㅁ 땅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때, 어린양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상제께서 그 뱀의 낮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어서^ㅂ 하느님께서 예비하신^ㅅ 피난처로 피신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제께서 말씀하신바 『너희의 도망하는 일』입니다^ㅇ.

독수리의 날개를 받는 여자는 어린양의 아내, 곧 말세에 핍박을 당하는^ㅈ 당신의 교회입니다.

주의 계시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ㅋ 하신 말씀이나 마태복음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ㅋ 하신 말씀이나 누가복음에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라고^ㅌ 하신 말씀은 모두 같은 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ㄱ.마24:40~41 ㄴ.눅17:34~35 ㄷ.눅17:37 ㄹ.신31:11 ㅁ.출19:4 신32:11~12 ㅂ.단12:1 ㅅ.계12:9 ㅈ.계12:13~14 ㅊ.계12:6 ㅋ.마24:20 ㅋ.마24:9 ㅌ.요16:33 ㅍ.계12:6 ㅊ.마24:15~18 ㅊ.눅17:31~37

롯의 식구가 타락의 도시에서 도망하여 나올 때 처럼 하느님께서 말세에 『내 백성아, 거기서(붉은 옷을 입은 음녀의 성)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ㄴ 하셨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고 말씀하시어서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듯이 교회가 음녀의 성과 해를 입은^ㄷ 여자의 장막으로 확연히 양분하는 것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이라야 독수리가 모입니다. 주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의 때에 붉은 옷을 입고 핍박하는 교회가 있으나 반드시 핍박을 받는 교회라야 하느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어서 죽지 않고 새 세상을 맞이합니다.

테려감을 당한다는 성서 구절이 있다고 하여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擡舉)의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 더 이상 땅에서 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어서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ㄴ 주를 영접하는 것이 성서의 내용인데, 왜 거꾸로 사람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바울의 서신 중에서 『그(죽은 성도의 부활)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ㄹ 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놓고 기독교에서 주의 지상재림에 앞서 공중재림이 있다는 말을 지어냈고 그 공중재림에 교인은 모두 휴거하여서 하늘에 있는 나라로 가고 지상재림 때에는 지상의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아 멸종한다는 내용을 만들어 가르쳐 왔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때가 아니어서 그리스도의 계시와 선지자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인봉되었기^ㅁ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ㄱ.눅17:30~37 ㄴ.계18:4 ㄷ.계12:1 ㄹ.마16:28 ㅁ.살전4:17 ㅂ.단12:4, 9 계10:4, 7, 22:10

바울의 글은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과정에서, 만민이 볼 수 있도록 동쪽 하늘에 번개와 같은 빛을 드러

내시어 서쪽으로 뻗으시는 ㄱ 때 하늘에서 나팔이 불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ㄴ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공중에서 오시는 주와 합류하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순교 당한 증인들과 주의 재림 시까지 살아남는 증인들이오 ㄷ. 주께서 그들을 당신이 계시는 곳으로 영접하실 처소는 ㄹ 어느 공간적이 장소가 아니라 ㅁ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주의 재림 때, 어린양의 종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어 고차원의 몸으로 변화합니다. 부활하신 주와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ㅂ 몸으로 변화하여 재림하시는 주와 함께 땅에서 ㅅ 만국을 다스릴 만군이 됩니다.

그 구속이 중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여야 지금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위무(威武)의 세력을 멸할 수 있습니다 ㄴ.

천부께서 이 세상을 친히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ㅅ.

여자의 후손, 곧 어린양과 또 그와 함께하는 만군이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ㅈ. 뱀의 머리를 상하게 ㅋ 할 자는 혈육의 후손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ㅌ 뒤바뀌어서 다시 태어나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 ㅍ 더는 남자가 아닌, 어린양의 지혜롭고 절개 있는 여자여야 그 몸에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ㅎ 생산됩니다.

육신의 생명은 사망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무익한 생명입니다 ㅊ. 부모의 육신으로 태어나는 생명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후손이어야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들짐승이라고 하신 옛 뱀, 곧 붉은 용은 열 뿔 가진 붉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 짐승은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신 두 뿔 가진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ㅋ 다스리는 짐승의 나라가 그 종지부를 찍습니다.

ㄱ. 마24:27 ㄴ. 계20:6 ㄷ. 율2:29 계11:13, 12:17 ㄹ. 요14:3 ㅁ. 눅17:21~23 ㅂ. 요3:8 ㅅ. 계5:10 ㄴ. 단2:45 계14:1, 17:14 ㅈ. 요5:22 ㅊ. 마19:28 계19:11 ㅋ. 창3:15 ㅌ. 요5:24 요1서3:14 ㅍ. 롬2:29 ㅎ. 계12:5 ㅊ. 요6:63 ㅋ. 계13:4~15

옛 뱀이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사람을 미혹하였듯이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ㄱ 거짓 선지자들로서 이들을 붉은 옷을 입은 음녀라고도 ㄴ 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인들이 입으로 주 하느님의 이름을 팔면서 실상은 로마 황제의 심복이 되어서 ㄷ 그리스도를 총독에게 넘겼듯이 이 음녀는 대외적으로 어린양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어린양의 증인들을 참소하여서 이 세상 권력에게 넘기는 ㄹ 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장차 하느님께서 세우시는 ㅁ 하느님 나라의 임금 중 임금이시오. 그리스도께서 오리라고 예언하신 이 세상 임금은 ㅂ 말일에 세계열강의 통치자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ㅅ 지도자로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적을 의미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 임금에 대적하여 세계 만국의 통치자들을 모아 전쟁을 결의함으로써 ㄴ 세상 나라를 멸망 속에 빠뜨릴 자입니다 ㅅ.

사탄의 나라입니다 ㅈ. 이 세상에 속한 ㅋ 모든 나라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이 ㅌ 근본이 되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같이 여섯째 날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그 여섯째 날에 땅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섯이 삼 층이어서 육백육십육이라고 하신 짐승의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라고 하시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라고 ㅍ 하셨으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이 삼 층이고 그 짐승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의 의사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ㅎ.

하느님께서 임명하신 주와 그의 만군이 유브라테 강을 건너 이 땅에 서실 때에 사방의 열강이 다 비축하였던 다 전략무기로써 공격을 감행하나 인류 삼 분의 일을 일시에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이오.

ㄱ.마7:15 ㄴ.계17:1~5 ㄷ.요19:15 ㄹ.눅21:2 계13:11~12 ㅁ.단2:44, 7:14, 27 ㅂ.요14:30 ㅅ.계17:12~13 ㅇ.계16:14 ㅈ.살후2:3 ㅊ.마12:26 ㅋ.요15:19, 18:36 ㆁ.계12:9 ㆂ.계13:16~18 ㆃ.요1:10, 12:31 ㆄ.단7:3 ㆅ.계7:1, 9:14~15

율법과 예언서에 하느님의 호칭이 온통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상제와 그를 따르는 만군(萬軍)은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ㄱ 시온 산에서 ㄴ 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ㄷ 새 기원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이 새 세상으로 바뀝니다 ㄹ. 상제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개벽된다는 ㅁ 말씀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몸을 ㅂ 입을 빛의 아들이 주와 함께 땅에 출현하는 자체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의 머리가 상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啓示)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재앙의 글이오. 육백육십육이라고 말씀하신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에게는 ㅅ 영원한 복음입니다 ㅇ.

유브라테에 결박되어서 년, 월, 일, 시에 사람 삼 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된 네 천사의 계시를 ㅈ 요한이 본 후,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하는 계시를 보았는데 하늘에서 명하시기를 그 작은 책을 네가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ㆁ.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그의 종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고 나서야, 인류 삼 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된 세상 나라의 무력이 결박에서 풀려나 최후의 전쟁이 터지는 것이고 그때 인명은 물론 땅과 바다까지 피해를 당함으로써 ㅋ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우레입니다. 요한이 그 우레가 발하는 소리를 받아쓰려 하였었는데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우레가 발하는 소리는 인봉(印封)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ㆂ.

말세에 다시 하는 예언은 말세까지 인봉하였던 ㆃ 내용이 공개되는 소리입니다 ㆄ.

ㄱ.사41:8~16, 43:1~7 ㄴ.시2:1~6 계14:1 ㄷ.마16:28 눅1:33, 22:30 요17:2 계2:26, 20:6 ㄹ.마19:28 ㅁ.계11:15 ㅂ.고전15:44 ㅅ.계15:2 ㅇ.계14:6 ㅈ.계9:15 ㅊ.계10장 ㅋ.계7:2, 10:3 ㆁ.계10:4 ㆂ.단12:4 계10:4 ㆃ.계22:10

예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 두 제자입니다 ㄱ.

베드로는 그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의 어린 양을 맡아 꼴을 먹이며 ㄴ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자기 십자가를 ㄷ 지고 순교한 제자여서 교회가 세워질 때 ㄹ 일하는 종들의 표상이나 요한과 야고보, 두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하는 증인들의 표상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머무르게 하셨다가 ㅁ 그때가 가까울 때 큰 소리로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가진 일꾼들을 두 증인이라고 하시고, 그들을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쫓대』 라고 ㅂ 하셨으니 오시는 천자에 앞서 성령의 기름을 흘려 내며 어둠을 밝히는 교회들입니다 ㅅ.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먼저 온 세상 처처에 전란과 기근과 온역(瘟疫)이 창궐하고 ㅇ 지진과 또 땅의 열 뿔 가진 짐승이 있어서 환난이 시작됩니다 ㅈ.

바로 이 시기에 마른 무화과나무에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듯 성령을 받고 새로 돌아나는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서 곧 닥칠 하느님의 왕국을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전파하며 그 왕국의 백성을 모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ㄱ 탄생하신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시어 이룬 교회이건만 말라붙어서 장구한 세월 동안 빛을 잃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어둠의 세상이 ㄷ 되었으나, 처음 성령이 내려서 생겼던 사도들의 교회와 같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제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ㄹ 교회들이 말세가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ㄱ.막3:17 ㄴ.요21:15 ㄷ.마16:24 요21:18 ㄹ.마16:18 ㅁ.요21:23 ㅂ.계11:4 ㅅ.계1:20 ㅇ.마24:7 눅21:11 계6:1-8 ㅈ.단9:27 ㅊ.마24:32-33 ㅋ.계22:16 ㅌ.요9:4 ㅍ.행4:32

아이를 배어 애써 부르짖는 여자로 계시가 된 해를 입은 여자가 ㄱ 이 교회입니다. 특정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나오는 큰 무리가 ㄷ 바로 이 교회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느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느님을 섬기며』 라고 ㄹ 하셨듯이 온 세상에 큰 환난이 시작되는 때에 예수께서 보내시는 증인들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서 하느님께 매일 제사드리는 ㅁ 무리입니다.

예수의 초림 전에 그를 증언하였던 많은 선지자 중 가장 가까운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였던 침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ㅂ 하셨듯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천국을 증언하는 많은 일군 중 주의 재림 직전에 천국과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만큼 큰 사명은 없어서 ㅅ 옛 선지자조차 주 앞에서 기름을 흘려내며 불을 밝히는 교회를 예언하였습니다 ㄹ.

엘리아가 삼 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듯이 ㅈ 증인들이 성령의 권세를 받아 예언하는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은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예언대로 비가 오지 않고 여러 재앙이 일어나서 ㅋ 하느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심을 증명하시나 그 기간이 다하면 처형을 받습니다 ㅋ.

어린양께서 하느님께 버림을 받아 ㅌ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처형을 받고 숨을 거두셨듯이 하느님께서 잠시 성도들을 버리신다는 ㅍ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이것이오 ㅎ. 하느님께서 야곱을 치셨으나 야곱은 그 밤중에 환도 뼈가 상한 고통을 견디면서도 하느님을 놓지 아니하여 새 이름을 받았듯이 ㅊ 이스라엘이 되기 전 통과하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ㅊ.

ㄱ.계12:1-2 ㄴ.마18:20 ㄷ.계6:9 ㄹ.계6:14-15 ㅁ.단8:11-13, 11:31 ㅂ.마11:11 ㅅ.마20:16 ㅇ.속4:1-14 ㅈ.왕상17:1 약5:17 ㅊ.요엘2:29-30 요16:8 계11:6 ㅋ.단7:21, 25 마24:9 계11:7 ㅌ.마27:46 ㅍ.사54:7 ㅎ.계3:10, 13:10 ㅊ.창 32:24-32 ㅊ.사26:17, 66:8 미4:10 마24:9 롬8:17 계1:9

쫓대는 교회고 별은 교회의 사자를 상징합니다 ㄱ.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인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땅에 던지더라고 ㄴ 하셨습니다.

상제의 계시에,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부르짖더라 라고 ㄷ 하신 고통 속의 여자가 득남하였다고 하신 ㄹ 계시는 무저갱(無底坑)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선지자를 죽이더라고 하신 ㅁ 앞 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던 ㅂ 교회가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왕 노릇 할 ㅅ 순교자들을 배출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짐승의 손에 붙인바 되어 ㄹ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오 ㅈ. 밤낮 섬기던 ㅋ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ㅋ 하면서 다니엘은 예언을 마쳤습니다.

성서 속에 천이백육십 일이나^ㄷ 마흔두 달이나^ㄹ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ㅎ 말씀들은 누구라도 날자 수를 달 수나 햇수로 바꾸어서 제멋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신 기간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ㄴ 천이백육십 일 동안은 누구든 그 가증한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때여서^ㄴ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仰慕) 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 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ㄱ.계1:20 ㄴ.단8:12 계12:4 ㄷ.계12:2 ㄹ.계12:5 ㅁ.계11:7 ㅂ.고후1:6 뵤전 4:13 계10:10 ㅅ.계6:11, 20:4~5
ㅇ.단7:25 ㅈ.단11:33, 12:7 ㅊ.계7:15 ㅋ.단 12:11~12 ㅌ.계12:6 ㅍ.계11:2, 13:5 ㅎ.단7:25, 12:7 ㅊ.단12:11
ㅊ.계12:17, 13:15~18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도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居民)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ㄱ 하였고 예수께서는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ㄴ.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세상 임금이 대두하여서 한 이레, 곧 일곱 때의 언약을 굳게 세우는데 그 일곱 때 중 절반의 때를 넘기면 더는 큰 환난을 피할 기회가 없습니다^ㄷ.

바벨론 왕이 그의 나라를 상징하는 신상을 세우고 삼십 일 동안 그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진다는 금령을 공포하였듯이^ㄴ 다니엘의 계시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이라고 하였고^ㄹ 어린양의 계시에서는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인 붉은 용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고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천이백육십 일을 양육 받는다고 하셨으니^ㅁ, 도망하는 기간은 극히 잠깐입니다^ㅂ.

예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ㄷ 하셨는데, 롯의 처가 멸망할 성에서 도망할 때 그 도시의 삶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재앙을 받았습니^ㄷ다. 롯이 소돔 성을 탈출하듯 하느님의 나라 백성은 각종 범죄와 음란이 횡행하는 타락의 성에서 나와야 합니다^ㄹ.

도망하여서 일천이백육십 일이니 그 이전에 온 세상에 큰 소리로 다시 전하는 증언을 따라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어 회개하고 하느님을 밤낮 섬기는 무리가 되어야 하느님의 보우를 받습니다.

ㄱ.사26:16~21 ㄴ.마24:15~16 ㄷ.단9:27 ㄹ.단6:7 ㅁ.단12:11 ㅂ.계12:6, 14 ㅅ.마24:17~18 ㅇ.계18:4 ㅈ.눅 17:32 ㅊ.창19:23~26 ㅋ.딤후3:1~5 계18:4

지상의 부모를 ^ㄱ 부르는 곳이 아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이신 천상의 원군을 찾아 그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와 여자가^ㄴ 교회입니다.

히브리 음으로 여호와라고 하신 하느님의 이름은 복수이신 하느님의 이름이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다 증언하시고 나서 비로소 나타내신 이름이시니^ㄷ 여호와는 하늘에 계신 그 양위의 이름입니다.

하느님의 양위로 말미암아 천지가 생겼으니 천지의 부모입니다.

하늘의 보좌는 하느님 양위의 보좌입니다^ㄹ. 송아지가 어미를 찾듯 하늘 보좌에 계신 천상의 원군 곧 여호와를 찾는 무리가 있어서 조선의 비기에 우성(牛聲)이 나는 곳을 피난처라고 하였습니다.

천주를 모시고 매일 제사를 올려서 그로부터 임하시는^ㄹ 지기(至氣)를 간절히 구하는 회중(會衆)입니다.

또 다른 비기에 주청림(走靑林)이라는 글이 있듯이 주 앞에 선 두 감람 나무가^ㄴ 말세에 살 길을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어린양으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는 어린양의 배필은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하는 여자입니다^ㄱ.

도망하는 때가 있어서, 이때 아이를 배었거나 아이를 이미 낳아 젖 먹이는 여자는 화가 있습니다^ㄹ. 때가 되었는데도 핍박을 당하는 해산의 고통이 없어서 구로하며 부르짖지 않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도망하는 때가 겨울이면 아니 되고 안식일이면 아니 되는^ㄷ 것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때가 되어 새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ㄷ 푸르려야 할 나무가 겨울이면 여전히 말라 있기 때문이오.

도망하는 때가 안식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말세의 교회는 배움을 입고 우는^ㄷ 교회입니다. 자기네는 이미 거듭난 천국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며 안식을 누리는 교회는 메시아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ㄱ.마23:9 ㄴ.사54:5 렘31:31~34 호2:14~20 계21:9 ㄷ.창2:4 ㄹ.마22:44, 26:64 계3:21 ㅁ.막1:8 요14:13, 15:26, 20:22 ㄴ.계11:4 ㄷ.사26:17 계12:2 ㅅ.마24:19 막13:17 ㅈ.마24:20 ㅊ.마24:32 막13:28 ㅋ.겔9:4 눅23:28

일곱 때 중 전반의 세 때 반에 회개하고 밤낮 하느님을 섬겨서 오시는 주를 예비하는^ㄱ 교회가 박해에 못 이겨 피신하는 것입니다.

옛 히브리 백성은 광야에서 사십 년을 양육 받았으나 것처럼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땅으로 쫓긴 사탄의 낮을 피하여 숨어서 양육을 받는 기간은 일곱 때 중 후반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불과합니다^ㄴ.

하느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짐승의 통치에서 벗어나 도망하지만, 붉은 용이 이 교회들을 없애려고 해도 땅이 돕습니다^ㄷ.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땅의 거민이 무수히 죽는 때이나 그 어떤 재앙도 이들에 미치지 못하여 인명을 보존합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이 지나고 더 기다리는 한 달 보름의^ㄷ 기간이 현세의 마지막 날입니다^ㅁ.

드디어 하늘에서 나팔이 불리는^ㄴ 어린양의 재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전하여 주신 복음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ㄱ. 창세로부터 말씀하셨던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날입니다^ㄹ.

이 나팔이 울리는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이들이 일어나고 또 때가 가까워서 개봉한 어린양과 다니엘의 계시를 증언하던 자 중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ㄷ 홀연히 변화하는 때입니다^ㄷ.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듯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있고 그 일곱 수는 사상과 삼극으로 구별됩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네 병마가 각기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ㄷ 것이어서 다 같은 기간에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계시하신 것이나, 다섯째 인은 하느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느님께 큰 소리로 아뢰기를 『땅에

ㄱ.마24:44 계11:3~6 ㄴ.사26:20 계12:14 ㄷ.계12:16 ㄹ.단12:11~12 ㅁ.사2:2 미4:1 ㄴ.고전15:52 살전4:16 ㄷ.요6:39~40, 44, 54, 11:24, 12:48 계10:7 ㅅ.사2:12, 13:6, 9, 34:8 겔30:3 올1:15, 2:1, 11, 31, 3:14 습1:14 슝14:7 말4:5 ㅈ.마24:45 계12:17 ㅊ.고전15:51 ㅋ.계6:1~8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기들의 죄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ㄱ 말씀하시어서 옛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이 말세에 성도들의 환난이^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여섯 수인 여섯째 인은 진노의 큰 날을 말씀하셨습니다^ㄷ.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전환되어 천제지변을 계시하셨으니, 일곱 나팔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느님께 열납되어서 ㄹ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해원(解冤)의 계시입니다.

일곱 나팔도 일곱 인과 같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땅과 바다와 강과 일월성신에 미치는 재앙을 말씀하시어서 각기 삼분의 일이 해를 받으나 ㅂ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세 화로 따로 계시하시어서 재앙이 미치는 대상과 그 재앙의 과정을 구분하시었습니다.

세 화 중 첫째 화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사상으로 말미암아 무저갱 사자의 무수한 군병이 세상에 범람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섯 달간 괴롭히고 ㄴ 그다음은 여섯 수가 되는 여섯째 나팔이 불리니 서론이었던 여섯째 인에서 말씀하셨던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땅의 사방의 바람이 ㅈ 놓여서 년, 월, 일, 시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는 ㄷ 본론적 재앙을 말씀하셨고 여섯을 벗어난 일곱째 나팔은 하느님께서 그 종 선지자 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나팔입니다 ㅋ.

일곱 대접도 역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땅과 바다와 강들과 천체에 미치는 참상이나, 각기 삼분의 일이었던 나팔의 재앙이 ㅌ 대접에서는 그 결과가 되어 전체로 퍼져서 다섯째 대접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ㅍ.

ㄱ.계6:9~11 ㄴ.요16:33 ㄷ.계6:12~17 ㄹ.계8:1~2 ㅁ.계8:3~5 ㅂ.계8:7~12 ㅅ.계8:13 ㅇ.계9:1~11 ㅈ.단7:1~8 계7:1~3 ㅊ.계9:13~19 ㅋ.계10:5~7 ㅌ.계9:13~18 ㅍ.계16:1~11

여섯 수인 여섯째 대접은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과 같은 유브라데 강을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에서 발생하는 내용은 이 세상 만국의 지도자들과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과의 전쟁이오 ㄱ. 결국, 어린양은 만왕(萬王)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기신다는 내용입니다 ㄴ.

이스라엘의 승리, 그것이 결국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요한에게 보이신 어린양의 모습은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팔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으신 ㄷ 모양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별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 그대로 옥황상제의 ㄹ 모습입니다.

로마의 권력에 처형을 받으시는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날 선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ㄹ 원군(元君)이십니다.

사람이 하늘로 휴거함이 아니라 천강(天降)입니다. 여섯을 벗어난 일곱째 대접에 이르러 만국이 무너지고 ㅂ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시니 하느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양이 그 등이 되시어 다시는 밤이 없는 신천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ㅅ.

하느님께서 드디어 천하를 어린양의 발아래 두시는 때입니다 ㅇ.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ㅈ 이 세상이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ㄷ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이 땅에 다시는 어둠이 없는 명천(明天)이 열려서 새 세상이 ㅋ 되는 것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시는 ㅌ 하느님의 진정한 안식입니다.

ㄱ.계16:13~16 ㄴ.계17:14 ㄷ.계1:13~16 ㄹ.마28:18 요18:37 ㅁ.요5:22 계 19:15 ㅂ.계16:17~31, 18:1~3 ㅅ.계21:1~4, 22:1~5 ㅇ.시110:1~5 마22:44 고전15:23~26 히2:8 ㅈ.마 6:10 ㅊ.계11:15 ㅋ.마19:28 계21:5 ㅌ.계21:6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로 ㄱ 감추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오 ㄴ.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아니 하시고 ㄷ 제자에게 그 해석을 가르쳐 주셨듯이 성서의 모든 비밀은 성서로만 풀어집니다 ㄹ.

신구약 성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ㄴ 성서의 모든 비밀을 풀어주시는 열쇠여서 누구든지 그 작은 책의 내용에서 하나라도 더하면 그 책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더하여지고 하나라도 제하면 그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에서 제거되는 글입니다 ㅂ.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시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시어 ㅅ 복을 누리는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써 ㄹ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ㅅ.

예수께서 영이 되어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이 되시고 ㅈ 그 육신이 영생하시는 영화로운 몸이 되셨습니다 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육신의 피로 인생을 대속(代贖)하여 아버지께 바치심으로써 ㅊ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셔서 ㅊ 이루어지는 상생(相生)입니다.

그 대속의 결과 하느님의 성령이 인생에 임하시어 하느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를 당신과 인생을 맺으시는 화목제물(和睦祭物)로 주시었고 ㅎ 아드님께서 이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결국 생산하시는 ㅊ 영원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유일하신 아드님께서 함께하시어 결국 이루시는 것이 성령으로 생산하시는 하느님의 열매입니다.

하느님의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누어 가시며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일곱째 날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느님의 창조가 아니요. 하느님의 생산입니다.

ㄱ.마13:11 계10:7 ㄴ.계1:3, 22:10 ㄷ.마13:34 ㄹ.사34:16 ㅁ.계1:1 ㅂ.계 21:18~19 ㅅ.마28:18 ㅆ.창2:3 ㄷ.요17:5 ㅈ.요1:14 요일4:2 ㅈ.눅24:39 ㅊ.계5:9 ㅊ.요17:1, 4 ㅎ.요1서2:1, 4:10 ㅊ.요12:24 계14:4

하느님께서 여섯째 날이 맞는 어둠을 넘어 일곱째로 나신 아들에게 복 주어 거룩하게 하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ㄱ 당신은 안식하시니 하느님의 일하시는 주체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뒤바뀐 것이요.

천사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ㄴ 아들을 생산하신 하느님의 거룩하신 신께서 거꾸로 아들의 이름으로 ㄷ 피동이 되어 보내심을 입으셔서 하늘에서와같이 이 땅에도 하느님의 신께서 계시게 되었고 그 거룩하신 신을 받는 자들이 있어서 하느님의 아들들이 생산되는 것이어서 음양의 상생(相生)입니다.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이 되시어 여섯째 날의 사망을 이기시고 일곱째의 영화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자연을 넘어 초자연적 경계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고 인생으로 하여금 당신의 뒤를 따라 그 경지의 거룩한 생명으로 ㄹ 거듭나게 하시어서 당신과 같은 하느님의 아들들이 ㅁ 되도록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ㅂ. 인생이 어린양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양과 하나가 됨으로써 만이 ㅅ 부활하신 어린양과 같은 차원의 ㄹ 아들들이 됩니다.

때가 이르렀기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어린양과 그의 나라를 진리대로 증언하는 ㅈ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증언을 거역하면 이들 안에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ㅈ 것이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린양의 계명대로 하느님과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는 종류가 되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상대를 희생시키며 사는 종류가 되면, 하느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하느님과 사람이 서로 뜻을 피력하는 양(陽)이어서 상충하는 것이요. 이를 상극(相戾)이라고 합니다.

ㄱ.요7:39, 17:1 ㄴ.요5:43, 10:25 ㄷ.요14:26, 16:23 ㄹ.출31:13 ㅁ.눅16:8 요12:24 롬8:19 계21:7 ㅂ.요15:5 ㅅ.요14:20, 17:23 ㅆ.마10:25 ㅈ.요16:21~24 요1서3:2 계12:5, 14:1~5 ㅈ.행:8 ㅊ.마12:32 눅12:10

말세에 다시 예언할 증인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어린양의 말씀을 그 토씨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는 증언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신을 받아서 그 신께서 가르쳐주시는대로 ㄱ 증언하기 ㄴ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불신하지 않고는 말세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종들의 증언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지 못하고 죽은 ㄷ 백성같이 목이 끈은 자입니다 ㄷ.
 베드로는 상제께 믿음을 고백하고 ㄹ 주를 가까이 따르던 제자였어도 세 번씩이나 그 주를 부인하였습니다 ㅂ. 그 세 번의 부인대로 천자께서 그 제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ㅅ.
 목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인했던 그 제자가 성령을 받고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오. 그 주의 그 종이 되어, 주를 따라 십자가에 두 팔을 펴서 천자를 향한 더없는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ㅇ.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천자의 유일한 계명이건만, 마음에 사랑이 솟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느님은 곧 사랑이시오 ㅈ. 하느님의 신은 사랑의 신입니다.
 성신은 몸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샘물입니다 ㅊ. 사랑의 신께서 사람 안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진리의 신입니다 ㅋ.
 문자가 새겨지듯 그 신을 받은 마음은 그 신이 영원토록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어서 ㅌ 육체의 생사와 상관없이 영세토록 불망(不忘)하는 것이고 나팔이 불리는 언약의 때가 이르면, 받은바 그 지기(至氣)로 말미암아 초자연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ㅍ 부활입니다 ㅎ.
 생명에서 사망으로 끝나고야 마는 선천에서 인생이 하느님의 신을 받고 사망에서 거꾸로 생명으로 ㅊ 뒤집혀 영생하는 후천을 어린양께서 개벽하신 것이고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성서입니다.

ㄱ. 요14:26 ㄴ. 마10:19~20 ㄷ. 요6:49 ㄹ. 출33:3~5 ㅁ. 마16:16 ㅂ. 요18:15~27 ㅅ. 요 21:15~18 ㅇ. 요15:12~14
 요일3:16 ㅈ. 요1서4:8, 16 ㅊ. 요4:14, 7:38 ㅋ. 요14:17 요1서4:6 ㅌ. 요14:16 ㅍ. 요3:5 ㅎ. 계20:5~6 ㅊ. 요5:24 요1서3:14

천지가 생긴 이래 유일무이하게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여자에게서 한 아기가 탄생하시니 ㄱ 사람이 출산한 인자(人子)이시어도 남자의 자손이 아니오.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신 여자의 자손입니다 ㄴ.
 그 여자의 후손께서 죽임을 당하시고서 그 육신이 성령과 하나가 되시어서 신령도 되시고 육신도 되신 고차원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여섯째 날에 지어진 인생이 출현한 이래, 그 인생이 필연이 도달하는 사망의 어둠을 이기고 생명의 빛을 ㄷ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만물을 창조하신 날이 아니오. 하느님께서 당신을 일컬어 『우리』 라고 지칭하신 천상의 부자(父子)를 증언하신 날이어서 당신을 처음이요 끝이시라고 ㄷ 하셨습니다.
 그 시작과 끝 안에 천지 만물이 종속되어 있어서 천지가 폐하여 없어져도 그 처음과 끝은 여전히 살아계실 주이십니다 ㄹ.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천지가 지어졌고 그 진리대로 세상에 만사가 일어나는 것이어서 하느님께서 율법으로 지키라고 명하신 그 하느님의 안식일은 천지가 창조된 과거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미래가 될 ㅂ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처음이신 첫째 날은 천자께서 탄생하시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의지하여 계시고 아드님을 생산하신 하느님의 신만이 밖으로 드러내시는 주체이시어서 일곱째 날이 이르기까지 천자께서 감추어져 계시고 하느님의 신만을 일컬어서 하느님이라고 하시었습니다 ㅇ.

인생이 피조물에서 벗어나 조물주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인생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ㄹ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인생의 죄를 떠맡아지심으로써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ㅂ 하느님의 신이 거꾸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으시고 ㅅ 인생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종이 ㅇ 뒤바뀌어서 하늘의 거룩하신 신이 인생을 내조하시는 ㅈ 인생의 보혜사(保惠師)가 되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신입니다 ㅊ. 어린양께서 인생에 주신 진리를 따라 임하시는 신이시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ㄱ.창1:27 ㄴ.창2:24 ㄷ.출33:19 ㄹ.출33:20 ㅁ.요17:17~26 요일4:10 ㅂ.요 3:17, 5:36~38, 8:42, 17:3 ㅅ.눅24:49
요17:7 ㅇ.요13:16 ㅈ.롬8:26 ㅊ.요14:17

진리라고 하는 이치에 신이라고 하는 산 힘이 있어서 ㄱ 그에 의하여 천지가 창조되었고 창조된 후에는 그에 의하여 세상이 심판과 구원을 받아서 새 세상이 됩니다.
주 예수는 여섯째 날의 어둠을 이기신 생명의 빛이시니 ㄴ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안식일 후 첫날이 아니라 제 칠일이 주의 날입니다 ㄷ.

주께서 모친과 어떤 혼인 잔치에 계셨는데 모친께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시니 그 모친을 여자라고 부르시며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ㄹ 하셨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아직 그 육신이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ㅁ 되어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은 그와 혼인할 처녀입니다 ㅂ. 어린양께서 흘리신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가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장래 거룩한 몸이 될 ㅅ 약속으로 인(印) 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ㅇ.
혼인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천자께서 천부와 하나이신 것 ㅈ 같이 어린양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의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느님의 어린양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ㅊ.
주께서 먼저 인생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지셔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었으니 인생도 하느님을 위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ㅋ 거룩한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하느님의 독생하신 아들과 또 거듭나서 그 아들과 같이 거룩한 형상을 입은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자가 실과를 맺는다고 하신 ㅌ 말씀은 당신 안에 거하는 자가 결국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하느님의 열매가 ㅍ 된다는 말씀입니다.

ㄱ.히4:12 ㄴ.요8:12 ㄷ.마12:8, 26:18 요2:4 ㄹ.요2:4 ㅁ.요일1:1~2 ㅂ.마25:1~10 ㅅ.눅16:8 롬8:19 딤후 6:19
요일3:2, 4:17 ㅇ.엡1:13, 4:30 벧후1:4 ㅈ.요10:30 ㅊ.요17:21~22 ㅋ.마10:38 요일3:16 ㅌ.요15:4~5 ㅍ.계14:4

믿음은 그 정도가 있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이는 삼십 배, 어떤 이는 육십 배, 어떤 이는 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어서 ㄱ 장래 오는 세상에도 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ㄷ.
하느님께서 거두시는 첫 열매는 ㄹ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전토를 버리고 부모나 자식까지 버리며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고 주를 쫓아서 제자의 반열에 ㅁ 드는 자입니다.
순교자만이 처음 열매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요. 요한이 산목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까지 주를 쫓은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에게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ㅂ.

인생이 피조물에서 벗어나 조물주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인생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ㄹ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인생의 죄를 떠맡아지심으로써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ㅂ 하느님의 신이 거꾸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으시고 ㅅ 인생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종이 ㅇ 뒤바뀌어서 하늘의 거룩하신 신이 인생을 내조하시는 ㅈ 인생의 보혜사(保惠師)가 되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신입니다 ㅊ. 어린양께서 인생에 주신 진리를 따라 임하시는 신이시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ㄱ.창1:27 ㄴ.창2:24 ㄷ.출33:19 ㄹ.출33:20 ㅁ.요17:17~26 요일4:10 ㅂ.요 3:17, 5:36~38, 8:42, 17:3 ㅅ.눅24:49
요17:7 ㅇ.요13:16 ㅈ.롬8:26 ㅊ.요14:17

진리라고 하는 이치에 신이라고 하는 산 힘이 있어서 ㄱ 그에 의하여 천지가 창조되었고 창조된 후에는 그에 의하여 세상이 심판과 구원을 받아서 새 세상이 됩니다.
주 예수는 여섯째 날의 어둠을 이기신 생명의 빛이시니 ㄴ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안식일 후 첫날이 아니라 제 칠일이 주의 날입니다 ㄷ.

주께서 모친과 어떤 혼인 잔치에 계셨는데 모친께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시니 그 모친을 여자라고 부르시며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ㄹ 하셨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아직 그 육신이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ㅁ 되어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은 그와 혼인할 처녀입니다 ㅂ. 어린양께서 흘리신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가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장래 거룩한 몸이 될 ㅅ 약속으로 인(印) 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ㅇ.
혼인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천자께서 천부와 하나이신 것 ㅈ 같이 어린양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의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느님의 어린양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ㅊ.
주께서 먼저 인생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지셔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었으니 인생도 하느님을 위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ㅋ 거룩한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하느님의 독생하신 아들과 또 거듭나서 그 아들과 같이 거룩한 형상을 입은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자가 실과를 맺는다고 하신 ㅌ 말씀은 당신 안에 거하는 자가 결국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하느님의 열매가 ㅍ 된다는 말씀입니다.

ㄱ.히4:12 ㄴ.요8:12 ㄷ.마12:8, 26:18 요2:4 ㄹ.요2:4 ㅁ.요일1:1~2 ㅂ.마25:1~10 ㅅ.눅16:8 롬8:19 딤후 6:19
요일3:2, 4:17 ㅇ.엡1:13, 4:30 벧후1:4 ㅈ.요10:30 ㅊ.요17:21~22 ㅋ.마10:38 요일3:16 ㅌ.요15:4~5 ㅍ.계14:4

믿음은 그 정도가 있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이는 삼십 배, 어떤 이는 육십 배, 어떤 이는 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어서 ㄱ 장래 오는 세상에도 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ㄷ.
하느님께서 거두시는 첫 열매는 ㄹ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전토를 버리고 부모나 자식까지 버리며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고 주를 쫓아서 제자의 반열에 ㅁ 드는 자입니다.
순교자만이 처음 열매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요. 요한이 산목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까지 주를 쫓은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에게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ㅂ.

하느님의 첫 열매는 순교자는 물론이려니와, 하느님의 나라를 주의 계시대로 증언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말세에 제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종들이어서, 순교자는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는 〇 홀연히 변화하여 다 같이 거룩한 세마포를 ㄴ 입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흰옷을 입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ㄷ 자가 있고 회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그 나라에서 왕 노릇 하는 ㄱ 자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어의(御衣)가 아무리 영화로워도 하느님께서 입히시는 생명의 옷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ㄷ. 영원한 생명을 입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을 아들로 ㄹ,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여자로 ㅎ 비유하셨듯이 노아의 홍수 이전,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어서 ㅏ 사람들이 천세를 누리던 때와 같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만물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영혼의 나라를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육신을 믿는 것입니다. 육신은 육신이나 죽지 않는 육신입니다.

ㄱ. 마13:8 ㄴ. 마12:32 히2:5 계11:15 ㄷ. 마23:11 눅22:26 ㄹ. 계14:4 ㅁ. 마10:37 ~38, 16:25 ㅂ. 요19:26 ㅅ. 계20:4 ㅇ. 살전4:17 계11:13, 12:17 ㅈ. 계19:8, 14 ㅊ. 계7:9, 21:3 ㅋ. 계5:10, 11:15 ㅌ. 눅12:27 ㅍ. 계12:5 ㅎ. 계12:6 ㅏ. 창6:2

열두 제자 중 도마는 그 육신을 보고서야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믿는 자가 되었으나 ㄱ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ㄴ 하신 언약의 자손이 복이 있는 ㄷ 자입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일꾼 중에는 시대적으로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에 된 자도 있습니다 ㄹ. 일찍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과 주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머물다가 ㅁ 그때가 이르면 다시 예언하는 ㅂ 성도들이 있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보다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말세에 사명(使命)을 받아 짧은 기간 일하다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나중 쪽이 먼저 되어서 ㅅ,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자가 더 많습니다.

주께서 가장 가까이 두셨던 세 제자 〇 중, 주의 양 떼를 맡아서 꼴을 먹이다가 두 팔을 펴고 순교한 베드로 한 사람은 먼저 된 일꾼들의 표상이나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ㄴ 받은 요한의 형제 두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작은 책의 인봉(印封)이 떼어지는 때 ㄷ 그 내용을 우렛소리같이 크게 ㅋ 증언하다가 오시는 주와 상봉할 종들의 표상이어서 주께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ㅌ 하셨습니다.

주의 재림 때, 동쪽 땅끝 해 돋는 데로부터 하느님의 인(印) 맞는 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서쪽 땅끝까지 죽은 자나 산 자를 막론하고 그 수가 다 차기까지는 최후의 전쟁은 터지지 않습니다 ㄹ.

늙어 죽을 생명이 아니라 성서는 처음부터 영생에 관한 계시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느님 중 하나와 같이 된 ㅎ 인생에게 영생에 이르는 생명나무의 길을 ㅏ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ㄱ. 요20:27~28 ㄴ. 요11:25~26 ㄷ. 요20:29 ㄹ. 마20:1~16 ㅁ. 요21:22~23 ㅂ. 계10:11 ㅅ. 마19:30 막10:31 ㅇ. 마26:37 ㅈ. 막3:17 ㅊ. 계22:10 ㅋ. 계10:3 ㅌ. 마16:28 요21:22 계10:8~11 ㅍ. 계7:2~3 ㅎ. 창3:22 ㅏ. 창3:24 계22:19

인생이 거듭 태어나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께서 지으신 생명이 아니요, 하느님의 양위께서 하나가 되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ㄱ 성령으로 생산하시는 하느님의 열매입니다.

진리로 하느님같이 거룩하여진 자가 ㄴ 하느님의 열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는 천부와 천자께서 서로 안에 계시어서 하나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어린양 안에 거하는 그의 종이 거듭 태어나 결국 그 주와 하나가 되어서 흠이 없는 온전한 형상을 입는 것이어서 그리스도의 여자가 출산하는 여자의 자손입니다.

남자로부터 여자가 취하여져서 둘로 분화된 것은 육신이나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손은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생산하는 생명입니다.

주는 양이고 종은 그 주의 음이요. 양을 의미하는 홀수 하나와 음을 의미하는 짝수 둘이 연합하면 셋이 되어서 다시 양이 됩니다.

양과 음이 서로 사랑하여서 그 결과를 이루는 양위의 열매이어서 태극이 양의가 하나로 된 그림이나, 세 색으로 표시한 삼극이 하나의 원으로 그려져 있는 태극도 있게 되었습니다.

천부도 하나이시고 천부와 천자도 하나이시고 천부와 천자와 성령으로 태어나는 아들들도 하나입니다. 양과 그 반대 모양의 음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 태극을 극동의 한국이 국기로 사용하듯이 정삼각형과 그 반대 모양을 한 역삼각형이 하나가 된 별을 근동의 이스라엘 국가가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천부와 천자께서 하나이신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임금을 상징합니다. 가라사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ㄱ. 요16:7 ㄴ. 요17:17~19 ㄷ. 요10:30 ㄹ. 요11:52, 17:11, 21~23 ㅁ. 계14:4 ㅂ. 마5:48 ㅅ. 창3:15, 20 ㅇ. 계12:13
 ㅈ. 요17:21~26 ㅊ. 마23:9 ㅋ. 요10:30 ㅌ. 요17:21~23 ㅍ. 삼하7:12~16 시89:4 사9:6~7 행2:29~36 계3:7 ㅎ. 계22:16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이건만 혈육으로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도 도리어 그 별이 상징하는 실상이신 임금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지극히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유대인으로 탄생하셨으나 그 동족은 알아보지 못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신령한 별을 보고 지극히 크신 임금께서 탄생하신 증조임을 알았고 먼 길을 찾아서 그 임금을 알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으신 천상의 원군이시요. 그 임금께서 계시하신 참 이스라엘은 혈육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입니다.

일 음과 일 양의 도를 만유의 으뜸으로 여겨서 태극을 국기로 삼고 환인으로부터 한 다리 건너 그의 아드님과 의 혼인으로 태어난 단군의 신시(神市)를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는 백성이 그 태극이 상징하는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빛이시요. 조선의 말로 빛을 형용하여 환하다고 합니다.

옛 조선에서 한자를 조선의 표음문자로 쓴 이두(吏讀)로 표기하였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환하시니 환(桓)자, 인(因)자이시고 그 원인의 결과로 환하신 독생자께서 탄생하시니 역시 환자에 웅(雄)자이시요.

환인과 환웅과 같이 환하셔서 밝다고 하여 그 음을 붙인 박달나무 단(檀)자에 임금 군(君)인 단군이 태어나 크게 밝은 태백산(太白山)에 신시(神市)가 열렸다고 하는 유전이 있습니다.

단지 그 환웅이 하나님의 서자로 전하는 것은 인생이 올바르게 찾아야 할 하나님의 적통께서 계신 것을 암시하는 참언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자는 태고의 극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서쪽 근동의 대법국(法國)에서 탄생하신 어린양이시기 때문입니다.

ㄱ. 습3:15 마27:11 요1:49, 12 ㄴ. 마23:39 눅13:35 ㄷ. 요1:11, 4:22 ㄹ. 마5:35, 마23:10 ㅁ. 마2:11 ㅂ. 계7:4 ㅅ. 마5:14 눅16:8 요1:4~9 요일1:5

남자라는 뜻인 아담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7 죽은 자의 7 조상이오. 여자의 후손이어야 8 산 자
여서 9 조선 백성은 신의 점지를 일컬어 삼신할머니의 점지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안쪽 몸이듯 10 천부와 천자와 그 하느님의 열매인 하느님의 삼 대는 11 오직 안에 거하는 자뿐
입니다 12.

천부와 천자께서 서로 상대를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버리셨듯이 어린양의 열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린양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13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신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느님의 어린양은 섬겨야 하는 주가 아니요 반대로 이용
할 대상밖에는 안 됩니다.

불도의 사찰에 있는 본전을 대웅전(大雄殿)이라고 하듯, 하늘이 있기 전부터 계셔서 하늘보다 크신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인생이 신랑으로 14 모셔야 할 참 대웅이십니다.

환웅이 혼인의 가약을 맺기 전의 상대는 들에서 사는 호랑이나 곰과 같이 인생이 여섯째 날 흙으로 지음을 받
은 들짐승과 같은 종류밖에는 안 되나, 곰은 환웅의 언약을 믿고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어 환웅의 배필이 되었
고 그 여자에게서 밝은 빛의 아들이 생산되었습니다.

인생이 그 신랑으로 말미암아 참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뒤에 오는 차세대가 열리
는 것이오 15.

인생이 아닙니다. 빛의 아들들이라고 16 말씀하신 새 이름의 17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을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언약하셨고 이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소망입니다 18.

하느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씨를 세상에 떨구시어 19 맺으시고야 말 당신의 첫 열매가 20 곧 단군과 같은 그
나라의 만왕(萬王)입니다.

ㄱ.창3:19 ㄴ.마8:22 ㄷ.눅9:20 ㄹ.요5:25 ㄴ.고전 15:22 ㄷ.창3:15, 20 ㄹ.마22:32 ㄷ.계12:5 ㄴ.창3:20 ㄹ.마22:32 ㄷ.막12:27 ㄷ.눅
20:38 ㄴ.창2:23 ㄷ.마22:32 ㄹ.요14:11, 17:21 ㄴ.마16:24 ㄷ.요일3:16 ㄴ.마9:15, 25:1 ㄷ.요3:29 ㄴ.눅16:8 ㄷ.눅16:8
ㄷ.요12:36 ㄴ.계2:17 ㄷ.롬8:23 ㄷ.베전1:3~5 ㄴ.요12:24 ㄴ.계14:4

하느님께서 동방의 동산에 하느님의 낙원을 심으셨다고 21 하셨듯이 천국은 인간이 세운 인간의 나라가 아니
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씨를 세상에 심으셔서 그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조선의 환인, 환웅, 단군과 같이 중국에서도 천황, 지황, 인황이라고 하는 천지인 삼황(三皇) 씨의 유전이 있
는데, 그 삼황을 부를 때는 수인씨니, 복희씨니, 신농씨니 하며 특이하게 씨 자를 붙여 불러서 씨 종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인씨의 수(燧) 자나, 포희라고도 이름 하는 복희씨의 포자나 염제라고도 하는 신농씨의 염(炎) 자가 모두 빛
을 내는 불 화(火)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조선의 환인, 환웅, 단군과 같이 삼위의 이름은 각기 달라도 씨는
빛을 상징하는 같은 씨입니다.

높이 올리는 봉화 수(燧) 자는 천황을 상징하고 이름이 희(犧 또는 義)라고 하는 복희씨의 복(伏) 자는 엎드
릴 복이어서 높이 올림과 낮게 엎드림이 서로 상반하듯 위와 아래 양의(兩儀)가 근본이 되어서 인황(人皇)이
태어났다고 하는 전래입니다.

다 같은 빛이나 양(陽)은 강렬한 빛이고 음(陰)은 은은한 빛이오, 그 양의의 씨를 받아 인황이 태어남을 모형
으로써 가르친 것입니다.

음양오행의 팔괘가 복희씨의 계시라고 전하여 내려오고 있어서 삼황(三皇)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임금이 복
희씨입니다. 복희씨는 얼굴은 사람이나 몸은 사신(蛇身)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희(義) 자는 희생양을 형상한 상형문자입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면 의지하였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이집트의 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잡아먹었고 하느님께서 그 지팡이를 지성소에 안치하도록 명하셨으니 그 지팡이는 지극히 거룩한 자의 상징이요,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사람들을 살렸듯이 그 뱀뱀은 희생의 제물이니 되시고 승천하신 어린양의 상징입니다.

ㄱ.창2:8의 직역 ㄴ.민21:9 ㄷ.요1서2:2, 4:10 ㄹ.요3:14

동방에서 하늘의 형상을 보아 증조를 ㄱ 살피는 것을 일컬어 천문을 본다고 말하지만, 땅의 형상을 볼 때는 풍수(風水)를 본다고 말하듯이 성서 첫 장의 첫 문장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증언하신 문장이요 그다음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땅을 말씀하신 후에 바람과 같이 수면에 운행하신 하느님의 신을 ㄴ 형용하시어서, 창세 전에 빛을 생산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ㄷ 하느님의 신께서 생산하시어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ㄹ 생명의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생이 지어진 후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탄생하시어서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양이 되셨고, 그와 같이 성신을 받은 인생이 거듭 태어나면 ㄹ 빛의 아들들이 ㄴ 되어서 하느님의 어린양과 아들들이 모두 하느님의 씨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산 혼이 되었듯이 ㄴ 성자께서 숨을 크게 내어 불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고 ㄹ 하셨습니다. 신 또는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에 비유하여 이루어진 말이요,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을 받아 그 거룩하신 신으로 거듭 태어난 빛의 아들들의 모양을 성자께서 바람에 비유하여 형용하셨습니다.

바람같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게 와서 홀연히 사람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났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천부와 천자께서 서로 사랑하시어 하나이시듯 ㄴ, 인생이 그 어린양의 영을 받는 그의 여자가 되어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여 ㄴ 빛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그때가 되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ㄷ 빛의 아들들이 됩니다.

ㄱ.창1:14 마16:2 ㄴ.창1:2 마3:16, 12:28 롬8:9 계4:5 ㄷ.요17:24 ㄹ.요1:1 ㄴ.요3:5 ㄷ.눅16:8 요12:36 ㄴ.창2:7 ㄹ.요20:22 ㄴ.요3:5~8 ㄷ.요17:21~23 ㄴ.요16:20~21 계12:2 ㄷ.단12:3 마13:43

하늘에 계신 천부(天父)만이 하느님이 아니요, 창조의 근본이신 ㄱ 천자(天子) 또한 하느님이십니다. 동방에서는 반고(盤古)께서 탄생하시어 천지가 개벽 되었다고 하고 또 그 반고를 이백은 대괴(大塊)라고도 칭하였습니다. 성서에서 여호와 하느님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지칭하신 ㄷ 것과 같습니다.

삼황 중 혹은 수인씨 대신 흙으로 사람을 지은 여와(또는 여웨)로 대치되어서 그 여와가 복희씨와 남매이면서 배필이 되어서 그의 씨를 퍼뜨렸다는 유전이 또한 있어서, 성서의 여호와(야훼)와 하느님으로부터 장차 천하 열국의 아버지가 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로 겹쳐져서 성서의 감추어진 비밀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삼 대는 성삼위이신 하느님의 모형이요 ㄷ,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의 씨가 아니라 ㄴ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으로 생산되는 하느님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버라는 뜻이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처를 열국의 어미라고 일컬으시며 여주(女主)라는 이름을 주셨고 ㄷ 아브라함에게 그 여주의 말을 들으라고 ㄴ 명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나왔다고 하여서 자기의 몸이라고 하였던 여자를 거꾸로 모든 산 자의 어미라고 ㄹ 이름을 고쳐 부른 것과 같은 뜻이어서 열국의 어미이고 여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에게 자기 누이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 일을 이삭도 되풀이 하였습니다^ㄷ.

아브라함에게는 장자가 있었으나 하느님께서 열국의 어머니가 낳은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독자라고^ㄱ 하시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셨습니다^ㄷ. 약속의 자손은^ㄹ 아담(남자)의 씨가 아니고, 하느님의 독생자와 가약을 맺은 여자의 자손입니다^ㅎ.

ㄱ.계3:14 ㄴ.요1:18 ㄷ.창49:24 신32:4 시18:2, 31 사26:4 ㄹ.출3:6 마22:31~32 ㅁ.마3:9 요8:39~44 롬9:8 갈4:29
 ㅂ.창17:15~16 ㅅ.창21:12 ㅇ.창3:20 ㅈ.창12:13 ㅊ.창26:7 ㅋ.창22:2 ㅌ.창21:12 ㅍ.롬9:8 갈4:21~31 ㅎ.창3:15

남자는 죽습니다. 자식들의 양피를 벤 모세의 처로 말미암아 모세의 목숨이 보존되었듯이^ㄱ 아브라함의 자손 중 남자는 할례를 받습니다. 남편이 하느님이시어서^ㄴ 여자이고 산 자는 그 여자의 자손입니다.

가라사대 『주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ㄷ 천명하셨습니다. 그 산 자가 바로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하느님의 자손입니다.

하느님께는 모두가^ㄴ 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생하시고 그의 독생자께서도 부활하셔서 영생하시듯 장차 부활하여 영생하는 자에 대하여^ㅁ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중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권세를 가질 나라의 임금일 될 것을^ㅂ 하느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출산하신 모친은 처녀였어도 다윗의 자손과 정혼하시었기 명분상 그 남편에 속한 남편의 몸이 되시어서^ㅅ 다윗 족보의 자손을 출산하셨습니다^ㅇ.

예수께서 당신의 모친을 일컬어 여자라고 이름 하여 부르시어서^ㅈ 그 모친이 하느님의 신을 받는 모든 인생의 표상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카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ㄷ 하셨습니다.

혈육의 가족이 아닙니다. 희생의 길을 걷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여자의 아들이시듯 어린양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도 여자의 아들이 되어^ㅋ 영생할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씨는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씨가 어린양을 따르는 그의 여자가 되어서 생산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ㄱ.출4:24~26 ㄴ.사54:5 ㄷ.마22:32 ㄹ.눅20:38(한글판의 "모든 사람"은 오역임) ㅁ.눅20:36~37 ㅂ.시89:4, 39, 110:4 사11:1~5 요12:34 ㅅ.창2:23 ㅇ.삼하7:12~4 마1:17 눅2:4~7 ㅈ.요2:4, 19:26 ㅊ.마12:48~50 ㅋ.요19:26

조선에서 여자의 짝을 서방이라고도 하듯이 백성이 서낭을 섬겼는데 서낭을 한자의 뜻글로는 성주(城主) 또는 성황(城隍)이라고 합니다.

어린양과 한 몸을 이룰 어린양의 신부를 지칭하시어 성서에서는 거룩한 성(城)으로 계시하시었고 그 거룩한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와^ㄱ 지상의 도성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성서의 결말입니다.

어린양의 초림은 언약을 주신 가약(佳約)이나 재림은 그의 혼인이오^ㄴ. 어린양의 계명을 지켜서 어린양과 하나가 된 만군과 함께 땅에서^ㄷ 만국을 다스리시는 어린양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ㄹ.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당한 짐승의 가죽옷을^ㅁ 지어 입히시어서 아담이 하느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 자가 되었듯이 인생은 희생하신 어린양의 안에 거하는^ㅂ 어린양의 여자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첫째 날에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사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아버지의 맞상대가 되시어서 하느님의 천지창조를 도우셨듯이 천황의 맞상대인 지황의 포희씨는 그의 성씨가 보이지 않는 바람의 그 풍(風) 자라고 하고 이름은 희생양이지만 천지인 삼황 중, 셋째인 신농씨는 성씨가 양(羊)과 여자로 이루어진 강(姜) 자라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신 하느님의 신이라고 〇 번역된 그 신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주(主)라는 의미가 아니라 형상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바람에서 연유한 문자이오, 하느님이 바로 주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일곱째 날에 관한 말씀이 있고 나서 하느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어서 사람이 산 혼이 되었으나 ㅈ 죄를 지은 그날 그 혼의 생명은 죽어서 ㅊ 그 생명의 맥을 잊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을 내려받아 거듭 태어났던 그 생명의 씨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ㄱ.계21:1~4 ㄴ.마25:10 ㄷ.마6:10 계5:10 ㄹ.단2:45 ㅁ.창3:21 ㅂ.요15:9 ㅅ.창1:3 ㅇ.창1:2 ㅈ.창2:7 ㅊ.창2:17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희생하신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계셔서야 비로소 인간은 죄를 가릴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 하느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임금이 ㄱ 되는 것이어서 삼황은 성서와 같이 하느님의 삼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여자는 남자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고 남자에게서 취하여진 몸으로 ㄴ 정의한 이상, 남녀는 주격과 종속격으로 나뉘는 뿐, 한 몸일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아담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기로부터 라고 하는, 그 처음 위치를 떠나 ㄹ 나중 몸이 된 것이오, 가약을 맺은 어린양의 신부나 어린양의 양(羊)이라는 의미는 결국 같아서 주를 따르는 자 ㅁ, 곧 어린양에 속한 ㅂ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주격과 종속격으로 차별하여서 남자가 우위를 점하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ㅅ 사람이 하느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〇 어린양의 계명을 지켜서 사람이면 누구나 서로서로 상대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ㅈ 비로소 천국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으나 ㅊ 산 자는 여자에게서 나는 생명이오 ㅋ. 하느님은 산 자의 하느님이십니다 ㅌ. 죄를 짓고 죽은 자가 ㅍ 되었던 아담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ㅎ 산 자가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야 아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을 ㅊ 지켰고 비로소 아담은 여자를 모든 산 자의 어미라고 ㅊ 고쳐 불렀습니다.

여자가 출가하듯 남자도 여자가 되어서 그 육신의 계통을 떠나 어린양의 신부가 되어야 산 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자가라사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라고 ㄱ 하신 뜻이 이것입니다.

ㄱ.계3:21, 20:6 ㄴ.창2:23 ㄷ.창2:24 ㄹ.마16:23 ㅁ.마16:24 ㅂ.요15:19 ㅅ.마19:8 ㅇ.마5:17 ㅈ.요13:14 ㅊ.창2:21~23 ㅋ.창3:20 ㅌ.마22:32 ㅍ.막12:27 ㅎ.창2:17 마8:22 ㅎ.마16:24 눅9:23 ㅊ.창2:24 ㅊ.창3:20 ㅊ.마23:9

민족과 혈통을 따라 사람을 분별하는 자는 어린양의 교훈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시집식구가 되듯 어린양의 가족이 ㄱ 된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다 한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ㄴ. 남녀를 서열로 분별하였던 아담이 처음이라던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기 하느님께서 입히신 희생의 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되었고 ㄷ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의 처음이신 아버지가 ㄹ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서에서 여호와라고 하시는 천지의 주제를 극동에서는 상고 때에 태을(太乙)이라 하여서 전쟁이나 口 가뭄 같은 중차대한 경우에 직면하면 이 하늘의 임금에게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조선의 입말이고 그 하늘의 임금을 태을이라는 상형문자로 표기한 것이요, 그 임금께 소와 양을 바친 것이어서 희(義,犧)자가 양 또는 소와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죄가 있는 인생으로서 하느님을 대할 수가 없어서 卍 죄를 사하는 卍 어린양의 모형을 만들고 이 제물을 통하여 제사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태을이라고 표기한 태(太) 자는 지극히 크심을 의미하고 을(乙) 자의 상형이 뒤집혀 반본(返本) 하는 태극의 모양 때문이요, 궁(弓) 자 또한 거꾸로 뒤집히는 모양이어서 도인들이 이 무극의 도를 궁을이라고 하였으며 강조하여서 궁궁을을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태극은 양과 음이 하나를 이룬 모양을 그린 도형입니다.

첫째 날에 빛을 생산하신 하느님의 신께서 〇 일곱째 날에는 그 빛에 복을 주시어서 거룩하게 하시고는 당신께서 안식하심으로써 일하시는 주격이 뒤집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그 아드님 또한 아버지와 같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시니 卍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이시오. 그 모양이 태극입니다.

ㄱ.마12:50 ㄴ.마23:8~9 ㄷ.계3:18 ㄹ.눅3:38 ㅁ.삼상17:47 ㅂ.출33:20 ㅅ.출25:21~22 ㅎ9:7 ㅇ.창1:2~3 ㅈ.마9:6, 28:18 ㄷ4:6 ㅊ16:15 ㅋ.마26:39 ㅌ12:30 ㅍ5:9 ㅋ.요10:30, 17:20~26

천지가 생긴 것은 하느님의 신과 그 하느님을 돕는 자가 되신 독생자의 양위 때문이요, 곧 천지가 지어지도록 의지를 피력하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생긴 것이어서 卍 태을은 천지의 부모와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삼위일체설처럼 성부, 성자, 성신이 동일하신 몸이 아닙니다. 성부가 곧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바로 성신이 아니요, 성부와 성자가 서로 상대를 사랑하시어서 하나이시듯 성자와 그를 믿는 자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를 이루면 아버지와 어린양과 또 그 어린양의 열매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큰 어른이 작은 아기를 보면 좋아서 웃고 남녀도 그같이 서로 상대적이어서 연모하듯이, 성부와 卍 성자께서 서로 상대이시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무궁하게 사랑하시고 그같이 그 아드님께서 아버지를 한없이 사랑하시어서 서로 연합하여 卍 하나이신 임이 여호와 하느님이십니다.

성부께서 세상에 보내시어서 인생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성자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태초에도 성부와 함께 계셨으며 卍 지금은 천부의 보좌 우편에 계시나 〇 장차 주(主)의 이름으로 卍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천부와 천자께서 좌우 양의(兩儀)로 계시어서 인생의 주는 복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하나이신 卍 하느님의 그 하느님이 바로 복수로서 연합하여 하나이신 복수 명사입니다.

천지의 대 주재(主宰)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드님께 주셨으니 卍 그 아버지와 함께 아드님 또한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卍 하늘의 으뜸가는 임금이시오.

ㄱ.창1:6~9 ㄴ.막12:36, 16:19 ㅎ7:55 ㅍ3:21 ㄷ.요17:20~26 ㄹ.요14:28 ㅁ.요1서4:16 ㅂ.참고:창2:24 ㅅ.요1:1 〇.마22:44 ㅌ16:19 ㅈ.마23:39 ㅋ.계17:14, 19:16 ㅋ.시110:1 ㅌ22:45 ㅎ2:36 ㅍ.신6:4 ㅍ.마28:18 ㅎ.마6:13 ㅊ17:9~10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이 아들 또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제물로 바치시니 ㄱ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서로 자신의 것이 없으신 하나이시어서 태을이라는 글자 대신 태일(太一)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는 영원히 그 아들의 권세고 아드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ㄷ 계신 천상의 원군을 동방에서 옥황상제라고도 하고 그냥 상제 또는 천주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어디까지나 아버지께 속한 ㄹ, 아버지의 종속이시기때문에 ㄴ 오직 천부만을 가리키시어 천주이신 하느님으로 일컬으시었듯이 어린양에 속한 인생이 기도를 드릴 대상은 성자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삼위일체설 때문에 많은 이가 성신께 기도하고 성자나 성모는 물론, 성인의 형상을 만들고 그에게 기도하여서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계명은 ㄷ 고사하고 성자의 가르침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하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뜻이 인생이 사는 땅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하느님의 언약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으시던 일을 하시기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ㄹ, 태초에 독생하신 하느님께서 여섯째의 어둠을 통과하여 인생에 엄습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결국 하늘에서와같이 땅도 밝아져서 다시는 어둠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ㄷ 이로써 하느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ㄷ 것입니다.

인생이 있는 이 세상도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에서와같이 어둠이 없는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 그 나라가 곧 『천국이 가까왔다』 라고 ㄷ 하시며 또 제자에게도 그같이 증언하라고 하신 ㄷ 그 천국입니다.

ㄱ.히9:23~28 요일2:2 계5:9 ㄴ.요17:10 ㄷ.계3:21, 7:17, 22:1~3 ㄹ.요8:23 ㅁ.마12:18 ㅂ.마6:9 ㅅ.출20:4 ㅇ.창1:2 ㅈ.계21:25, 22:5 ㅊ.마6:10 계21:6 ㅋ.마4:17 ㅌ.마10:7

지금은 밤입니다 ㄱ. 태초에 탄생하신 빛이 세상에 계시는 때에야 비로소 세상이 그 세상의 빛으로 밝은 낮입니다 ㄴ. 그 일곱째의 기록하신 임께서 당신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어 땅에서 당신의 초자연적인 조화로 만국을 다스리실 것을 ㄷ 언약하셨고 그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자의 약속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ㄹ 언약하신 구약과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언약하신 ㄴ 신약이 각기 다른 언약이 아니라 서로 오차 없이 맞아떨어져서 외길을 증언하신바, 필연이 이루어지고야 말 세상의 운명입니다. 하느님의 낙원은 ㅂ 하느님께서 인생을 쫓아내시고 당신네만 남으셔서 즐기시려고 심으신 낙원이 아닙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먼저 남자가 지어지고 그 남자의 몸으로부터 여자가 태어나 하느님의 형상대로 양과 음이 되었는데 그 인생은 하느님께서 심으신 낙원에서 쫓겨나 ㄷ 흠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고 말았으나, 신약의 계시록에서는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와는 거꾸로 여자에게서 만국을 통치할 남자가 생산되고 ㄹ 따라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후천이 ㄷ 시작됩니다.

천주를 마음에 모시는 자는 조화가 정하여져 있습니다. 인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한글판 성서에는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옮겨진 의미의 어휘를 본래 조선에서는 조화라고 하였고 어린양께서 인생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고 인생을 사셔서 아버지께 바치심으로 ㄷ 말미암아 하느님의 기록하신 신이 인생 속에 계셔서 죄를 짓고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산 자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ㄱ.마25:6 요9:4 ㄴ.요9:4~5 ㄷ.눅22:30 계2:26, 12:5, 19:15 ㄹ.눅16:29 ㅁ.눅22:20 요6:40 ㅂ.눅23:43 계2:7 ㅅ.창3:23 ㅇ.계12:5 ㅈ.사65:17, 66:22 베후3:13 계21:1 ㅊ.계5:9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을 발하는 빛의 아들이 됩니다. 성자께서 언약하신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께서 지으신 인생과 같이 태어났다가 죽는 생명이 아닙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죄를 짓고 하느님의 낫을 피하여 숨었고, 가인이 주의 낫을 뱉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욥의 생명은 하느님과 분리되어 사망으로 끝나는 생명이나 하느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은 사망에서 거꾸로 생명으로 태어나는 하느님의 제 삼위의 생명입니다.

하느님께서 생산하시는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들을 생산하시려고 일곱째의 인자로 탄생하신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목숨을 버리시어 인생을 위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망은 하느님과의 결별이고 생명의 부활은 하느님과의 화합이어서 하느님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어린양께서 인생의 죄를 떠맡아 지셔서 몸소 하느님께 버림 받고 죽은 자가 되셨으나 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속죄를 받는 것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어린양과 같이 인생도 산 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맺으시는 그의 무수한 열매가 만왕의 왕이신 그들의 주와 함께 세상에 출현하여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는 새 세상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비로소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거하여서 인생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과 인생이 있는 땅이 더는 서로 격리되지 아니한 하느님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ㄱ. 단12:3 마13:43 ㄴ. 창3:8 ㄷ. 창4:14 ㄹ. 요6:63 ㅁ. 요5:24 ㅂ. 요1장2:2, 4:10 ㅅ. 사53:4~9 요1:29 ㅇ. 마27:46 ㅈ. 요12:24 ㅊ. 계5:10, 20:4~6, 22:5 ㅋ. 계21:3 ㅌ. (창3:17) 사62:4

그러한 예식으로 하느님을 믿었던 그들에게 사람의 욥신을 가지신 이께서 오셔서 당신을 가리켜 유일하신 하느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행으로 가르치신 하나하나의 교훈은 오염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념을 송두리째 부정하시는 교훈입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어서 누추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신을 감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느님의 친자라고 사칭한다 하여서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참람(僭濫)하다며 미워한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의 글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큰 복이 담겨있는 영원한 복음이지만 그 큰 복을 받을 자가 믿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없으시고 온통 이기는 자일 뿐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전쟁을 하는 하느님의 군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빛의 아들이 아버지와 그의 어린양과 하나가 되어 그 삼위가 함께 거하는 영원한 처소가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도성, 곧 하느님의 나라인 것이어서 성서의 모든 말씀은 하느님의 독생자와 그의 나라를 증거하여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ㄱ. 계14:4 ㄴ. 출6:26, 7:4, 12:17, 12:41, 51 ㄷ. 출4:22 ㄹ. 사82:6 요10:34~35 ㅁ. 출3:15 ㅂ. 요1:1, 18 ㅅ. 요10:34 ㅇ. 신10:17 수22:22 시136:2 단11:36 ㅈ. 딤후6:15 계1:5, 17:14, 19:16 ㅊ. 창1:2 ㅋ. 눅16:9 요14:2~3

하느님께서 야곱의 환도 뼈를 치심으로써 그 뼈가 위골 되었는데 야곱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서 그 인내로 승리하였습니다.

ㄱ.요5:39 ㄷ.계7:3~4, 9:4, 14:1 ㄴ.출31:13 ㄴ.계14:1 ㄷ.요10:30, 17:21~23 ㄹ.창32:24~32 ㅎ.마5:10~12 막10:30 ㄴ.눅11:49, 21:12 ㄹ.요15:20

선지자 스가랴가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가 본 계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느님의 명을 받은 나훔의 종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고 사탄(마귀)은 그 천사의 우편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계시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하느님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일컬으며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 사탄의 박해로 말미암아 화염에 그슬려서 더럽게 된 여호수아에게는 도리어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정(淨)한 관(冠)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과거의 인물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豫表)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筭)을 나게 하리라』 고 예언하신 것이요.

그리스도의 계시에 요한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받았고 그 갈대로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라는 명을 받았듯이 순이 돌아나서 하느님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명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와 같은 어음의 이름입니다. 온갖 오명과 누명을 쓰셨던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백마를 타신 원수(元帥)를 따라 세상과 싸워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대로 뒤따라 세상을 이기는 이들이 바로 하느님의 군대요 하느님의 장자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느님의 성전은 곧 이새의 뿌리에서 순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의 종도들입니다. 이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육을 따라 태어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아니라 이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 인 맞은 자들의 수가 창세로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류입니다.

ㄱ.창3:24 ㄴ.스5:2 ㄷ.속3:1~5 ㄹ.속3:8 ㅁ.계11:1~2 ㅂ.속6:12 ㅅ.눅2:34, 7:34, 11:15 ㅎ.요16:33 ㄷ.계19:11~14 ㄷ.요일5:4 ㄷ.계6:1~2 ㄷ.사11:1, 10 ㅅ.요2:19~21 ㅅ.고전3:16 ㅎ.요3:6, 8:37~44, 10:16 ㄷ.롬9:8 ㄷ.갈3:29 ㄷ.계7:4~8 ㅅ.요1:49, 12:13, 18:37

베드로와 같이 주를 따라 목숨을 바친 성도들과 주께서 다시 오실 말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목숨을 무릅쓰고 세상에 맞서서 끝까지 버티면서 예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인데 나중 된 자들의 수가 먼저 되어서 희생된 자보다 많은 것이어서 성서에 그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된 종들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펼치시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그 천지를 다 지으시고서 당신의 독생자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서 당신께서는 안식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천지의 주인이 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 곧 하느님의 창조의 완성이요.

ㄱ.히9:7 ㄴ.창4:4 ㄷ.창15:10 ㄹ.창15:17 ㅁ.출24:17 ㄷ.신9:3 ㄷ.행2:3 ㅂ.레11:26

그 창조의 완성은 일곱째의 생명으로 나신 인자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하신 그대로 되새기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그 결과 온전하신 하느님과 같이 온전한 하느님의 아들들이 생산되는 것이고 그 독생자와 아들들이 함께 천하만국의 주가 되시어 이 땅의 만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느님의 뜻은 어두움이 없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창세 때에는 그 나라를 심으신 것이고 말세에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듯 그 나라가 개벽되어 열리는 것입니다.